

ISSN 1226-9638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9

제38권 제1호 통권 43호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38권  
제1호  
통권43호  
2019

大韓齒科醫史學會  
발행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ISSN 1226-9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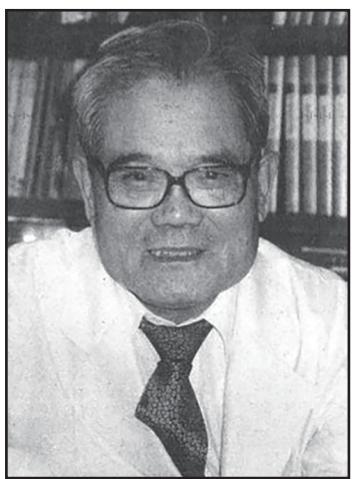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9

제38권 제1호 통권 43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그림 설명>

**기창덕(奇昌德, 1924-2000)**

기창덕 선생께서는 1948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과 후학양성에 매진하셨으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셨다.

13권의 저서와 12회의 초청강연 등을 통해 한국의학사 및 한국치의학사 연구에 대한 공헌을 하셨으며, 대한의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의사학 발전을 주도하셨다.

학문적 활동과 병행하여 학창시절부터 50여 년간 나환자와 극빈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과의료 혜택을 베풀시고, 뇌성마비, 지체장애 아동에 대한 무료치과 시술에 진력하시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198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문화상, 1994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고, 1995년에는 세계 치과학계의 저명한 국제학술단체인 뼈에르 포샤르 아카데미로부터 특별봉사상을 받으셨다.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치의학의 발전과 학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1960년 10월 7일에 창립된 이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치의학의 역사를 조명하여 인간적 인 치의학과 의료 행위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고문님, 회장님, 임원님, 관련 기관, 회원 여러분의 헌신 덕택입니다. 이에 저는 모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는 치의학에 관한 역사의식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도서들의 출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회의 발전과 회원 간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와 집담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치의학의 역사를 돌아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대한치과의사학회지에서는 인문, 역사, 여행 세 개 영역에서 각각 홀륭한 저자를 모셨습니다. 치의학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 12월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김희진



# 목 차

한국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 최매지의 생애와 활동 ..... 윤은순(Yoon, Eun-Soon)	1
고처 쓴 전근대(前近代) 한국치의학사 연구(韓國齒醫學史 研究) ..... 신재의(Shin, Jae-Ui)	9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오스트리아 여행 ..... (The history of dentistry : Austria Tour) 권 훈(Kweon, Hoon)	51



# 한국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 최매지의 생애와 활동

윤 은 순  
Yoon, Eun-Soon

- I . 들어가는 말
- II . 대한애국부인회 활동과 계몽운동
- III. 해방 후 정치활동과 사회사업
  - 1. 해방 후 정국 인식과 정치 참여
  - 2. 사회사업과 봉사활동
- IV. 나오는 말

# 한국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 최매지의 생애와 활동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윤 은 순

## I. 들어가는 말

한국 최초 여성치과의사 최매지 선생님은 일제시기부터 해방후까지 평생동안 민족을 위해 일하셨다. 일제시기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활동을 통해 옥고를 치르셨고, 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해방 후 남조선과도입법의 원과 제헌국회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도모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재부인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YWCA활동을 통해 사회사업과 봉사활동을 하였다. 더불어 한국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로서 평생 직업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전문성을 사회운동에 활용하였다.

## II. 대한애국부인회 활동과 계몽운동

최매지(崔梅智, 또는 崔錦鳳)는 1896년 5월 6일 인천에서 최봉진의 3남매 중 장녀로 출생하였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할머니의 영향으로 개화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부친 최봉진은 상업으로 생활이 넉넉한 편이었다. 자녀들의 교육에도 열의를 보여 모두 일찍이 학교교육을 받게 하였다. 최매지의 큰아버지 최병현은 인천 내리 교회와 영화학교 설립자 중 한 명으로서 가족 모두 기독교 환경 속에 있었다.

1906년 경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주한 최매지는 감리교계통의 삼승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14년 이화여자중학교를 거쳐 일본유학을 떠나 1916년 일본 廣島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귀국하여 삼승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삼승학교는 당시 진남포 3·1운동의 거점역할을 하였다. 이미 삼승학교 재학시절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던 최매지는 교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sup>1)</sup>

3·1운동 이후 조직된 여성항일운동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에서의 활동이 그것이다. 1919년 6월 평양에서는 기독교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각 상해 임시정부를 원조할 목적으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그 해 11월 ‘대한애국부인회’로 연합하였다.<sup>2)</sup>

※2019년 종합학술대회(2019.12.8) 발표연제

1) 『大韓每日申報』1907. 6. 30.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2)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제1권 분책, 민족주의 운동편 소수, [대한애국부인회 관계자료]

연합회 본부의 총재는 상해 임시의정원 의장 손정도의 어머니 오신도, 회장 최순덕·안정석, 부회장 한영신, 재무부장 정월라·조익선, 적십자부장 이성실·김신희·홍활란, 서기 최명실·최매지·이겸량 등이 맡았다. 임원은 기독교계가 연합한 만큼 교사와 교회의 전도부인이 중심을 이루었다.

연합회는 평양에 두고 각 지역에 감리교와 장로교의 지회가 각각 있었는데, 지회 간이나 회원끼리 연락을 금지함으로써 비밀결사를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하였고, 본부와의 연락도 서면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였다.

최매지는 연합회 서기 겸 진남포지회 회장을 맡았다. 1919년 10월 최매지의 집에서 안애자 등과 함께 3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학부형 및 교인가정 심방형식으로 집집마다 모여 회비를 걷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약 90원을 평양 연합회에 송부하였다. 1920년 5월 대한애국부인회 각 지회 대표자가 모두 평양의 기홀병원 간호부실에서 모여 회합하였다. 2400여 원을 모집하여 1차로 957원 및 회원들이 모은 금은반지를 임시정부로 보냈다. 이후 1,059원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군자금모집은 유력가와 가정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금은 물론 각종 반지와 털배자, 여성의 머리숱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가체인 月子까지 모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일제에 발각되면서 대한애국부인회 간부 여러 명이 검거되었다. 최매지는 신흥리 감리교회 여선교회 모임 중 체포되었다. 대부분의 회원이 검거되었고, 상당수가 형을 받았다.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보낸 것과 연락원에게 국내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기소내용이었다. 임정 연락원 3명을 포함하여 모두 106명이 검거되었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sup>3)</sup>

1920년 12월 2일 강서경찰서에서 체포되어 최매지를 비롯하여 임원 10명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여 이듬해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최매지는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었다.<sup>4)</sup>

1922년 5월 최매지는 가출옥한다. 1년 넘는 복역 중 심한 고문을 당하고, 옥중에서 장티푸스와 늑막염을 앓아 병보석을 신청하려던 중 출옥을 하게 되었다. 출옥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일찍 나오게 되어 기쁘다는 것 외에 말을 아껴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sup>5)</sup>

결국 조선내에서 교직생활 및 활동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최매지는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치의학을 공부하였다. 1928년 동경여자치과의학전문대학 본과를 졸업하고, 1929년 전공과를 졸업한 최매지는 귀국하여 다시 진남포로 돌아온다. 진남포에서 남포치과의원을 개업하여 다년간 조선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마다하지 않았고, 의료진이 부족한 시골을 다니며 외과와 소아과 의사의 역할까지 감당하였다. 그러한 중에 한글을 모르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친절한 그의 성품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sup>6)</sup>

1933년 최매지는 진남포아동협회를 조직하였다. 어린이보호와 보건 및 교양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이 협회는 5월 25일 득신유치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교육에 매진하였다.<sup>7)</sup>

최매지는 특히 유치원 교육에 애정이 있었다. 진남포 비석리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석유치원의 신축 원사 모금 행사에 여러 사람과 함께 기부하는 등 유치원에 관심을 두었던 최매지는 진남포 신흥리 감리교회 경영의 삼승유치원 원감으로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시작하였다.<sup>8)</sup>

3) 『毎日申報』1920. 11. 7. 「耶穌教長老監理兩教派婦人信徒百六名으로 조직된 秘密結社大韓愛國婦人會檢舉」

4) 『동아일보』1921. 2. 27. 「平壤의 大韓愛國婦人會控訴判決」

5) 『毎日申報』1922. 5. 28. 「特別한 待遇에는, 참으로 감사해요 하며 침묵 중에 잠잠, 崔梅智嬪 談」

6) 『毎日申報』1935. 8. 10. 「杏林界一覽」

7) 『동아일보』1933. 5. 28. 「보육과 교육목적 아동협회 조직」

8) 『동아일보』1934. 7. 25. 「비석유치원 건축동정연극」; 『동아일보』1935. 3. 13. 「삼승유치원 보모들 사직」

한편, 1935년 이성수, 서상덕, 강기경, 최무덕 등과 진남포 여성동우회를 창립하였다.<sup>9)</sup> 회원 70여 명으로 출발한 이 단체는 빈곤층에 대한 음식 봉사를 비롯하여 당시 경성보육학교 교장으로 있던 임영신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과 아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지속하였다.<sup>10)</sup>

최매지는 대한애국부인회 사건 이후 현실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았다. 치의학을 공부하고 치과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였고 전문적 지식을 사회활동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유치원을 필두로 하는 교육사업과 여성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기독교계의 농촌운동, 절제운동에 참여하면서 일제시기 내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였다.

### III. 해방 후 정치활동과 사회사업

#### 1. 해방 후 정국 인식과 정치 참여

최매지는 1938년 42세에 이재유(李在瑜)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 그는 남편을 따라 안동으로 내려오게 된다. 낯선 곳에 정착하였지만 그는 안동읍내에 삼일치과병원을 개업하고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글을 모르는 부인들까지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공민학교에서 남의집살이하는 식모들에게도 글을 가르쳤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남편은 1945년 일찍이 사망하고 만다. 이에 그는 “내 일신과 내 가정을 생각하기보다 나라를 위해서만 몸을 바치라는 하늘의 명령”이라 깨닫고 일생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한다.<sup>11)</sup>

안동에서 해방을 맞이한 최매지는 1945년 12월 안동애국부인동지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다. 대한애국부인회 안동군지부장을 겸하였다. 해방 후 안동지역 광복절 기념식에서 독립선언서를 대표로 낭독할 정도로 그 지역 명망이 컸다.

안동은 일제시기부터 좌익세력이 강성한 곳으로서, 해방 직후 치안유지회가 조직되었을 때에는 좌우익이 함께 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을 두고 좌우익은 찬탁과 반탁으로 갈려 대립하게 되었다.<sup>12)</sup>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좌익의 세는 위축되고 우파 세력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선독립촉성중앙회가 각지에 지부를 두었다. 안동에서는 조선독립촉진회 안동군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46년 3월 독립촉성국민회로 개편되었다. 여기에서 최매지는 부녀부장을 맡았다.<sup>13)</sup>

1946년 8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이 발표되었다. 최매지는 10월부터 치러진 민선의원을 뽑기 위한 부·군 대의원 선거에서 안동군 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여성으로서의 사명감을 표출하였다.

9) 진남포여성동우회는 ‘교회단체 제외하고 이렇다 할 여성단체 없는 진남포서 처음 창립’이라는 보도내용과 이후 회의 활동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1924년 조직된 조선여성동우회와는 관계없는 단체인 듯하다.『朝鮮中央日報』1935. 9. 23. 「진남포에서 여성동우 창립」

10) 『동아일보』1936. 1. 22. 「鎮南浦養老院에 歲饌을 寄贈」; 『동아일보』1936. 5. 12. 「성황의 진남포 여성문제강연」. 한편 최매지는 「내가 겪은 20세기」에서 여성동우회 창립을 1931년으로 회고하였다.

11) 『경향신문』1973. 10. 25. 「내가 겪은 20세기」

12) 하 종, 2009, 「미군정기 안동지역 정치세력의 동향과 국가건설운동」『대구사학』 97, 3~22쪽.

13) 『자유신문』1946. 5. 30. 「地方消息: 獨促 安東에 支部」

“이번 선거는 조선사람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발전과 행정의 조선사람에 이양을 약속하는 중대한 일이니만치 전 여성에게 부하된 책임과 기대는 크다고 생각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출마한 것입니다. 뜻밖에도 당선되었으므로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sup>14)</sup>

민주정부 구성에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서, 당시 우익 여성지도자들의 정부구성에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최매지의 안동의원 당선에 대해 『부녀일보』는 해방 후 여성의 정치적 진출로서 크게 환영하였다. 여성계에서는 당시 여성들이 정치관념이 희박한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여기며 탁월한 여성지도자들의 정치권 진출을 적극 환영하였다. 미군정기 실시된 제한적인 선거였지만, 여성이 당선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매지에 대한 기대가 컸다.<sup>15)</sup>

애초 입법의원 선거는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아니 거의 제외되었다. 관선 45인과 민선 45인을 뽑는 입법의원 선거는 우익 및 온건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미군정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다.<sup>16)</sup> 원칙적으로는 남녀구별없이 평등, 보통선거로 실시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선거권은 세대주에게만 주어졌다.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는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해당 사항이 없었다. 더구나 지역의 반장이 도장을 걷어 한꺼번에 찍는 등의 비민주적 행태도 많았다.<sup>17)</sup>

이러한 때에 최매지가 안동군 대표로 선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남편없이 치과의사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지역내 명망을 얻고 있었고, 그동안 독촉애국부인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안동군 대표로 피선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町·洞·里, 邑·面, 郡·島, 道 대표의 4단계의 간접선거를 거쳐 최종 도의원에 뽑혀 야 45인의 민선의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 결과적으로 입법의원이 되지는 못했다. 결국 민선의원에 여성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sup>18)</sup>

입법의원 선거에 이어 최매지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다.<sup>19)</sup> 최매지는 『부인신보』 입후보자 광고를 통해 ‘여성의 사정은 여성이여만 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성의 대변자’, 여성운동가, 교육가로서 국회의원출마의 포부를 소개하였다.<sup>20)</sup> 그러나 안동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출마하였지만, 상당수 일본 유학 출신의 남성입후보자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표(2,382표)를 얻고 낙선하였다.<sup>21)</sup>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여성정치인은 한명도 없었다.

최매지는 애국부인회 전국대회로 많은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여성참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여성계몽운동을 철저히 전개할 것을 다짐하였다.<sup>22)</sup>

여성들은 선거 결과를 두고 과거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여성운동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철저한 여성운동을 위해 의회진출을 다짐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여성계몽운동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법적으로 참정권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어려움을 우선 계몽운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14) 『婦女日報』 1946. 10. 31. 「崔梅智女史談」

15) 『婦女日報』 1946. 10. 31. 「女性의 政治能力示現, 女代議員遂登場!, 安東郡代表에 崔梅智女史被選」

16) 『婦女日報』 1946. 10. 31. 「女性의 政治能力示現, 女代議員遂登場!, 安東郡代表에 崔梅智女史被選」

17) 『경향신문』 1946. 11. 9. 「入議選舉監視員 歸還報告懇談會」

18) 『조선일보』 1946. 10. 16. 「경기도 대의원 6명 선거」

19) 최매지가 입후보한 안동지역 후보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동 갑 권중순(무소속, 49세) 김중학(무소속, 46세), 김익기(독촉, 33세), 권영찬(무소속, 63세) 유시영(무소속, 48세), 최금봉(독촉애부, 53세), 안동을 김중희(무소속, 53세) 정현모(무소속, 55), 정태하(독촉, 39세) (『동아일보』 1948. 4. 25. 「입후보자명부」)

20) 『부인신보』 1948. 4. 18. 「國會議員候補者 立候補에 際한 所見發表」

2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안동근현대사1 -정치행정』, 안동시, 2010, 226쪽.

22) 『부인신보』 1948. 6. 17. 「눈물겨운 보고사항 女性運動 지금부터 부녀자계몽운동철저하자」

1950년 2월 서울로 올라온 최매지는 이후 선거출마 등의 직접적인 정치활동은 하지 않는다. 정치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여성의 대표자’로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 부족을 계몽운동으로 극복하려 하던 차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시급했던 여성구제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순천의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등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꾸준히 응원하였다.<sup>23)</sup>

## 2. 사회사업과 봉사활동

서울에서 한국전쟁을 맞은 최매지는 말죽거리의 친척집에 피난하였다가 1·4후퇴 때에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에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최매지는 초량에 치과의원을 개업하고 ‘전쟁미망인회’를 조직해 기술 교육과 직업알선을 했다.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서울은 전쟁으로 남편과 가족을 잃은 여성들과 고아들로 가득차 있었다. 한국전쟁은 민족의 비극이었고, 그것은 여성들에게 이중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활터전을 잃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고 생계를 위해 ‘윤락여성’이 되었다.

일제가 만든 공창제도는 그 폐지가 지속적으로 요청되었지만, 일제시기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방 후 비로소 폐지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시기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대책없이 이루어진 제도의 폐지는 오히려 사창이 변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던 중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군인의 수가 증가하고 생활고에 몰린 여성들이 성매매로 흘러들면서 ‘윤락여성’의 수는 급증하여 전국에 ‘전쟁미망인’ 및 ‘전쟁불우여성’이 3만명 이상 있고 그 중 4할이 성매매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었다.<sup>24)</sup> 1953년 11월말 전국 ‘접대여성’ 총수는 17,349명으로 치안국 보안과 발표상 보도되었고, 이는 경찰에 등록된 수로서 파악되지 않은 여성의 수는 더 많아 이들에 대한 구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sup>25)</sup> 성매매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토대붕괴에 따른 결과였다.<sup>26)</sup>

최매지는 우선 월계동에 삼일치과를 개원하여 빈민 치료에 나서는 한편, 기독교여성절제회를 통해 성매매여성구제에 노력하였다. 1953년 대한기독교절제회연합회 이사 및 서울지역 회장이 된 이래 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며 오랫동안 절제회에서 활동하였다.<sup>27)</sup>

대한기독교절제회연합회는 1923년 기독교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의 조선지회 설립이라는 형태로 조직된 절제운동 단체이다. 금주금연·공창폐지·생활개선 운동이 주요 활동이었다. 절제운동은 기독교적 생활윤리운동임과 동시에 식민지하 조선인의 삶의 개선을 도모한 사회운동으로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그 대표적 활동기관이었다.

해방 후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로 회명을 변경하고 일제시기 전개한 운동을 이어갔다. 서울 동자동에 ‘애우관’이라는 시설을 설립하고 성매매여성과 소년원에서 출소한 무의탁 소녀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 절제회 회원들이 ‘푼돈모으기’, ‘폐품수집’ 등을 통해 장소를 마련하였다. 이곳에서는 양재, 편물, 미용 등의 기술교육과 가정간호, 교양강의 종교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취업의 길을 열어 새로운 삶을 찾도록 하는

23) 『경향신문』 1954. 5. 13. 「수송교사건에 박순천씨총담화」

24) 『경향신문』 1952. 2. 26. 「戰爭不遇女성 서울市에 三千餘名」

25) 『경향신문』 1953. 12. 12. 「萬七千三百名 全國接待 및 慰安婦總數」

26) 『경향신문』 1953. 11. 2. 「女性에게 戰亂이 가져온 것(4)」

27) 『경향신문』 1968. 1. 29. 「포스트」

데 주력하였다. 1947년에 시작되어 1976년까지 계속되었다.<sup>28)</sup>

최매지는 서울역에 나가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여성들도 데려와 일부는 귀향시키고 일부는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성매매여성 미연방지에 대한 보건 사회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sup>29)</sup>

금주금연운동과 공창폐지운동은 절제회 초기부터 이어져온 대표적 활동이었다. 해방 후에도 이 운동은 계속되었다.<sup>30)</sup> 이에 더하여 최매지는 한국전쟁 이후 일반인의 삶은 어려운데, 한편에서는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만연함을 비판하고 금주금연도 중요하지만 사치근절이 더욱 중요하다며 고위층의 솔선수범을 촉구하였다.<sup>31)</sup> ‘남을 위해 사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합리적으로 사는 것 절제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신조로 삼았던 그의 올곧은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up>32)</sup>

인생 후반기에 이르러 종교교회 장로로서 교회활동을 비롯하여 YWCA할머니회 초대회장을 맡아 신앙과 인생의 선배로서 후진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평생의 헌신을 인정받아 1973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수여하는 용신봉사상을 수상하였다.<sup>33)</sup> 1977년에는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표창을 받았다.<sup>34)</sup> 말년에 인덕공전 이사장으로 봉직하던 중 1983년 11월 7일 사망하였다. 7세부터 ‘남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80년 동안 이를 실천한 의지의 삶이었다.<sup>35)</sup>

## IV. 나오는 말

최매지의 생애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여성’, ‘기독교’이다. 그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민족운동, 여성운동, 종교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진남포에서의 대한애국부인회 활동과 여성동우회 및 교육 활동·절제운동, 안동에서의 독립촉성애국부인회 활동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선교회 활동, 서울에서 박순천 국회의원선거운동,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활동 등 본인이 있는 곳에서 세 가지 활동을 중단 없이 펼쳤다.

또한, 각각의 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열어 직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는 한편, 직업의 전문성을 사회활동에 적극 활용한 인물이었다.

### 〈교신저자〉

- 윤 은 순
-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서울신학대학교 현대 기독교 역사연구소
- Tel : 032-340-9601, E-mail : yespal@naver.com

28) 『경향신문』 1972. 11. 15. 「不遇여성 도와49년 基督教절제회」

29) 『동아일보』 1973. 9. 20. 「숨은 사회봉사 50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30) 『가정신문』 1947. 5. 7. 「節制會主催로 禁酒禁煙 強調示」; 『동아일보』 1947. 5. 6. 「禁酒·公娼廢址를 絶叫 어제 節制會서 市街行進」

31) 『경향신문』 1968. 5. 18. 「美女性節制會 회원들 남편을 금연, 금주시켜」

32) 『매일경제』 1973. 9. 29. 「不遇한 사람들의 어머니 容信奉仕賞 받은 崔錦鳳여사」

33) 『동아일보』 1973. 9. 22. 「崔錦鳳氏에 奉仕賞」

34) 『경향신문』 1977. 11. 30. 「獨立有功者褒賞者 名單」

35) 『동아일보』 1983. 11. 8. 「한국 최초 여치과의사 최매지 여사」



# 고처 쓴 전근대(前近代) 한국치의학사 연구(韓國齒醫學史 研究)

신재의  
Shin, Jae-Ui

- 제1장 선사시대 치의학
- 제2장 단군조선(檀君朝鮮),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치의학
- 제3장 고려(高麗) 치의학
- 제4장 조선왕조 치의학
- 미래를 위한 결론(結論)

# 고처 쓴 전근대(前近代) 한국치의학사 연구(韓國齒醫學史 研究)

치의학박사/문학박사  
신재의

## 제1장 선사시대 치의학

한국인의 치의학적 관심은 신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어느 나라의 신화이든 그것은 사실의 역사가 아니라 수수께끼와 같은 암호이다. 현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한 현실 속에 담겨진 마음의 언어인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역사보다도, 시와 소설과 같은 허구의 신화 속에 한 민족의 운명과 영혼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sup>1)</sup>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선사시대의 인간의 치아는 어떠했을까? 낙랑고분에서 나온 두개골은 당시의 치과 질환의 가능성을 말해준다.<sup>2)</sup> 치과 질환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는 한반도에서 발굴된 선사시대(先史時代) 유적지 250여 곳이 있다. 이 유적지는 남한(南韓) 지역 160여 곳, 북한(北韓) 지역 90여 곳 중에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수렵구, 어로구, 농경구, 생활용구 등과 인골이나 치아가 출토된 100여 곳의 문헌을 시대별로 정리한 인류체질학적인 연구가 있다.

1) 구석기유적지(舊石器遺跡趾) 15곳,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의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고 보는 석기와 조리를 한 흔적으로 숯이나 화덕 터 등이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유물들과 같이 구석기시대인(舊石器時代)의 치아에서는 심한 마모증과 치아 우식증이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한반도에서는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심한 마모증과 치아우식증 같은 치아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신석기유적지(新石器遺跡趾) 21곳,

신석기시대에서는 수렵, 어업, 농업에 쓰이는 기구와 함께 신석기시대인의 악골 23개와 치아가 보고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치아의 교모증에 관해서 “심하다”고 표현 되고 있다.

이 글은 1969년 치원 제4호에 게재 된 종합 한국치의학사 연구를 50년이 경과하여 고쳐 쓴 것입니다.

1) 李御寧: 韓國과 韓國人①, 삼성출판사, 1968. 13쪽.

2) 崔鎮煥: 韓國齒學史의 研究抄, 一山, 金斗鍾博士 稀壽紀念論文集, 1966. 400쪽.

Boots : A Chinese Nak Nang skull of the A. D. 2C. J. A. D. A. 22 : 292, 1935.

## 3) 청동기유적지(青銅器遺跡趾) 90곳,

청동기시대에는 식기, 조리구, 수렵구 등이 이용되었고, 벼, 피, 기장, 팥, 수수, 콩 등의 곡물을 저장 조리함으로서 조리법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천이 있었다. 함께 출토된 이 청동기시대의 인골에서 악골과 치아가 출토되었다. 그중 우식치가 2개와 “교모증이 심하다”고 보고되고 있고, 악골 한 곳에서는 치유된 발치와가 보고되었다.

## 4) 철기유적지(鐵器遺跡趾) 35곳,

철기시대에는 수렵구, 어로구, 농경구, 식기들이 출토되면서 가축으로 소·돼지·개·말 등을 기르고 곡물로는 밭벼·벼·밀·보리·조·콩·팥 등 거의 모든 곡물들을 재배하였다. 3곳에서 철기시대인의 상하악이 완전한 7구의 인골이 보고되었고, 2곳에서는 낱개의 치아를 1개씩 보고하고 있다. 악골에서는 1-2개의 우식치와 심한 교모증, 그리고 발치의 흔적을 보고하였다. 치조골의 흡수로 치아주위조직, 또는 치근 질환의 흔적도 있었다.

## 5) 한반도에도 풍습적인 발치가 있었음이 확실하였으나 차아·채색·변형 등의 풍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선사시대의 치아를 포함한 인골에 대하여는 현재로는 인류체질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 1) 치아 파절, 구강 영역의 외상,
- 2) 악골 골절,
- 3) 치수염과 치주병,
- 4) 치아교모증과 치아 마모증 및 각종 계발증이 있었을 것이다.

그 치료법으로는

- 1) 전신적 및 국소적인 안정,
- 2) 종교적 행사와 환자의 기도, 주원(呪願)과 금기사항의 준수,
- 3) 수지(手指)에 의한 국소의 압박, 안마 또는 배농,
- 4) 약초의 복용,
- 5) 식이요법,
- 6) 부적(符籙) 등으로 볼 수 있다.<sup>3)</sup>

3) 李漢水:『齒科醫史學』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1-15쪽.  
奇昌德:『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17-43쪽.

## 제2장 단군조선(檀君朝鮮),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치의학

### 제1절 역사적 배경

우리의 조상들은 일찍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부족국가를 세우고 문화생활을 하였다. 단군조선은 이러한 금속문명의 전래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금속문명은 우리나라에 정치적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 것이었다.<sup>4)</sup>

고구려(高句麗)는 중국 민족과의 싸움으로 중국 영향권에서 탈피하여 자주적인 문화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천신숭배와 조상숭배사상이 문화를 지배한 힘이었으나 중국으로부터 도교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전 주(周)의 왕 부견(符堅)이 보낸 중 순도(順道)에 의하여 처음 들어온 불교는 우리의 문화에 크게 영향하였다.

백제(百濟)는 마한(馬韓) 사회의 후신으로 지배형태인 분할통치에 의하여 세워진 국가였고 북쪽에서 내려온 부여족(夫餘族)에 의하여 이룩된 부족국가이므로 다음 단계인 고대국가를 형성하기 힘들었다.

신라(新羅)는 지역적인 원인으로 선진문화의 수입은 늦었으나 정치적인 승리로 삼국과 수당의 문화를 종합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신라는 당(唐)나라의 도움으로 삼국을 통일하였지만 당나라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을 단연 배격하여 문화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신라 말기에는 골품제도의 혼란과 불교에서 전통적인 교종에 대항하는 선종의 현실적 세력의 등장으로 통일신라의 사상체계는 흔들리게 되었다.<sup>5)</sup>

### 제2절 치의학을 위한 의서 찾기

치의학적 연구 자료는 수입되기 시작한 중국의 한의서를 참고 할 수 있고,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의 의서와 그 외의 서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61년(고구려 평원왕 3년) 고구려를 거쳐 일본에 간 사람이 있었다. 오(吳)의 사람 지총(知聰)이 내외전(內外典)과 약서(藥書)와 명당도(明堂圖) 등 164권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일본에 귀화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서에 기록된 치의학적 지식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sup>6)</sup>

백제는 중국의 남조시대에 이르러 그 영향이 활발하게 되었다. 남조에서 사용하던 의서와 주후방(肘後方) 6권이 백제에 수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sup> 의서로는 백제신집방(百濟新集方)이 있었으나 서명만 전할 뿐 치아 및 구강에 관한 자료는 얻을 수 없었다.<sup>8)</sup>

신라는 692년(효소왕 원년)에 설치된 의학(醫學)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본초경(本草經), 갑을경(甲乙經), 소문경(素問經), 침경(針經), 맥경(脉經), 난경(難經) 등의 의서 이외에도 당시 중국에서 많이 사용된 의서인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천금방(千金方), 외태비요(外台秘要) 등이 수입되었을 것이다.<sup>9)</sup> 그리고 신라의 신라법사방

4) 河炫綱: 韓國人의 意識構造와 外勢의 作用, 創作과 批評, 1968. 9쪽.

5) 河炫綱: 韓國人의 意識構造와 外勢의 作用, 創作과 批評, 1968. 9쪽.

6)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44-46쪽.

崔鎮煥: 韓國齒學史의 研究抄, 一山 金斗鍾 博士稀壽紀念論文集, 1966. 400쪽.

7)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47-49쪽.

8)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48쪽.

百濟新集方 本方書가 어느 때 누구의 손으로 엮어진 것인지 그 유래를 전연 알 수 없다. 다만 日本圓融主永觀 2年(高麗 成宗 3年; 984年)에 丹波康賴가 編述한 醫心方에 그 方文이 두 곳이나 인용되어 있고, 그 중의 하나는 康賴의 曾孫 丹波雅忠의 著인 藥略抄에 전재되어 있다.

9) 崔鎮煥: 韓國齒學史의 研究抄, 一山 金斗鍾 博士稀壽紀念論文集 1966. 400쪽.

(新羅法師方), 신라법사류관비밀요술방(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 신라법사비밀방(新羅法師秘密方)이 있었으나 서명만 전할 뿐 치아 및 구강에 관한 자료는 얻을 수 없었다.<sup>10)</sup>

### 제3절 문헌적 고찰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질병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볼 수 있다.

이 신시를 열은 환웅(桓雄), 이가 곧 환웅천왕이다. 그는 바람의 신과 비의 신과 구름의 신들을 거느리고서 농사며, 생명이며, 질병이며, 형벌이며, 선악이며, 인간에서의 삼백 육십여 가지의 일들을 주재하여 인간세상을 다스려 갔다.<sup>11)</sup>

이 시대에 인간에서의 삼백 육십여 가지의 일들을 주재하여 인간세상을 다스려 갔다는 말은 제정일치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으로 생명과 질병에 대한 샤만(shaman)에 의한 기도, 주원, 금기, 약물료법이 치료법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시기였다.

고구려 의학은 역사적으로 뒷받침되는 바와 같이 한문화와 불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여 한방의술과 인도의설을 합쳐 자주적인 발전을 하였다. 459년 고구려 의사인 덕래(德來)는 백제를 거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난파(難波)에서 의업을 행하여 난파약사(難波藥師)란 칭호를 얻었다.<sup>12)</sup>

백제는 한의학과 인도의설을 수입하여 일본으로 전달하였는데 의박사(醫博士) 왕유릉타(王有陵陀)와 채약사(採藥師) 반량풍(潘量豐)과 고덕(高德)인 정유타(丁有陀)가 도일하여 의약을 가르쳤다.<sup>13)</sup>

신라는 지역적으로 외래문화의 접촉이 늦어 한의학과 인도의설보다 무의적(巫醫的) 술법(術法)이 강했으나 민족 통일 후 삼국과 수당의학을 종합 발전시켰다.

불교의 수입은 지금까지 없던 승의를 배출하게 되었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치목(齒木 Danta kasta)을 사용하였는데 길이가 12중지나 8지정도이고 굵기가 손가락만한 나무로 일종의 칫솔로써 일본으로 건너가 양지(楊枝)라 불리게 되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질병이 발생될 때에는 민간적 경험방법 이외에 신을 위안하는 기도와 병마를 축출코자 하는 무주적 방법으로써 그것을 퇴치코자 하던 것이 불교의 수입과 함께 보살또는 신중(神衆)의 힘을 빌어 병액을 제거하고자 하는 풍습이 농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방의학의 논리적 구성의 유일한 기초 지식인 음양(陰陽) 및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 오행의 철리적 사상은 인도의설의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4원소설에 의하여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을 것이다.<sup>14)</sup>

선도술(仙道術)의 불로장생(不老長生) 연금술(鍊金術) 방중술(房中術)의 영향은 삼국시대에서는 주후방(肘後方)에서 통일신라에서는 양생법방(養生法方)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sup>15)</sup>

10)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07쪽.

11) 三國遺事 紀異 第一·卷一 고조선.

12)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56쪽.

13)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56쪽.

14)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06. 7쪽.

15)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33쪽.

의사제도로서 고구려에서는 시의(侍醫)가 있었으며, 백제에서는 약부(藥部) 의박사(醫博士) 채약사(採藥師) 주금사(祝禁師)가 있었으며 구료제도(救療制度)도 있었다.<sup>16)</sup> 신라의 의사제도는 고구려, 백제에 미루어 알 수 있으며, 통일신라 이후에는 약전 공봉의사(供奉醫師) 내공봉의사(內供奉醫師) 의관 국의(國醫) 승의(僧醫) 공봉복사(供奉卜師) 의박사(醫博士)가 있었으며 의육제도가 따로 있었다.<sup>17)</sup>

#### 제4절 비의서에 의한 접근

인간의 관념이 미분화한 원시사회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 충동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형태적이고 일의적인 자연이나 신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신화 속에서 이러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니 신라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비(妃) 알영(闕英)의 탄생 설화가 그러한 것이다.

이날(B. C. 57) 사량리에 있는 알영정(闕英井) 옆에서 다 한 마리 계룡이 나타나더니 그 왼편 옆구리로 한 계집아 이를 탄생시켰다. 그 자태가 유달리 고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의 입술이 마치 닭의 부리처럼 생겼었다. 곧 일성 북쪽에 있는 시내로 데리고 가서 씻겼더니 그 부리가 빠지면서 예쁘장한 사람의 입술이 나타났다. 부리가 빠졌다고 해서 그 시내의 이름을 발천(撥川)이라 했다.<sup>18)</sup>

이상은 한국인의 최초의 구강에 관한 기록은 입술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화가 현실로 돌아올 때 한국인은 벌써 기원전부터 구강성형에 관심을 가졌다 할 수 있었다.

부여 건국신화에서도 비슷한 입술에 관한 신화가 있다.

금와왕(金蛙王)의 신하 중에 부추(扶芻)란 사람이 어사 노릇을 하였는데 하루는 그물을 당기었으나 그물이 찢어져버리므로 다시 쇠그물을 띠서 그것을 당겨보았더니 한 여자가 돌을 걸타고 나오는데 그 입술이 너무 길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긴 입술을 세번이나 잘라내고 나서야 입을 열고 말을 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얼굴이 비할 곳이 없기로 그 여자를 금와왕에게 바치었다.<sup>19)</sup>

치아에 관한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볼 수 있는 유리(儒理) 이사금의 등극 이야기에서이다.

처음에 남해왕(南解王)이 돌아가자 태자유리가 마땅히 즉위하여야 할 것인데 대한 탈해가 평소에 덕망이 있음으로써 유리는 임금 자리를 그에게 밀어주려고 사양하니 탈해(脫解)는 말하기를 신기대보(왕위)는 용렬한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듣건 데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齒)가 많다하니 시험합시다. 하고 떡을 물어 이를 시험한 즉 유리의 잇금(齒理)이 많은지라 군신들은 곧 유리를 받아들여 잇금으로 모시고 니사금(尼師今)이라 이름 하였다.<sup>20)</sup>

박노례(朴弩禮) 니질금(尼叱今)이 왕위에 오를 때이다. 노례는 그의 매부 탈해와 함께 왕위를 두고 서로 사양했다. 아무래도 쉬 결정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이자 탈해(脫解)는 한 방법을 내 놓았다.

대개 덕이 있는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한다. 우리 두 사람의 잇금을 세어 보아 많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도록 하자. 두 사람은 떡을 가져다 한 입씩 물었다가 내놓았다. 노례의 이가 더 많았으므로 그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 이에 칭

16)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58-60쪽.

17)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05쪽.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三十九 職官供奉醫師 無定數.

18) 三國遺事 紀異第一·卷一 新羅 始祖 赫居世王.

19) 李殷相: 韓國野談史話全集, 동국문화사, 1961. 7쪽.

20) 金富軏: 三國史記 卷第一 儒理尼師今

호를 낮금이라 했다. 낮금이란 칭호는 이 노례왕에서 시작되었다. A.D.23년 노례왕의 즉위는 곧 유성공(劉聖公) 원년 계미년에 있었다.<sup>21)</sup>

연령과 덕(德), 치리(齒理)는 고령자를 존경하던 원시사회부터 내려오는 사회의 관념이 있고 또한 연령을 치아로 측정한 것은 예기(禮記)에서 시작된 것으로 치적령야(齒赤齡也), 치시년지별명(齒是年之別名)이라 하였다.

양주동(梁柱東)의 설에 의하면 니질금(尼叱今) 니사금(尼師今) 등은 낮금의 음차(音借)다. 질(叱), 사(師) 등의 자(字)는 인음(人音)의 향예식(鄉禮式) 표기다. 그러므로 낮금은 사왕(嗣王) · 계군(繼君)의 뜻이다.

탈해 이사금 무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치아와 악골에 대한 깊은 관심 뿐만 아니라 더나가서 조직 해부학적 지식과 법의학적 지식의 면모를 볼 수 있다.

113년 왕위에 있는지 23년, 탈해(脫解)왕이 승하하자 소천 구릉에 장사지냈다. 나중 그의 혼령이 나타나 내 뼈의 매장을 삼가라는 지시가 있었다. 680년(문무왕 20년) 능을 헤쳐 보았더니 그 해골의 둘레가 석자 두치 몸뼈의 길이가 아홉자 일곱치(9尺 7寸), 이(齒)는 엉키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 뼈마디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살았을 때의 그것처럼 사슬진 그대로 있었다. 이른바 천하무적의 역사의 골격이었다. 그 뼈들을 부수어 소상을 만들어 궁궐 안에다 안치했더니 혼령이 또 나타나 일렀다. 내 뼈를 동악에다 두도록 하라. 이 지시에 따라 그곳에 봉안했다.<sup>22)</sup>

치아에 관한 용치(雍齒)<sup>23)</sup>, 순치(脣齒)<sup>24)</sup>, 순망치한(脣亡齒寒)<sup>25)</sup>이라는 낱말에서 해부·교정학적 지식과 그 보편화를 엿볼 수 있다.

용치(龍齒)는 해마치(海馬齒) 혹은 해추치류(海鰍齒類)의 치(齒)의 화석으로 안신(安神), 강정(強精)의 작용을 가진 희귀한 약재로서 치아의 불멸성과 효용성을 말해주고 있다.<sup>26)</sup>

백제의 장수 흑치상지(黑齒常之)는 언어가 주는 뜻대로 한다면 병리학적으로 반상치(斑狀齒)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sup>27)</sup>

또한 병리학적 지식으로써 궁예(弓裔)의 탄생 시에 일관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에 나고, 나면서부터 이가 낚고, 또한 이상한 빛이 나타났으므로 장래 국가에 불리한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마땅히 이를 기르지 않은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라고 한 것은 선전치(Congenital tooth)에 대한 경외심으로써 특수한 것을 두려워하던 통일 신라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28)</sup>

기도와 병마를 축출코자 하는 무주적 방법으로써 그것을 퇴치코자 하던 것이 불교의 수입과 함께 병액을 제거하려는 풍습이 농후하게 되었다. 불설주치경(佛說呪齒經)에서 치아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벌레로 화한 악령 때문이며 이 벌레는 불의 힘을 빌어 치료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21) 一然: 三國遺事 紀異第一 卷一 노례왕.

22) 三國遺事 紀異 第一卷一 탈해왕.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51쪽.

23)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七 文武王.

嗚呼兩國未定平. 蒙指蹤 文驅馳. 野獸今盡. 反見烹宰之侵逼. 賦殘百濟, 反蒙雍齒之賞, 殉漢新, 己見丁公文誅.

24) 金富軏: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蓋鹵王

且高句麗不義逆詐非一. 外慕隗辱藩卑之辭. 內懷凶禍豕突之行. 或南通劉氏. 或比約蠕蠕.

共相肩齒. 謀凌王略.

25) 金富軏: 三國史記 卷第二十二 始祖 溫祚王

則脣亡齒寒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文 以免後難

26) 金富軏: 三國史記 卷第四十五 緣眞

召國醫診脈. 日病在心臟. 須服龍齒湯.

27) 金富軏: 三國史記 卷第四十四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長七尺餘.

28) 金富軏: 三國史記 卷第五十 弓裔

日官奉曰. 此兒以重午日生. 生而有齒. 且光焰異常. 恐將來不利於國家 宜勿養之.

### 불설주치경

듣자 하니 북방 땅끝에는 건타마가연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벌레가 사는데 그 이름은 치후무라고 부른다. 그 벌레가 지금 환자인 누구(환자의 이름을 부른다)의 치아 속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곧 사자를 보내서 감히 그 놈이 그 치아와 치아의 속과 치근 속을 파먹지 못하게 한다. 벌레는 숨지 말고 그 머리를 깨져 7푼 쯤 되기를 마치 저 구라근이라는 개미와 같이 되어라.

범천(梵天)이 이 주문을 내게 외우도록 권한다. 나무불 나로 하여금 주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원대로 되게 하소서.<sup>29)</sup>

### 佛說呪齒經

南無佛南無法南無比丘僧南無舍利佛大目犍連比丘, 南無覺意 名聞邊北方犍陀 摩訶衍山.

彼有虫王名羞吼無在某牙齒中止. 今當遺史者無敢食某牙及牙根中牙根中牙邊虫.

不卽下器中頭破作7分如鳩羅勒蟻. 梵天勤是呪南無佛, 令我所呪皆從如願<sup>30)</sup>

치아의 불멸성과 종교적인 신념은 불사리(佛舍利)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사에 의하면 549년(진흥왕 10년)에 양나라 사자 심호(沈湖)가 사리 약간을 보내 왔고, 643년(선덕왕 즉위 12년)에 자장법사가 불두골. 불아(부처의 어금니) 불사리 백개와 그리고 부처가 입었던 붉은 깁에 금점이 박힌 가사 한 벌을 당나라에서 가져왔다. 자장법사가 가져 온 그 사리는 세 몇으로 나누어 황룡사 탑과 태화사 탑과 그리고 부처가 입었던 그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각각 일부분씩을 봉안했고, 사리와 가사 이외의 것들은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않다.

의상법사는 조용히 선율사에게 말했다. 율사께선 이미 천제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일직이 들으니 제석궁에는 부처님의 이 마흔 개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사께선 그 이를 인간 세계에 내리어 복이 되게 해 주시도록 천제에게 청해 보심이 어떻소?<sup>31)</sup>

이러한 치아의 불멸성과 종교적인 신념의 생각은 서양에서도 일반화 되었다.

치아가 비교적 불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신과 치아는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의술은 미신이나 마술과 종교적인 신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야만인들은 치아를 활력의 증거로 중히 여겼으며 이와 반면에 마술의들은 치아를 줄에 꾸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금의 불후성과 치아의 불멸성이 특별한 힘을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으니 곧 적절히 청원하거나 간절히 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의 비밀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신앙이었다. 그러한 신앙에서 파라오들은 황금을 숭배했고 중세 사람들은 일각수의 뿔에 생기를 주는 힘이 있다는 신앙을 가졌으며 부처의 치아를 숭배하는 일이 생겼다.<sup>32)</sup>

29) 李漢水, 『齒科醫史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66-67쪽.

30) 大藏經, 佛說摩尼羅亶經

31) 三國遺事 塔像 第四·卷三 전후를 통해 가져온 사리.

32) 모리스 · 스미드 저, 최진환 옮김, 치과의학사, 14쪽, 1966.

## 제5절 의서에 의한 귀결

해부학적으로 골격과 오자육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당시에 구강에 관한 지식은 황제내경(黃帝內經)을 이루고 있는 소문경(素問經)과 침경(針經)에 의한다.

입은 그 넓이가 2촌반, 입술에서 치아에 이르는 길이가 9푼, 치아에서 뒤로 회압(會壓) 후구(候口)에 이르는 깊이가 3촌반이며 그 부피는 5합(合)이다. 혀는 무게가 10양(兩), 길이가 7촌, 넓이가 2촌반이라 했다.<sup>33)</sup>

### 치아의 생리를 보면

내경(內經)에 가로되 여자는 7세에 신기(腎氣)가 성하고 이를 갈며 머리털이 길어지고 21세에 신기가 평균하는 고로 진아(眞牙)가 나서 다 길어지고, 남자는 8세에 신기(腎氣)가 실(實)하고 머리털이 길어지고 이를 갈며 24세에 신기(腎氣)가 평균하는 고로 진아(眞牙)가 나서 다 길어지고, 40세에 신기가 쇠(衰)하여 털이 빠지고 이마 가르며 64세에 치발(齒髮)이 간다.

고 하였으니 간다는 것은 탈락한다는 의미이다.<sup>34)</sup>

병리설(病理說)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내외양병인설(內外兩病因說)과 인도의 4대부조설(四大不調說)과 수·당(隨·唐) 의학의 병리설(病理說)과 음양5행설(陰陽五行說)이 첨가되었다.

음양오행설에 영향을 받은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을 보면, 아치병제후(牙齒病諸候)와 순구병제후(唇口病諸候)로 나누인다.

### 아치병제후(牙齒病諸候)

이것에는 치통(齒痛)을 비롯하여 풍치(風齒), 치은종(齒斷腫), 치간출혈(齒間血出), 치충(齒蟲), 치동요(齒動搖), 치황흑(齒黃黑) 등 모두 21론(論)이 열거되어 있다.

### 순구병제후(唇口病諸候)

이것에는 구설창(口舌瘡), 긴순(繫唇), 순창(唇瘡), 토결(兔缺), 구취(口臭), 구설건조(口舌乾焦), 설종강(舌腫強), 중설(重舌), 실결함차차(失缺頷車蹉) 등 모두 17론이 구강연조직질환(口腔軟組織疾患) 및 하악탈구(下顎脫臼)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sup>35)</sup>

구강위생(口腔衛生)에 관하여는 탁치(琢齒)와 황흑색물인 치상(齒狀)을 감도(疳刀)로 긁어 벼려야 한다고 하였다.

예후(豫後)에 관하여는 침경(針經)에 입술이 뒤집혀지면 죽고 편작(扁鵲)은 환자가 입을 벌인지 3일이 되거나 환자의 치아가 갑자기 검은 색으로 변하면 13일 만에 죽는다고 하였다.

치료법으로는 대부분 약물료법에 의한 구간 내과적 처치이며 침령법(針靈法)이 다음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약물을 데운 연기를 환부에 씌워 치료하는 훈(熏)이 사용되었다.

외과적 치료법으로 발치(拔齒)와 소작법(燒灼法)이 있고 특히, 하악탈구(下顎脫臼)가 되었을 때의 치료법으로서 손가락으로 그 환자의 턱을 잡고 점점 누르면서 밀어 넣으면 제자리에 들어가는데 이때 손가락을 빨리 빼지 않으면 물릴 염려가 있다고 한다.

33) 許浚: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 口舌의 크기.

34) 許浚: 東醫寶鑑 外形篇 牙齒 牙齒의 變化.

35) 모리스·스미드 저. 최진환 옮김 : 치과의학사 185쪽. 1966.

## 제3장 고려(高麗) 치의학

### 제1절 역사적 배경

통일신라 말기의 골품제도(骨品制度)는 동요와 재조정 또는 자기항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태를 거듭하여 왔다. 중앙 귀족의 상쟁이 격화됨에 따라 그 결과로 귀족의 권위가 떨어지고 세력기반도 붕괴하였다. 그리하여 농민 노예들이 초적 또는 군도로써 그 도당조직을 확대시킴에 따라 양길(梁吉)·기훤(箕萱) 같은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지방의 호족들도 상호 협력과 연맹으로 신라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한 왕건(王建)은 즉위하면서 곧 취민유도(取民有度)를 표방하는 정치의식으로써 고대적 수취에 반대 하는 중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면에서 우선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궁예(弓裔)나 무력적으로 지방 세력을 협종(脅從)시키는데 그 친 견훤(甄萱)과는 다른 정치적 체질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고대적인 족제(族制) 원리를 폐기한 궁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대적인 수취제도의 지향까지도 내세우면서 지방호족의 통합에 힘쓰고 유교정치이념(儒教政治理念)을 표방했던 것이다.<sup>36)</sup>

광종(光宗) 때에는 호족세력을 억제하고자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였으며 족적유대관계(族的紐帶關係)의 중시와는 별개인 학문 성적에 의해서 관리를 채용하는 과거제도(科舉制度)를 성립시켰다. 유동적인 이러한 제도는 성종(成宗)때에 이르러 최승로(崔承老)에 의하여 통일을 보았다.

몽고제국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자주성을 상하고 문화적으로 예속화를 강요당하였다. 고려 사회가 이와 같이 원제국(元帝國)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 발전이 정체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원제국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지도계층 내부의 알력과 그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원제국의 분할통치만이 크게 기세를 올렸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고려 사회가 자체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원제국의 세력을 배제해야만 하였다.

그 뒤 원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그 영향권에서의 탈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공민왕은 원제국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애써 여러 방면으로 성공을 거둔 듯도 하였으나 궁극에 가서는 그의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종교적으로는 초기에 풍수도참(風水圖讖)사상으로 인하여 유교정치이념(儒教政治理念)의 확립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광종(光宗) 이후부터는 불교의 국교화에 따른 교선종(敎禪宗)의 발전으로 천태종(天台宗)이 이루어져 자기 인식 자기처리방안이 세워지고 불교의 철학적 이해가 이루어졌다.

말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불교의 퇴폐화와 더불어 이와 대체하여 유교의 점진적인 확장을 보게 되었다.<sup>37)</sup>

### 제2절 치의학을 위한 의서 찾기

#### 가. 송나라와 교류

고려는 북쪽에 요나라가 있어 송나라와는 지리적으로 해상으로 통상을 하고 있었다. 1068년 송나라 황제의 명을 받은 나증(羅拯)이 고려에 황신을 파견하므로 교류가 되기 시작하였다.

36) 金哲坎: 羅末麗初의 社會轉換과 中世 知性. 創作과 批評. 12, 1968.

37) 河炫綱: 韓國人の 意識構造와 外勢의 作用. 創作과 批評, 9, 1968.

## 『高麗史』世家 卷第 8, 9

1068년(문종 무신 22년)

가을 7월 신사일에 송나라 사람 황신(黃愼)이 와서 왕을 뵈옵고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강, 회, 양절, 형호 남북로 도대제치 발운사(江淮兩浙荆湖南北路都大制置發運使) 나증(羅拯)을 불러 그에게 이르기를 ‘고려는 예로부터 군자의 나라로 알려져 왔고 그들의 선대로부터 우리 나라에 극진한 성의를 표시하여 왔는데 그 뒤에 이르러 호상 내왕이 두절된 지 오래이다. 근자에 듣건대 그 나라 임금이 현명하다고 하니 사람을 보내 인사를 치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증의 추천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보내 황제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그에 대한 접대를 후하게 하였다.

1070년(문종 경술 24년)

8월

송나라의 호남, 형호, 양절 발운사(湖南荊湖兩浙發運使) 나증(羅拯)이 다시 황신을 파견하여 왔다.

1072년(문종 임자 26년)

6월 경술일에 송나라에서 의관(醫官) 왕유(王愈), 서선(徐先) 등을 보내왔다.

갑술일에 김제(金悌)가 송나라로부터 돌아왔다. 그 편에 송나라 황제가 다음과 같은 5통의 칙서를 보내었다.

- (1) “당신은 누대의 왕업을 계승하여 우리 나라에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진귀한 공물들을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글월을 보내 안부를 묻고 있으니 당신의 극진한 마음에 대하여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 (2) “당신은 대대로 삼한(三韓)을 다스려 모든 부족들에게 위엄을 떨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여 몽매간에도 잊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선대의 유풍을 옳게 계승하였으니 당신의 처사를 보건대 실로 고맙고 감탄할 일이다.”
- (3) “충성과 효도가 지극하여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의 정책에 호응하며 사절을 부지런히 보내 나의 은공에 일일이 보답하고 있다. 당신의 이러한 성의에 대하여 일정한 갚음이 있어야 하겠기에 이제 귀국 사신 김제의 돌아가는 편에 국서(國書)와 물자를 보내는 바이다. 특별히 주는 의복, 비단 등속은 별지와 같으니 도착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 (4) 귀국 사신 김제가 가지고 온 물품들이었다.
- (5) “귀국 사신 김제의 말에 의하여 귀국에서 보소왕사[普炤王寺—당나라 때 저명하였다]는 중승가 대사(僧伽大士)가 창건한 절인 보광왕사(普光王寺)]에 은을 납부하고 재(齋)를 올려 나의 수명을 기원한 사실을 알았다. 기자(箕子)가 원래 요하(遼河) 동쪽에서 봉지를 받았었고 그 후 승가(僧伽)가 사수(泗水—중국 산동 지방에 있는 강. 보광왕사가 여기에 있음) 가에서 불교를 선전하였다. 마침 이 절에 사신을 보내 재를 정성껏 올렸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축수까지 하였으니 당신의 성의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송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문교를 숭상하는 곳이라 하여 조서를 보낼 때마다 반드시 글 잘 하는 신하를 선발하여 조서를 짓도록 하되 그 중에서도 잘 지은 것을 선택하였으며 파견하는 사신과 서장관은 반드시 종서성으로 불러서 그의 문필을 고사하여 본 뒤에야 보냈던 것이다.

#### 나. 송나라에서 보내온 약재

고려는 송나라와 수교 후 돌아가는 사절을 통하여 왕이 풍비증(風痺症)으로 앓는다는 것을 말하고 의사와 약재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송나라에서는 한림의관(翰林醫官) 형조 등을 당신에게 보내 병을 치료하게 하고, 1백 가지의 약품을 보내왔다.

『高麗史』世家 券第 9

1078년(문종 무오 32년)

여름 4월 신미일에 송나라 명주(明州) 교련사(敎練使) 고윤공(顧允恭)이 사절을 파견하며 서신을 교환하려 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 왕이 말하기를

“송나라에서 우리에게 사절을 파견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으랴! 나는 일변 기쁘기도 하고 일변 놀랍기도 하다. 사절 접대를 담당할 모든 관원은 각각 직책을 다하여 실수가 없게 하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한 자에게는 벼슬을 높여 줄 것이요, 태만하고 용렬하여 과실을 범한 자에게는 별도로 강직 혹은 파직을 적용할 것이다.”

6월 갑인일에 송나라의 국신사(國信使) 좌간의대부 안도(安燾)와 기거사인 진목(陳睦) 등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예성강에 도착하였다.

왕이 조서 접수 예식을 치르고 나서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송나라 임금이 우리를 잊지 않고 멀리 대신을 보내 이렇게 응송한 물품을 주리라는 것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던가! 감사하기도 하려니와 그보다 부끄러운 생각이 앞다”라 하였다.

가을 7월 을미 일에 도 등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왕이 돌아가는 사절을 통하여 글월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자기가 풍비증(風痺症)으로 앓는다는 것을 말하고 의사와 약재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1079년 (문종 기미 33년)

가을 7월 신미일에 송나라에서 왕순봉(王舜封), 형조, 주도능(朱道能), 심신, 소화급(邵化及) 등 88명을 보내왔다. 그들이 가지고 온 조서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보낸 글월을 받아 ‘내가 나이 많고 기력이 쇠진한 관계로 갑자기 풍비증(風痺症)에 걸렸는데 본국에는 의원의 기술이 부족하여 치료하는 솜씨가 굼뜨고 약재가 좋지 못하여 효력이 미약하다. 청컨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소국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주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백발백중의 옛처방에 의하여 이 병을 진찰하게 하고 신농씨가 발명한 약재를 보내 이 병에 써 보도록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당신은 접수하리라고 믿는다.’라는 사연을 잘 알았다. 당신은 동방을 통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누대의 옛일을 계승하여 여러 해째 공물을 보내오고 있으므로 사절을 띠워 조서와 물품을 보냈던 것이다. 그들의 돌아오는 편에 보낸 글월을 잘 보니 거기에는 당신의 간곡한 태도가 표현되어 있을 뿐더러 당신이 오래 전부터 병으로 고생하면서 좋은 의료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할 때 실로 동정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특별히 사신을 파견하

여 우수한 의원을 선발하고 진귀한 약재들을 사면으로 탐구하여 다시 험한 바닷길로 보내 당신의 병을 치료하게 하였으니 이들이 가면 곧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당신과 같이 어진 사람에게는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 더욱 조섭을 잘 하여 멀리서 생각하는 이 마음을 보답하기 바란다. 이제 합문통사사인(閣門通事舍人) 왕순봉과 한림의관(翰林醫官) 형조 등을 당신에게 보내 병을 치료하게 하고 겸하여 1백 가지의 약품을 별지와 같이 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보내온 약품은 다음과 같다.

- |                         |                           |
|-------------------------|---------------------------|
| 경주(瓊州—중국의 海南道)의 침향(沈香), | 북경(北京)의 육리인(郁李仁),         |
| 광주(廣州)의 목향(木香),         | 유주(柳州—廣西省)의 계심(桂心),       |
| 강녕부(康寧府)의 철분(鐵粉),       | 서경(西京)의 창포(菖蒲),           |
| 광주의 정향(丁香),             | 광주의 봉아무(蓬莪茂),             |
| 동경(東京—廣東省南部)의 연상(鉛霜),   | 채주(蔡州)의 단삼(丹蔘),           |
| 옹주(邕州—廣西省)의 자연동(自然銅),   | 서경의 괴교(槐膠),               |
| 광주의 혈갈(血竭),             | 해주(海州—江蘇省)의 해동피(海桐皮),     |
| 계주(階州—甘肅省)의 응황(雄黃),     | 동경의 원지(遠志),               |
| 서용(西戎—西方種族)의 천축황(天竺黃),  | 한주(漢州)의 촉초(蜀椒),           |
| 병주(并州)의 석고(石膏),         | 위승군(威勝軍)의 황기, 익주의 승마(升麻), |
| 운주의 천마(天麻),             | 제주의 방풍(防風),               |
| 서용의 안식향(安息香),           | 운주의 천문동(天門冬),             |
| 수주(壽州—安徽省)의 석곡(石斛),     | 한주의 방기(防己),               |
| 회주(懷州)의 우슬(牛膝),         | 익주의 독활(獨活),               |
| 제주(齊州—山東省)의 천남성(天南星),   | 동주의 숙전지황(熟乾地黃),           |
| 운주의 아교(阿膠),             | 촉주의 부자(附子),               |
| 익주(益州)의 궁궁(芎藭),         | 정주의 속단(續斷),               |
| 광주의 육두구,                | 진주의 백강점(白姜漬),             |
| 제주의 반하(半夏),             | 익주의 강활(羌活),               |
| 은주(銀州—陝西省)의 시호(柴胡),     | 촉주의 천옹(天雄),               |
| 하주(夏州—湖北省)의 육종용,        | 제주(安徽省)의 산수유(山茱萸),        |
| 촉주의 대황(大黃),             | 촉주의 오두(烏頭),               |
| 광주의 물약(沒藥),             | 정주의 구척(狗脊),               |
| 대주의 녹각교(鹿角膠),           | 소주의 오수유(吳茱萸),             |
| 원주의 감초(甘草),             | 촉주의 측자(側子),               |
| 운주의 적전(赤箭),             | 광주의 괴향(藿香),               |
| 진정부(眞定府)의 의이인(薏苡仁),     | 진정부의 차전자(車前子),            |
| 태주의 오약(烏藥),             | 서경의 척촉,                   |
| 광주의 빈랑,                 | 정주의 마황(麻黃),               |
| 소주의 맥문동(麥門冬),           | 서경의 적작약(赤芍藥),             |
| 정주의 구기(枸杞),             | 여주의 택사(澤瀉),               |
| 상부(商府)의 지각(枳殼),         | 노주의 두중(杜仲),               |
| 광주의 여감자(餘甘子),           | 서경의 생건지황(生乾地黃),           |

여주(廬州)의 진피(秦皮),  
 채주의 백지(白芷),  
 서경의 선복화(旋覆花),  
 덕주(德州—山東省)의 백미(白薇),  
 택주(澤州—山西省)의 지모(地母),  
 병주(并州)의 산조인(酸棗仁),  
 동경의 견우(牽牛),  
 경주(涇州—甘肅省)의 진봉,  
 동경의 질려자,  
 탕주(宕州—甘肅省)의 고본(膏本),  
 촉주의 당귀(當歸),  
 동경의 만형자(蔓荊子),  
 익주의 건칠(乾漆),  
 노주의 전호(前胡),  
 동경의 토사자(兔絲子),  
 사주(泗州)의 갈근,  
 택주의 인우(茵芋),  
 노주의 호마자(胡麻子),  
 택주의 황금(黃芩),  
 채주의 지유(地榆),  
 정주(定州)의 오령지(五靈脂),  
 서경의 망초(莽草),  
 정주(定州)의 대극(大戟),  
 한주의 오가피(五茄皮),  
 재주(梓州—四川省)의 후박(厚朴),  
 정주(定州)의 천근,  
 서경의 선녕비(仙寧脾),  
 정주의 지골피(地骨皮),  
 서경의 하수오(何首烏),  
 상주(商州)의 위령선(威靈仙),  
 서경의 목단피(牡丹皮) 등과  
 별도로 보내온 우황(牛黃) 50냥쯤,  
 용뇌(龍腦) 80냥쯤,  
 주사(朱砂) 3백 냥쯤,  
 사향(麝香) 50제(臘)였다.

이상 약재를 각각 금은으로 도금하고 꽃을 조각한 합에 담은 것이 총무게 4백 냥쯤인데 이것을 전부 붉은 칠을 한 상자에 넣어 포장하였으며 복약용으로 쓸 행인주(杏仁酒) 열 병은 금은으로 도금하고 꽃을 조각한 10개의 병에 넣었다. 그 무게는 1천 냥쯤인데 이것을 전부 주홍 칠을 한 명금조화(明金雕花) 상자에 넣어 포장하였다.

1080년(문종 경신 34) 3월 호부 상서 유흥과 예부시랑 박인량(朴寅亮) 등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약재(藥材)를 보내 준 데 대하여 사례하고 겸하여 토산물을 전달하게 하였다.

#### 다. 송나라에서 요구하는 서적

송나라에서 요구되는 서적 목록에는 의서가 있었다.

그것은

고금록협방(古今錄驗方) 50권(당나라 견권‘甄權’의 편저),  
 장중경방(張仲景方) 15권(동한 때 장기 ‘張機一字仲景’의 편저),  
 심사방(深師方. 미상),  
 황제침경(黃帝鍼經) 9권,  
 구허경(九墟經) 9권,  
 소품방(小品方) 12권(진연지‘陳延之一朝代末詳’의 편저),  
 도은거효협방 6권(중국 남북조 시대. 양‘梁’나라 사람 도홍경‘陶弘景一號隱居’의 편저),  
 동군약록(桐君藥錄) 2권,  
 황제대소(黃帝大素) 30권(당서예문지에 “黃帝內經太素三十卷, 梁上善注”라고 하였다), 명의별록(名醫別錄)

3권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서들은 이미 고려에서 사용되어 질 수도 있었던 의서이다.

## 2. 향약의 발달과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등 의서 찾기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은 우리나라의 최고(最古) 의서로 고려(高麗)의 중기 이후 의학이 후반기로 되면서 자주적 발전을 보여 주는 책이다. 1236년경(고려 고종 23년경)에 피란 중의 강도(江都) 강화도대장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1417년(조선왕조 태종 17년 7월)에 경상도 의흥현에서 중간 된 것이 일본의 궁내성(宮內省) 도서료(圖書寮)에 현존한다.<sup>38)</sup> 이 향약구급방에는 상권 17항 중설(重舌) 18항 치감(齒衄) 중권 25항 구순병(口脣病)에서 치의학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sup>39)</sup>

제중립효방(濟衆立効方)은 의종(毅宗) 때에 김영석(金永錫)이 신라 및 송(宋) 의서를 참작하여 편집한 것이며 신집어의촬요방(新集御醫撮要方) 8권은 1226년(고종 13년)에 최종준(崔宗峻)에 의하여 다방(茶房)에서 사용되던 약방에다 요긴한 제방을 첨부하여 찬(撰)하였다.<sup>40)</sup>

이외의 고유 의서로써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과 동인험방(東人驗方)과 향약고방(鄉藥古方)과 향약혜민(경험)방(鄉藥惠民(經驗)方)이 있으며 고려 다방편(茶房編) 약방(藥方)과 진맥도결(診脈圖訣)과 향약간이방(鄉藥簡易方)이 있다.<sup>41)</sup>

송(宋)의 의서로서 1017년(顯宗 8년)에 수입된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은 우리 의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면 숙종(肅宗) 6년에는 신의보구방(神醫補救方)이 수입되었다.<sup>42)</sup>

중국 의서의 고려 판본으로는 1058년(문종12년 9월)에 충주목에서 새로 새긴 황제81난경(黃帝八十一難經) 천옥집(川玉集) 상한론(傷寒論) 본초괄요(本草括要) 소아소씨병원(小兒巢氏病源) 소아약증병원81론(小兒藥證病源81論) 장중경(張仲卿) 오장론(五臟論) 99판을 올리므로 왕은 비각에 장치하도록 분부하였다.<sup>43)</sup>

문종 13년 2월에 안서도호부(黃海道海州) 사도관원외랑(使都官員外郎) 이선정(異善貞) 등이 새로 새긴 주후방(肘後方) 73판, 의옥집(疑獄集) 11판, 천옥집(川玉集) 10판을 올렸다.<sup>44)</sup>

38)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39쪽.

崔鎮煥·李英譯: 우리나라 最古醫書인 鄉藥救急方의 引用文獻에 關한 考察, 綜合醫學 9卷4號.

崔鎮煥: 鄉藥救急方의 齒學의 고찰, 대한치과의학사회지 3호, 1962. 44-56쪽.

이한수: 한국치학사, 향약구급방과 치과의학, 1988. 113-125쪽.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1995. 105-125쪽.

39)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41쪽.

三木榮: 朝鮮醫書誌 第七 鄉藥救急方 上中下 3卷

40)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37쪽.

41)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53쪽.

42)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18쪽.

43)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25쪽.

鄭麟趾: 高麗史 世家 卷第八 文宗 12年 9月

44)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25쪽.

鄭麟趾: 高麗史 世家 卷第八 文宗 13年 2月

### 제3절 문헌적 고찰, 질병에 대한 제도

고려의 중앙의료기관으로는 목종(穆宗) 때에 처음 둔 대의감(大醫監) 또는 (전의사 典醫寺)약국, 상약국(尙藥局) 또는 봉의서(奉醫署)을 비롯하여 다방(茶房) 한림원(翰林院)의 한림의관(翰林醫官) 등이 있었다. 이외에 서민을 위한 제위보(濟危寶)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혜민국(惠民局) 등에 소속된 의원(醫員)이 있었다.<sup>45)</sup>

#### 대의감(大醫監) 또는 (전의사)典醫寺<sup>46)</sup>

官職	歷代	穆宗	文宗	忠烈王34年	恭愍王5年	同11年	同18年	同21年
官名	大醫監 大醫監 監 少監 丞 博士 醫正	大醫監 判事1.從三品 監1. 正四品 少監2.從五品 丞 2. 從八品 博士2.從八品 醫正2.從八品 助教1.從九品 呂禁博士 1, 從九品 醫針史1. 注藥2. 葉童2. 呂禁2. 呂禁工2.	司醫署典醫寺 提點2.正三品 令1.正三品 正1.正三品 副正1.從四品 丞2.從五品 郎1.從六品 直長1.從七品 博士2.從八品 檢藥2.正九品 助教2.從九品	大醫監 大醫監 監 少監	典醫寺	大醫監 大醫監 監 少監	典醫寺	典醫寺
職名					正 副正 檢藥			正 副正

#### 상약국(尙藥局) 또는 봉의서(奉醫署)<sup>47)</sup>

官制	歷代	穆宗	文宗	忠宣王	恭愍王5年	同11年	同18年	同21年	恭讓王3年
官名	尙藥局	尙藥局	掌醫署 奉醫署	尙醫局	奉醫署	尙醫局	奉醫署	典醫寺에合하다	
職名	奉御 侍御醫 直長 醫佐	奉御 侍醫2從六品 直長2正七品 醫佐2正九品 醫針史2 樂童2	1. 正六品 直長正七品 醫佐正九品	今正六品 直長 醫佐	奉御	令	奉御	令	
職名									

45)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71-177쪽.

46)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72쪽.

47)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73쪽.

병제(兵制)와 전옥서(典獄署)의 소속으로 의원을 두었다. 궁중에는 봉어(奉御)을 장(掌)하는 상약국(尙藥局) 또는 (봉의서 奉醫署) 이외에 어찬(御餐)을 공(供)하는 사선서(司膳署)에 식의(食醫)가 전속되어 있었고 동궁관(東宮官)에는 약장랑(藥藏郎) 및 약장승(藥藏丞)이 있었다.<sup>48)</sup>

지방에는 서경(西京) 유수관(留守官)에 의학원(醫學院)에 분사대의감(分司大醫監) 판감(判監) 지감(知監) 약점(藥店)을 두었다. 또 동경(東京) 및 남경(南京) 유수관(留守官) 그리고 대중도호부(大中都護府) 방어진(防禦鎮)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 약점사(藥店司)를 두었다.<sup>49)</sup>

의학(醫學)의 교육(教育)으로는 930년(太祖 13년 12월)에 중앙 및 서경에 의학원(醫學院)을 설립하여 의복(醫卜) 양업(兩業)을 공부시켰다. 성종(成宗) 때에는 주 군 현의 자제를 경사(京師)에 모아 경의(經醫)의 수업을 시키다가 7년에 이르러서 12 목(牧)에 경학(經學) 및 의학박사(醫學博士)를 두어 교육시켰다.

1004년(穆宗 7年 正月)에는 3경10도에 의육기관(醫育機關)이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1389년(공양왕 元年)에는 전의사(典醫寺)에서 의학교육(醫學教育)도 맡아 보게 되었다.<sup>50)</sup>

과거제도(科舉制度)는 959년(光宗 10年)에 제조(製造) 명경(明經) 및 여러 업(業)과 같이 시험 보다가 1136년(仁宗 14年)에 그 시험 방법이 의업식(醫業式)과 주금식(呪禁式)으로 나누어 졌다.<sup>51)</sup>

고려의 초기 의학은 신라 의학의 계승이었으며 중기에는 송(宋)과의 의서(醫書) 의인(醫人)약품(藥品)의 교류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역 및 남방을 통해서 아라비아와도 의약품이 교류되었다.

또한 불교의 국교화로 인도의학 지식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발전도 보았다. 향약의 연구도 시작되었으며 고유의학 및 중국의서의 고려판도 나오게 되었다. 중기 이후 말기에서는 몽고제국과의 교류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유수진(劉守眞) ; 새량파(塞涼派) 장자화(張子和) ; 공하파(攻下派) 이동원(李東垣) ;보토파(補土派) 주단계(朱丹溪) ; 양음파(養陰派)의 금원4대가(金元四大家)의 학설(學說)이 소개되고 의인, 약품의 교류도 활발하였다.<sup>52)</sup>

#### 제4절 비의서에 의한 접근

중세(中世) 고려인들의 치의학적 지식은 단편적이 긴 하나 분화(分化)되어 적절한 비유에 인용(引用)되었다.

이색(李穡)은 목은집(牧隱集)에서 대사구두부래향(大舍求豆腐來餉)에서 치아의 역할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었다.

이(치아)없는 이 먹기 좋고 늙은 몸 양생(養生)에 더없이 알맞다.

나물국 오랫동안 먹어 맛을 못 느껴 두부가 새로운 맛을 돋구어 주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는 치통과 인생사를 그린 시가 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으며 먹을 때에는 반드시 이(치아)로 씹는데

이가 뭉시 아파 먹지를 못하니 하늘이 나를 죽이려는가 보네

강하면 꺽이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늙고 이 빠지니 더욱 부끄럽네

48)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76쪽.

49)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77쪽.

50)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77쪽.

51) 醫業式 試驗科目은 素問經 甲乙經 本草經 明堂經 脈經 鍼經 難經 灸經 等이었다.

呪禁式 試驗科目은 脈經 劉涓子方 瘡疽論 明堂經 鍼經 七卷本草經 等이었다.

52) 모리스 · 스미드 저. 최진환 옮김 : 치과의학사 한국치학사 188쪽.

아직도 몇 개가 남아 있지만 뿌리가 훈들려서 붙을 데 없더니  
 이제 다시 쑤시고 아파서 두통까지 일어나네  
 찬물도 마실 수 없고 뜨거운 물도 입에 댈 수 없네  
 죽도 식기를 기다려 겨우 향아 먹노라  
 하물며 고기를 씹을 수 있으랴  
 고기가 있어야 한갓 도마에 있을 뿐이네  
 이 모두가 늙은 때문이니 죽어야 비로소 끝나리<sup>53)</sup>

이인로(李仁老)의 자송사(自訟辭)에서 치아(齒牙) 사이의 긴밀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나를 이(齒) 사이에 언급한 것과 비난이나 해줄는지도 알 수 없네.<sup>54)</sup>

이승인(李崇仁)의 애추석사(哀秋夕辭)에는 침과 이(齒)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  
 저를 보기 도마 위의 고기 같이, 침 삼키고 이(齒)를 가(磨)나이까?<sup>55)</sup>

이규보(李奎報)의 외부(畏賦)에는 이라고 적자생존(適者生存)에서 치아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두려움이 없을 손가. 뿐 달린 놈. 이(齒)가 진 놈. 날짐승, 길짐승. 꾸물꾸물 온갖 벌레들이  
 그 종족이 수 없이 퍼지되 모두 제 생명을 아껴 딴 족속을 무서워 하니 뿐 달린 놈.(중략)  
 턱 위 코 아래에. 속에는 이(齒). 밖에는 입술 열렸다. 닫혔다 문과도 비슷한 것<sup>56)</sup>

고려사(高麗史)에는 순치(脣齒)에 關한 기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이 치아와 입술에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 제5절 의서에 의한 귀결

### (1)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의 현대적 해석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상중하 3권 전 55항 중에서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것은 상권 17항(項)의 중설(重舌)과 18항(項)의 치감(齒蚶) 중권 25항(項)의 구순병(口脣病)에서 그 밖에 하권에 1-2항(項) 부인잡방(婦人雜方) 및 소아잡방(小兒雜方)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sup>57)</sup>

53) 奇昌德:『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100쪽.

54) 李仁老: 自訟辭, 徐居正 梁誠之 編 東文選

55) 李崇仁: 哀秉夕辭, 徐居正 梁誠之 編 東文選

56) 李奎報: 畏賦, 徐居正 梁誠之 編 東文選

57)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탐구당, 1966. 139쪽.

### 상권 17항(項) 중설(重舌)

본문의 중설(重舌)의 항(項)에는 구창(口瘡)도 부가되어 있다.

#### 1. 중설(重舌)

이것은 혀 밑에 혀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치료법은 사탈피(蛇脫皮)을 태워 그 가루를 바르고, 솔 밑바닥의 흙(伏龍肝)을 가루로 만들어 우엉 즙과 함께 석어 바르면 좋고, 어린아이의 중설(重舌)의 치료법은 녹각(鹿角) 가루를 3-4일 혀 밑에 넣어두거나 붉은 팥 가루를 초에 개서 바르거나 부들 꽃가루를 혀 밑에 바른다.

#### 2. 목설(木舌)이나 설종(舌腫)

이것은 일종의 설염(舌炎)으로 솔밑 검정(charcoal 煤始 釜下黑也)에 소금을 조금 석어 초에 타서 혀 밑에 바른다.

#### 3. 후중급구설생창란(喉中及口舌生瘡爛)

이것은 목구멍이나 입이나 혀에 궤양으로 점막이 벗겨졌을 때를 말하는데 구설생창란(口舌生瘡爛)은 양하(蘘荷)를 술에 담가 그 물로 합수(含漱)하고 설생창란(舌生瘡爛)은 감초(甘草) 청밀(淸蜜) 저지(豬脂)가 신효(神效)하다.<sup>58)</sup>

### 상권 18항(項) 치감(齒蚶)

치감(蚶齒)의 항(項)에는 낙(蠶)과 치통(齒痛)이 첨가 되어있다.

#### 4. 양치법

처음에 양치법(養齒法)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양치법으로 흡협(莢皂)과 연염(挺鹽)을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밤마다 이를 닦으면 한 달 후에는 움직이던 치아도 든든해진다.

#### 5. 아치통(牙齒疼)

이것에는 버들가지(柳枝)를 잘게 썰어서 소금을 넣어 달인 물을 머금고 있다.

#### 6. 치통(齒痛)

이것에는 계시백(雞屎白)을 태운 가루를 솜에 싸서 아픈 곳에 문다. 또 우슬(牛膝)을 태운 재로 이를 닦아도 좋다.

#### 7. 아통(牙痛)

이것에는 붉은 껌질을 벗긴 무씨를 갈아서 인유즙(人乳汁)과 섞어 왼쪽 치아가 아프면 오른쪽 코에, 오른쪽 치아가 아프면 왼쪽 코에 넣어 치료한다. 또 흡협자(皂莢子) 가루를 솜에 싸서 초(醋)에 넣어 삶은 것을 아픈 치아에 물고 있다가 식으면 바꾸는 것도 신효(神效)하다. 구기(拘杞) 껌질을 초(醋)에 삶아 그 물을 뜨거울 때 물고 식으면 배출하여 치료한다.

#### 8. 참을 수 없는 우치통(齧齒痛)

이것에는 복숭아 씨(도인 桃仁)를 태워 아픈 이에 물거나 마야목(馬夜目)을 솜에 싸서 물어도 좋다.

58) 崔鎮煥: 鄉藥救急方의 齒學의 고찰, 대한치과의학사회지 3호, 1962. 47-48쪽.

#### 9. 치근종통(齒根腫痛)

이것에는 잇몸이 붓고 아플 때는 우엉 뿌리 즙에다 소금을 넣어 은그릇 속에서 고약(膏藥)이 되도록 달여 잇몸에 바르면 심한 사람이라도 불과 3-5차에 치료된다.

#### 10. 우치(齶齒)

이것에는 산이스랏나무(郁李) 뿌리의 흰 껍질을 물에 삶아 진한 즙(汁)을 뜨거울 때는 물고 차면 빼내 치료한다. 우치(齶齒)는 벌레가 치아를 먹어 구멍이 있는 것으로 구멍 속에는 송지(松脂)를 추(錐)와 같이 만들어 넣으면 치료된다 하였다.

#### 11. 치닉(齒蠡)

이것에는 작맥(雀麥)을 고호엽(桺巴귀 잎) 30장(杖)을 이슬에 씻어서 길이 2촌(寸), 넓이 1촌(寸), 두께 5분(分)으로 잘라서 박 잎에 싸서, 3년 묵은 초에 담가두었다가 한낮에 2개를 내어서, 뜨겁게 구워 입속과 치(齒) 외변(外邊)을 대리고 식으면 바꾼다. 그렇게 한 뒤 물 담긴 동기(銅器) 속에서 그 약봉지를 풀어보면 벌레가 많으면 20-30장, 적으면 10-20장이 나오는데 늙은 놈은 누런색이고 어린 것은 흰색이라 했다.

#### 12. 아치부생(牙齒不生)

이것은 치아 결손 및 미봉출을 모두 말한다. 먼저 침을 찔러 피가 나오게 한 뒤 쇠똥 속의 콩을 태워 가루를 바르면 신효하고 같은 분량의 수탉 똥과 암탉 똥을 바르면 노인은 20일 짧은이는 10일 만에 나온다.

#### 13. 아치선로정출(牙齒宣露挺出)

이것에는 생지황(生地黃) 한 근을 나무절구에 찧어 소금 두 흡을 섞고 반치가 되지 못하게 밀가루로 반죽을 하여 당탄(糖炭)에 구은 것에 사향(麝香) 넣어 가루로 만든 것을 치근(齒根)에 부치면 낫는다.

#### 14. 아치동요(牙齒動搖)

이것은 흡협(皂莢) 태운 가루를 생지황(生地黃) 즙에 타서 계란 크기로 반죽을 하여 다시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고 또 지황(地黃) 즙(汁)을 타서 다시 태우기를 3번 한 뒤 가루로 만들어 치아에 부치면 신효(神效)하다.<sup>59)</sup>

#### 중권 25항(項) 구순병

#### 15. 구순병(口唇病)

이것은 입이 마르고 열이 나는 병이다. 구강건조증으로 열이 있을 때에는 석고(石膏)와 청밀(清密)을 물에 넣어 달인 것으로 합수(含漱)하며, 두통과 심신(心神)의 피로가 불리(不利)할 때에는 맥문동(麥門冬) 즙과 청밀(清蜜) 대추 따위를 병속에 쪄서 한 숟가락 씩 내복한다.

#### 16. 순창(唇瘡)

이것에는 동쪽 벽의 마른 흙가루를 바르며 또 삼씨(大麻子)를 태운가루를 정화수(井華水)에 개어 바른다.

#### 17. 순긴면종(唇緊面腫)

이것에는 쇠비름(마치현 馬齒莧) 즙을 바르면 낫고, 말똥구리를 태운 것도 약이라 했다.

#### 18. 구순종(口脣腫) 긴순(緊脣)이나 번순(瀰脣)

이것은 구순종(口脣腫) 인데 송지(松脂)를 기름에 녹여 연하게 바른다.<sup>60)</sup>

59) 崔鎮煥: 鄉藥救急方의 齒學의 고찰, 대한치과의학사회지 3호, 1962. 48-50쪽.

60) 崔鎮煥: 鄉藥救急方의 齒學의 고찰, 대한치과의학사회지 3호, 1962. 50쪽.

하권 1~2항(項)의 부인잡방 및 소아잡방

#### 19. 구금(口噤) 및 아관긴급(牙關緊急)

이것이 산후(產後)에 중풍(中風)으로 아관긴급이 일어났을 때와 혀가 오그라드는 설본축(舌本縮) 때에는 헝개 헤(荆芥穗)와 개자(芥子)가 약으로 사용되었다.

#### 20. 소아의 중설(重舌)

이것에는 황단(黃丹) 가루를 콩의 크기로 혀 밑에 바른다.

#### 21. 치초(齒齶)

이것은 산(酸)을 먹어 이가 상했을 때에는 호두를 잘게 썹으면 치료한다.<sup>61)</sup>

## 제4장 조선왕조 치의학

### 제1절 역사적 배경

고려말 원제국의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서는 새롭고 강력한 왕조가 탄생되기 요청되었으니 이에 조선왕조(朝鮮王朝)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명제국의 힘으로 위축된 걸음을 걷게 되었으나 세종 때에는 이를 극복하고 문화의 꽃을 피워 놓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탄생은 중요한 의의를 지닐 만하였다. 그러나 대륙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새로운 문화체계를 갖춘 여유를 주지 않았다. 원제국 대신 새로 대륙의 지배자로 등장한 명제국의 간섭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왕조는 그 출반에서부터 위축된 발걸음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왕조의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사대주의를 표방하였다고 해서 그리고 조선왕조의 국가체제가 고려 왕조의 건국 당시와 같이 자주적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명(明)의 한 제후국으로서의 자격에 알맞게 개편되었다고 해서. 독자성이 없다고 한마디로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어떻든 현재의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왕조의 건국 당시에 외부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자성을 누리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왕조의 역대 왕들은 민족문화를 형성하려 노력하였고. 그 성과는 팔목할 만한 데가 있다. 한글의 창제, 여러 가지 과학기구의 발명 等의 업적이 이루어진 것은 그 두드러진 예가 될 것이다.

조선왕조 중엽의 전란과 계속되는 당쟁은 싫든 좋든 간에 학문과 사회와 정신사에도 큰 변혁을 가져 왔다.

조선왕조 후기에 전개되는 실학의 위대성은 이민족(異民族)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국가체제를 바로 잡아보자는 정신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실학자들은 대부분이 주자학(朱子學)의 신봉자이면서도 주자학(朱子學)이 사회에 끼친 폐단을 통렬히 공격하였던 것이다.

32대 순조(純祖) 이후 외척의 발호는 한국 사회를 침체되게 했으며 집권층 및 그 주변 사람은 새로운 사조(思潮)나 문화체계에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경계하고 배척하였다.

새로운 문화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여건의 성숙을 기다리기 전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은 근대적인 운동의 쌍을 밟아 버렸다.<sup>62)</sup>

61) 崔鎮煥: 鄉藥救急方의 齒學的 고찰, 대한치과의학사회지 3호, 1962. 50쪽.

62) 河炫綱: 韓國人の 意識構造와 外勢의 作用 創作과 批評, 9, 1968.

## 제2절 치의학을 위한 의서 찾기

### (1)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85권은 1433년 세종(世宗) 15년 6월에 편찬된 것으로 의학사상 독창적인 의학서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국내 생산 약재로써 처방을 하고 삼국시대부터 고려조까지 전래하는 민간의 경험방을 정구(精究) 채취하게 하여 이들을 모두 향약(鄉藥)이라 하고 서명도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이라 한 것은 참으로 세종대왕의 성군다운 진면목이라 하겠다.<sup>63)</sup>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은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의 최초의 저본이었으며 향약간이방(鄉藥簡易方)과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이 이용되었다.<sup>64)</sup>

성종(成宗) 시의 완본(完本) 숭정판(崇禎版)의 목차(目次)를 보면 범(凡) 959문(門)에 병원(病源) 930수(首)이고 방도계(方都計) 10706통(通)이고 침자법(鍼灸法) 도계(都計) 1479도(道)이다.

본서에 인용원전(引用原典)을 보면 한국 고유 의서는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 본조경험방(本朝經驗方) 향약간이방(鄉藥簡易方)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향약혜민방(鄉藥惠民方)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 동인경험방(東人經驗方) 향약고방(鄉藥古方) 제민입효방(濟民立效方) 等이다.

중국의서 인용문헌이 총 160종인데 중요한 것은 성혜방(聖惠方) 천금방(千金方) 성제총록(聖濟總錄) 자생경(資生經) 득효방(得効方) 등이다.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에서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내용은 제34-35권 구설 · 치아문하(口舌 · 齒牙門下)에 수록되어 있다. 구설 및 치아문(齒牙門)에 관한 향약집성방의 인용의서 및 서목수(書目數)는 보면 성혜방(聖惠方)이 제일 많았으며 천금방(千金方) 성제총록(聖濟總錄) 자생경(資生經) 득효방(得効方) 순서이다.<sup>65)</sup>

###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의 인용의서(引用醫書) 및 서목수(書目數) (口舌 및 齒牙門)

書名	書目數	書名	書目數	書名	書目數	書名	書目數	書名	書目數
聖惠方	47	千金方	14	聖濟總錄	10	資生經	7	得効方	7
經驗秘方	6	外台秘要	5	三和子方	5	直指方	4	百一選方	4
經驗良方	4	肘后方	3	本朝經驗	3	神効名方	2	和劑方	2
事林廣記	2	孫真人	2	本草衍義	2	玉龍歌	2	衛生十全方	2
瑞竹堂方	2	御藥院方	2	千金翼方	2	食療	2	古今錄驗	2
巢氏病源	2	藥性論	1	澹寮方	1	永類鈴	1	新鑄銅人經	1
拔粹方	1	葛稚川	1	御醫撮要	1	新効方	1	姚氏方	1
梅師方	1	廣濟方	1	導引方	1	山居四要	1	史記	1
朱氏集驗	1	經驗後方	1	交潞公	1	鄉藥簡易方	1	經驗方	1
烟霞聖効方	1	居家必用	1	日華子	1	孟詵	1		

책 끝에는 송(宋)의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에 의존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630여종의 향약에 대한 향명과 효능 및 채취 시기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향림서원(杏林書院)에서 미키 사카에(三木榮)가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을 간행하기도 하였다.<sup>66)</sup>

63) 申信求: 世宗命撰 鄉藥集成方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969년 1月號 附錄 206쪽.

64) 權近의 陽村集 第十七卷 鄉藥濟生集成方의 序와 第二十二卷 鄉藥濟生集成方跋에서 알 수 있다.

65) 崔鎮煥: 韓國齒學史의 研究抄 一山金斗錘 博士稀壽紀念論文集 402쪽.

66) 申信求: 世宗命撰 鄉藥集成方 (1433)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969년 1月號 附錄 208쪽.

## (2) 의방류취(醫方類聚)

조선왕조 전기의 우리나라 의학(醫學)은 한당송원(漢唐宋元) 시대의 의서(醫書)와 명(明)나라 초기의 의서에 의존되어 왔다. 1445년(世宗 27年)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중국(中國) 한의서들을 분류 정리하여 의방류취(醫方類聚)를 완성하였다. 이 의방류취는 외래의 지식인 한의방을 정리한 것이다.

간행 30여년만인 1477년(成宗 8년 五月)에 266권 264책으로 교정과 이합 정리되어 인간되었다

치문(齒門)은 71-73권까지 구설문(口舌門)은 76-77권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편집 내용은 향약집성방의 체재와 비슷하게 91대강문으로 나누었고 각문에는 먼저 병론을 들고 다음에 약방들을 출전의 연대순에 따라 기록하였다. 그 내용문의 인용은 책의 연대순과 문자의 중출 및 이동에 따라 모두 주해하여 책의 원문대로 편집하였다.<sup>67)</sup> 그리하여 이 책은 당시의 한방의학적 지식을 집대성 한 백과사전 일뿐만 아니라 고전 의방서의 고증에도 중요하다.

여기 인용된 의서로는 황제내경(黃帝內經) 소문(素問) 영추(靈樞) 운기유(運氣遺)편 명당령경(明堂靈經) 침경(針經) 침자경(鍼灸經) 난경(難經) 상한론(傷寒論) 오장론(五臟論) 금궤방(金匱方) 등이다.

## (3) 동의보감(東醫寶鑑)

동의보감(東醫寶鑑)은 동양의학(東洋醫學)의 백과사전이다. 허준(許浚)에 의하여 1610년(光海君 2年 8月)에 완성한 1613년(光海君 3年 11月)에 내의원(內醫院)에서 간각(刊刻)되었다.

1592년(宣祖 25년)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보적 문화재를 비롯한 귀중한 서책들이 적병에게 약탈되었거나 병화에 소멸 되었을 뿐 아니라 기근과 역질이 만연하였다.

그러므로 전란이 회복되면서 잃어버렸던 서적들의 복인(復印)과 함께 인민들의 질병을 구료하기 위한 간편한 의방서를 편집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산물이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은 1596년(宣祖 29년)에 태의(太醫) 허준(許浚)이 선조의 명을 받들어 승의(僧醫) 정작(鄭碏)과 의림촬요(醫林撮要)를 교정한 태의(太醫) 양예수(楊禮壽)와 또는 같은 태의(太醫)인 김응탁(金應鐸) 이명원(李命源) 정례과(鄭禮果) 등과 함께 편집에 착수하였다. 책이 완성되기 전에 정유의 난이 다시 일어나서 편집의 일은 중단되었다. 그 난이 끝난 뒤 허준(許浚)은 왕의 명을 받들어 혼자서 그 일을 완성하였다.<sup>68)</sup>

이 책의 편집 내용은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이나 의방유취(醫方類聚)처럼 각 병증들을 중심으로 한 분류하였고 각 병증에 따라 치방(治方)들을 분류하였다.

이 책은 전5편으로 되었는데 내경편(內景篇) 외형편(外形篇) 잡병편(雜病篇) 탕액편(湯液篇) 침자편(鍼灸篇) 등이다.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기록은 외형(外形) 2권에 구설(口舌)과 아치(牙齒)에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86종의 역대의방(歷代醫方)이 인용되어 있으며 구설(口舌)과 아치(牙齒)의 인용의서(引用醫書) 및 서목수(書目數)는 의학인문(醫學人門) 본초학(本草學) 득효방(得効方) 강목(綱目) 등의 순서이다.<sup>69)</sup>

67) 李善宙: 世宗命撰醫方類聚 (1445)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1969년 1월호 附錄 210쪽.

68) 金斗鍾: 許浚 東醫寶鑑 (1610)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969년 1월호 限錄, 212쪽.

69) 崔鎮煥: 韓國齒學史의 研究抄 一山 金斗鍾 博士稀壽紀念論文集 表 2. 402쪽.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인용의서(引用醫書) 및 서목수(書目數) 구설아치(口舌牙齒)<sup>70)</sup>

書名	書目數	書名	書目數	書名	書目數	書名	書目數	書名	書目數
入門	54	本草	50	得効	35	綱目	35	丹心	27
回春	21	東垣	21	直指	18	醫鑑	15	千金	10
正傳	7	扁鵲	4	靈樞	6	類聚	5	本事	5
三因	4	內經	3	醫林	3	錢乙	3	河間	2
子和	2	仲景	2	濟生	2	明理	2	醫說	2
種杏	2	資生	2	延壽	2	脈訣	1	寶鑑	1
簡易	1	粹朴	1	端竹	1	海藏	1	淮南	1
集驗	1	漢史	1	十三方	1	澹寮	1	湯液	1
養性	1	曜仙	1	局方	1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 번 간행된 바와 같이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책으로 이를 전문하는 의인들은 한방의학계(漢方醫學界)에 동의보감파(東醫寶鑑派)를 형성하고 있다.

## (4)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는 이제마(李濟馬)가 1892년 7월(高宗 30년 7월)부터 시작하여 1894년(高宗 32년)에 완성시킨 책으로 사상의설(四象醫說)을 참고하였다.

사상의설(四象醫說)은 주역(周易)에 태양(太陽)이 양의(兩儀)를 생(生)하고 양의(兩儀)는 사상(四象)을 생한다는 태극설(太極說)에 의한 것이다. 주역(周易)의 4상(四象)인 태양(太陽) 이양(以陽) 태음(太陰) 및 이음(以陰)에 4장(四臟)一폐(肺) 간(肝) 비(脾) 신(腎)을 배합(配合)시켰다. 심장(心臟)을 중앙의 태극(太極)에 결합시켜 체질 크게 4종(種)으로 나누었고 각자(各者)의 증세(症勢)가 아니라 체질(體質)로 나누어진 사상(四象)으로 치료하는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제창하였다.

시대적으로 보면 바로 지석영(池錫永)이 지은 종두법(種痘法)이 국내에 전하여진 15년 후가 되며 1860년대 서양의술(西洋醫術)을 쓰기 시작한 때보다는 40여년 후이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고유문화가 유린될 무렵에 민족의학(民族醫學)으로 독특한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제창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은 성명설(性命說) 사단론(四端論) 확충론(擴充論) 장부론(臟腑論) 의원론(醫源論) 광제론(廣濟論) 사상인변증론(四象人辨證論)의 7편으로 나누어 있다.<sup>71)</sup>

이제마(李濟馬)는 자신이 사용한 태양인(太陽人) 이양인(以陽人) 태음인(太陰人) 이음인(以陰人)은 체질(體質)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장중경(張仲景)이 사용한 태양병(太陽病) 이양병(以陽病) 양명병(陽明病) 태음병(太陰病) 이음병(以陰病) 궐음병(厥陰病)은 병증(病證)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70) 崔鎮煥: 韓國齒學史의 研究抄 一山 金斗鍾 博士稀壽紀念論文集 表 2. 402쪽.

71) 李善宙: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1894)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969년 1월호 附錄 215쪽.

### 제3절 문헌적 고찰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치의학(齒醫學)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인다.

전반기(태조~선조)의 의료제도는 중앙에 내약방(內藥房) 전의감(典醫監) 혜민국(惠民局)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제생원(濟生院) 종약색(種藥色) 의학(醫學)이 있었고 특히 태조(太祖) 때에 둔 제생원(濟生院)은 각지에서 헌납되는 향약재(鄉藥材)를 관리 했다.

지방에는 의원(醫院) 의학원(醫學院) 의학승(醫學僧)을 두었다.

또 부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녀제도(醫女制度)를 창시하였다.

지금까지 명(明)이나 일본(日本) 뿐만 아니라 멀리 남양(南洋)의 여러 나라와도 교통하여 유구 삼(과왜 瓜哇)까지 관계를 가졌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의학(醫學)부문에도 큰 관심을 가져 삼대(三大) 업적을 이루었다.

첫째로 향약(鄉藥)의 자립을 위해서 향약(鄉藥)의 권장 및 감별 향약의 분포 실태 조사와 세종지리지의 편찬 향약채취월령의 간행 향약집 성방의 편찬을 하였다.

둘째로 한의 방의 정리를 위하여 중요한 한의방서(漢醫方書)를 채택했으며 의방류치(醫方類聚)를 편찬하였다.

셋째로 법의학적(法醫學的) 재제(裁制)의 창설로 신주(新註) 무원록(無冤錄)의 간행과 법의학적 지식의 일본에 전달을 하였다.<sup>72)</sup>

세조(世祖)는 의서(醫書)를 친강(親講)도 했으며 의약론(醫藥論)에는 8종의 의(醫)가 있다고 했으니 그들은 심의(心醫) 식의(食醫) 약의(藥醫) 혼의(昏醫) 광의(狂醫) 망의(妄醫) 허의(許醫) 살의(殺醫)라 하였다.<sup>73)</sup>

이 시기에 외과(外科)의 분과(分科)가 이루어졌으며 문리요법(物理療法)이 크게 발달하였다. 예로 목욕법이 온천 욕 냉천욕 한증욕(발한욕) 약욕(藥浴)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성종(成宗)은 의서 찬집에 힘을 썼고 연산군 시대에는 불행하게도 의녀제도(醫女制度)가 의기(醫妓)로 타락하기도 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의학에도 영향이 커었으나 창상에 대한 외과적 지식이 발전했으며 시체의 해부도 이루어졌고 안경, 연초, 고초의 수입과 우리나라 의학의 대량 일본 전래가 이루어졌다.

후반기(後半期)의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치의학(齒醫學)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편찬으로 대표될 수 있다. 1596년(선조 29년) 태의(太醫) 허준(許浚) 등에 의하여 시작되었던 이 편찬은 1610년(光海君 2년 8월)에 완성을 보았는데 이 책은 한의학(漢醫學)의 백과전서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후 서양의술의 도입과 실증의학의 움직임은 인조(仁祖) 때부터 우리의 의학적 분야에서 자가(自家)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실지 관찰에 입각한 실증적 학풍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지봉(李芝峰)과 류반계(柳磻溪)의 학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침자술(鍼炙術)의 발달은 허임(許任) 이형익(李馨益)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박진희(朴震禧)의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 이번(李蕃)의 용산요두편(龍山療痘篇) 유상(柳璫)의 두과전문의(痘科專門醫)는 두과(痘科)의 발달을 말해주는 저술(著述)이다.<sup>74)</sup>

72) 金斗鍾: 世宗大王의 濟生偉業과 醫藥의 自主的 發展 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五輯 1957.

73)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251쪽.

74)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331쪽.

경험의방(經驗醫方) 및 민간구급의방(民間救急醫方)의 발흥(勃興)은 이석간(李碩幹) 채득기(蔡得己) 박렴(朴濂) 허임(許任)의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구부(口部)와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의 의약방(醫藥方)과 주명신(周命新)의 의문보감(醫門寶鑑) 제3권 구설진아치(口舌唇牙齒)에서 찾아 볼 수 있었고 백광현(白光炫)의 치종술(治腫術)은 뛰어났다.<sup>75)</sup>

영조(英祖) 철종(哲宗) 년간에는 마진(麻疹)과 두역(痘疫)으로 소아과학(小兒科學)의 발달을 보았다. 이에 관한 저서로는 조정후(趙廷後)의 급유방(及幼方) 초본 권2 쟤구(撮口) 금구(噤口) 권6 구설창(口舌瘡)과 임서봉(任瑞鳳)의 임신진역방(壬申疹疫方)과 이현길(李獻吉)의 마진방(麻疹方)과 정다산(丁茶山)의 방과념통(龐科念通)과 이원풍(李元豐)의 마진회성(麻疹彙成)과 서양의 인두종법(人痘種法)의 전래를 소개한 책으로 정다산(丁茶山)의 종두심법요지(種痘心法要旨) 이종인(李鍾仁)의 시종통편(時種通編) 외에 종두진전(種痘真傳)이 있다.<sup>76)</sup>

법의학(法醫學)으로는 무원록(無冤錄)에서 구치교상사(口齒咬傷死)까지 취급하였다.

약물(藥物) 및 본초학(本草學)의 강성은 고사찰요(攷事撮要)의 개수(改修) 5권 5책과 서명응(徐命膺)의 고사신서(攷事新書) 15권 7책과 유중림(柳重臨)의 증보(增補) 산림경제(山林經濟) 15권 8책과 서유구(徐有榘) 임원경지(林園經志)에서 볼 수 있고 이경화(李景華)의 광제비급(廣濟秘笈)과 강명길(康命吉)의 제중신편(濟衆新編)은 대표적 의사(醫書)이다.<sup>77)</sup>

조선왕조(朝鮮王朝) 후반기의 의료제도는 중앙에 다음과 같은 의료기관이 있었다.

#### 내의원(內醫院) 또는 내약방(內藥房) 관직변천표(官職變遷表)<sup>78)</sup>

官職 年代		正	僉 正	判 官	主 簿	直 長	奉 事	副奉事	參 奉
建國初	內藥房	提 舉							
世宗25年	內醫院	三 品		別坐六品					參外助教
5月	"	正 1人	僉正2人		主簿2人	直長3人	奉事2人	副奉事2	參奉2人
世祖11年	"	正 1人	僉正1人	判官2人	主簿1人	直長3人	奉事2人	副奉事2	參事2人
正月	"	正三人	從四品	判官1人	從六品	從七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成宗16年	"	"	"	從五品	"	"	奉事1人	奉事1人	"
經國大典	"	"	"	"	"	"			
燕山主	"	"	"	"	"	"	奉事2人	奉事2人	"
11年正月	"			"					
英祖20年		"	"		"	"	"	"	"
續大典	"	"	"	"	"	"	"	"	"
正祖 9年	"	"	"	"	"	"	"	"	"
大典通論	"	"	"	"	"		"	"	"
高宗 2年	"			"					
大典會通									

75)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9. 333쪽.

76)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339쪽.

77)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353쪽.

78)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408쪽.

전의감(典醫監) 관직변천표(官職變遷表)<sup>79)</sup>

官職 年代	官職名 및 職制의 變遷											
建國 初	判事2人	監 2人	少監 2人	丞 2人	兼丞 2人	主簿2人	兼主簿 2人	直長2人 從七品	博士2人	檢樂 4人	助教2人	
太祖元年	正三品	從三品	從四品	從五品	從五品	從六品	從六品	“	從八品	人正九品	從九品	
太宗14年	判事2人	正2人	副正2人	判官2人	“	“	“	“	“	“	“	
正月	從三品	正品四	從五品	從五品	從五品	兼主簿3人//1人	“	“	“	“	“	
世宗16年	正3人	副芷3人	判官3人	兼判官1人	主簿2人	“	“	直長3人 兼直長	“	副奉事	參事	
7月	兼正1人	副芷2人	判官2人	“	“	直長2人	“	奉事2人	副奉事	參事		
世宗28年	正2人	正2人	判官3人	兼判官1人	主簿1人	“	“	從八品	4人 醫學訓導 1人	5人 從九品		
正月	正3人	“	兼正1人	兼判官1人	醫學教授	2人	直長1人	“	副奉事	參事		
世祖11年	兼正1人	副正1人	僉正1人	判官1人	主簿1人	“	“	奉事1人	“	2人	2人	
正月	正1人	從三品	從四品	正五品	醫學教授	1人	“	“	“	“	參事	
成宗16年	正三品	“	副正3人	“	“	“	“	奉事2人	“	“	“	
經國大典	“	革除	副正減	僉正1人	判官1人	主簿1人	“	“	“	“	“	
燕山主	“	副正減	正四品	正五品	醫學教授	1人	直長1人	奉事2人	“	“	“	
12月正月	“	“	“	“	“	“	“	“	“	“	“	
英祖20年	“	“	“	“	“	“	“	“	“	“	“	
續大典	“	“	“	“	“	“	“	“	“	“	“	
正祖9年	“	“	“	“	“	“	“	“	“	“	“	
大典通編	“	“	“	“	“	“	“	“	“	“	“	
高宗2年	“	“	“	“	“	“	“	“	“	“	“	
大典會通	“	“	“	“	“	“	“	“	“	“	“	

제생원(濟生院) 관직변천표(官職變遷表)<sup>80)</sup>

官職 年代	太祖 6年 8月	太宗 14年 正月	世祖 5年 5月
官職名의 變遷	濟生院 知院事 丞 主簿 錄事	濟生院 知院事 丞 副令 錄事 副錄事	惠民局에 屬하다

79)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412쪽.

80)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413쪽.

혜민국(惠民局) 관직변천표(官職變遷表)<sup>81)</sup>

官職 年代	官職名 및 職制의 變遷										
建國初	惠民局	判官4人	令 2人 七 品	丞 2人 八 品	主 簿 錄事2人	錄 事 副錄事					
太宗14 正月	“ 惠民署		丞	副 丞							
世祖11年 正月	“		“	“	主簿1人	訓導1人	參 奉				
成宗16年 經國大典			“	“	主簿1人 從六品	醫學教授 2人1人은 文官兼 減 1人	直長1人 從七品	奉事1人 從八品	醫學訓導 1人正九品	參事4人 從九品	
英祖20年 續大典	“				“	“	“	“	“	“	
正祖9年 大典通編	“				“	“	“	“	“	“	
高宗2年 大典會通	“				“	“	“	“	“	“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관직변천표(官職變遷表)<sup>82)</sup>

官職 年代	官職名 및 職制의 變遷			
大祖元年7月	東 西 大 悲 院	副 事 各 1人	鋒 事 各 2人	
太宗14年正月	東西大悲院活人院(9月)	錄 事	副錄事	
世祖11年正月	活 人 署	“	參 奉 1人	
成宗16年經國大典	“	別 提 4人從六品	參事 2人從九品	
英祖20年續大典	“	減 2人	“	
正祖9年大典通編	“	別 提 2人	“	
高宗2年大典會通	“	“	“	

이 외에 종약색(種藥色) 치종청(治腫廳)이 있었고 의학습독관(醫學習讀官)과 각 관공서에 배치된 의무관(醫務官)의 제도가 있었다.

지방에는 심약(審藥) 의학교유의학생도(醫學教諭醫學生徒) 지방의 부(府) 도호부(都護府) 수류부(守留府) 및 진(鎮)에 배치된 의무관이 있었다.<sup>83)</sup>

과거제도로는 의과초복시(醫科初覆試) 의과취재(醫科取材)로 구별되어 있으며 醫師의 계급으로 양반계급에 속한 유의(儒醫)와 중서(中庶)계급에 속한 의업(醫業)을 건공한 사람이 있었다.<sup>84)</sup>

81)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414쪽.

82)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415쪽.

83) 金斗鍾: 鍾韓國醫學史 1966. 408쪽.

84)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419쪽.

고종(高宗) 이후에는 황도연(黃度淵) 및 그의 아들 황필수(黃泌秀)가 뛰어난 의사였으며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설(四象醫說)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과 이규준(李圭浚)의 부양론(扶陽論)과 기혈론(氣血論) 및 신유량장변(腎有兩臟辨)과 이준규(李峻奎)의 의방촬요(醫方撮要)와 최규현(崔奎憲)의 소아의방(小兒醫方)이 대표적 의서이다.<sup>85)</sup>

#### 제4절 비의서에 의한 접근

조선왕조(朝鮮王朝)에서 치의학(齒醫學)의 비의서(非醫書)에 의한 접근은 실학(實學)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실생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여 지고 생활과 그 주변의 표현으로 바람직한 고대소설(古代小說)과 판소리가 시작되어 다른 어느 시대보다 가능하게 한다.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이 지은 여용국전(女容國傳)은 얼굴의 각 기관 특히 구강 영역 기관을 의인화한 소설로써 당시 구강 위생과 치주법학의 지식을 말해 준다.

이것을 보고 있던 호치장군(皓齒將軍) 양수(楊樹)가 말하기를 소장은 황염(黃染)을 토벌하여 백석산성(白石山城)을 평정하겠습니다. 황제는 그 자리에서 허락했다. 명령을 받은 양수(楊樹)는 흰옷을 입고 이화창(梨花槍)을 들고 일기병(一技兵)을 앞세웠는데 일기병의 생김새가 허리는 길고 아래는 뾰족하며 위는 평펴짐하여 기품에 매우 당당하고 능률했다. 성공에 자신이 있는 일기병인 것이다. 일기병은 먼저 곡구산(谷口山)으로 들어와서 지진관(支唇關)의 좁은 길을 막고 소탕을 시작하니 성을 유지하지 못한 황염(黃染)은 패배했다.

황제는 다시 수군(水軍) 일대(一隊)를 둑게 하였다. 황염(黃染)은 그 족속을 인솔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모두 자살해 버렸다. 이리하여 백석산(白石山)도 평정되었다.<sup>86)</sup>

이상은 치목(齒木)의 영향을 입은 구강 내 치석 제거 치료법으로 새 얼굴은 아름다음에 중요하며 깨끗한 치아 역시 아름다음에 중요하다는 것과 치아는 아침 일찍 닦는 것이 좋으며 당시에 사용되던 칫솔과 그 사용법과 치석의 생성과 그 상태와 잘 생기는 부위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발치술(拔齒術)의 기록은 1492년 성종(成宗) 실록(實錄) 23년 6월을 보면, 성종의 치통(齒痛)을 제주(濟州) 의녀(醫女) 장덕(張德)과 그의 제자 귀금(貴金)이 치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치료법은 치충(齒蟲)을 제거할 때에는 얼굴을 쳐들고 입을 벌리게 하고 은(銀)숟가락으로 작은 흰 벌레를 집어내었는데 숟가락이 치아에 들어가지 않고 치아의 출혈도 하지 않아 그 방법이 쉽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을 귀금(貴金)은 남에게 전하기를 꺼려 나라에서 죄(罪)로 다스렸다고 한다.<sup>87)</sup>

이러한 기록은 성현(成峴 1439~1505)의 용제총화(慵齊叢話)와 대동야승(大東野乘)에서도 보인다.

조정에서 각사 각관의 나이 어린 종년을 뽑아서 혜민서(惠民署)에 속하게 하고, 의서(醫書)를 가르쳐 여의(女醫)라 하고, 이들로 하여금 부인의 병을 고치게 하였다. 한 여자가 제주에서 왔는데 의술은 알지 못하나 다만 치충은

85)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1966. 456쪽.

86) 安鼎福: 女容國傳 李御寧著 韓國과 韓國人 ④ 219쪽.

87) 成宗實錄 23년 6월 14일

잘 잡는지라, 사대부 집에서 다투어 서로 맞아들였는데, 그 여자가 죽게 되자 또 한 여자에게 그 업(業)을 전하였다.

나도 또한 불러다 이를 치료하니 얼굴을 위로 하여 입을 열게 하고 은(銀)으로 만든 숟가락으로 조그마한 흰벌레를 꺼내는데, 숟가락은 치아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치아에서 피도 나지 않아 그 쉬운 것이 이와 같았다. 또 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여 조정에서 죄로 다스려도 오히려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반드시 환술(幻術)이요 정업(正業)이 아닐 것이다.<sup>88)</sup>

이 당시 발치술의 뛰어난 기록은 서민을 대변한 배비장전(裴裨將傳)에서 볼 수 있다.

공방고자(工房庫子)야 장돌이, 집게 대령하여라.

예, 대령하였소.

네 이를 얼마나 빼어 보았느냐.

예, 많이는 못 빼어 보았으되 서너말 가량이나 빼어 보았소.

이놈 제주 이는 물, 놈이로구나 다른이는 상치 않게 앞니 하나만 쑥 빼어라.

소인이 이빼기에는 숙수단(熟手段)이 났사오니 어련 하오리까.

하더니 소집 게 잡고 빼었으면 쑥 빠질 것을 큰 집게로 이 덤불째 훔시려 잡고 좌충우돌(左衝右突) 창검검(槍劍檢)으로 차포 점은 장기, 면상 차린 격으로 무수히 어르다가, 뜻밖에 코를 한번 턱치니 정비 장이 코를 잔뜩 부등 끼고

어허 봉패 로고. 이놈 너더러 이 빼랬지 코 빼라더냐.<sup>89)</sup>

이 유모어가 넘치는 소설 서 치아는 신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앞니는 심미적으로 중요하고 발치를 할 수 있는 외과적 기계가 있었거나 현대적으로 외과적 기계가 발전 가능했으며 숙련된 외과의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쓴 허균(許筠)의 임로인양생설(任老人養生說)을 보면

이렇게 60여년을 보냈다. 그리고 집이 산속에 있어 때로 창구(蒼求 한약중의 한 가지)를 캐서 그것을 복용하기도 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빠진 이가 다시 생기고 다리 힘은 더 건강해졌다.

이것은 60세 후에 치아의 새로운 봉출이 아니고 잇몸의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sup>90)</sup>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다른 어느 실학자(實學者)보다 치의학(齒醫學)에 관심이 컸다.

양반전(兩班傳)에서는 고치(叩齒)와 양치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래 위 이(齒)를 맞부딪쳐 뇌(腦)를 울리게 하고, 약간 기침이 나더라도 가래를 지근지근 씹어서 삼키고, 옷소매로 모관(毳冠)을 털어 먼지가 푹신푹신 일어나게 하고, 세수할 때 손을 비비지 말고, 입안을 씻어내되 지나치게 양치질하지 말라고 하였다.<sup>91)</sup>

88) 成僕: 慶齊叢話 권10

大東野乘 1. 247쪽.

89) 지은이 모름:裴裨將傳 李御寧著 韓國과 韓國人 ⑤ 253쪽.

90) 許筠: 任老人養生說 李御寧著 韓國과 韓國人 ④ 328쪽.

91) 朴趾源: 兩班傳 創作과 批評 7 1967. 520쪽.

또한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상기(象記)에서는 코끼리의 이빨에 대해서,<sup>92)</sup> 의청소통소(擬請疏通疏)에서는 서치(序齒)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으며,<sup>93)</sup> 하금우상(리소)서별지(賀金右相(履素)書別紙)에서는 의약(醫藥)의 중요성(重要性)을 인식(認識)하고 있었으며,<sup>94)</sup> 호질(虎叱)에서는 의학(醫學)의 폐해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sup>95)</sup>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기예론(技藝論)에서 의약(醫藥)의 발전(發展)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sup>96)</sup>

성호(星湖) 이익(李灝)은 남초(南草)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유익하기 만하고 해는 없습니까?하고 다시 그 사람은 물었다.

선생은 아니다. 해로운 것이 유익한 것보다 더 많다. 안으로는 정신을 해하고 밖으로는 이목을 해한다. 이것을 오래 피우면 머리가 쉽게 회고 얼굴이 노래지며 치아가 빠지는 것 있고 몸이 파리해져 쉽게 늙는다고 남초가 전신과 치아에 유해함을 말하고 있다.<sup>97)</sup>

성호 이익의 우청(牛聽)에서는 소는 치아가 없다고 관찰한 것은 당시 지식 계급인 실학자로써 크나큰 오점이 아닌가 한다.

소는 귀를 통하여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코로써 알아듣는다는 옛말이 있다. 아마도 그말이 타당한 것 같다. 소는 비록 귀가 있기는 하지만 귓속이 막혀 있다. 소리를 통할만한 귀청이 없다. 그러므로 귀에 소리가 들릴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는 이빨 대신 외형으로 뿔이 있는 것인 즉, 소리가 코로 통한다는 것이 조금 괴이하지 않다고 본다.<sup>98)</sup>

춘향전(春香傳)에서는 치아의 딱딱한 정도나 그 기능에 대해서, 흥보전(興甫傳)이라고도 하는 흥부전(興夫傳)에서는 치통(齒痛)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장가(長歌)와 단가(短歌)에서는 마음의 병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이 시름 낫쟈하니 무옴의 민쳐 이셔 골수(骨髓)의 깨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오나, 이 병을 엇디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쉬여 디어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모가 지마다 간데 족족 안다니가,

향므든 눌애로 님의 오식을모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추려 ھ노라.<sup>99)</sup>

92) 朴趾源: 象記 李御寧 著 韓國과 韓國人④ 148쪽.

93) 朴趾源: 擬請疏通疏 李御寧著 韓國과 韓國人 ④ 260쪽.

94) 朴趾源: 賀金右相(履素) 書別紙 創作과 批評 7 1967. 508쪽.

95) 朴趾源: 虎叱 創作과 批評 11 1968. 448쪽.

96) 丁若鏞: 技藝論 創作과 批評 8 1967. 687쪽.

97) 李灝: 南草 李御寧著 韓國과 韓國人 ④. 142.

98) 李灝: 牛聽 李御寧著 韓國과 韓國人 ④. 132.

99) 鄭澈: 思美人曲 星州本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미인찬가(美人讚歌)에서는 치아의 아름다움으로 박씨 같은 모양을 이야기 한다.

눈썹은 수나비 앉은 듯 잇바디는 박씨 까 세운 듯  
 날 보고 당싯 웃는 양은 삼색도화(三色桃花) 미개봉(未開峰)이  
 하룻밤 비 기운(氣運)에 반만 절로 핀 형상이로다.  
 네 부모 너 삼겨낼 적에 날만 괴라 삼기로다.<sup>100)</sup>

박인로(朴仁老)의 작품중에 오륜가(五倫歌)에 다만 관수(盥漱)는 낮 씻고 양치질 하는 구강 위생에 관한 시조가 있다.

부모(父母) 섬기기를 지성(至誠)으로 섬기리라  
 계명(鷄鳴)에 관수(盥漱)하고 번새(煩塞)을 뜯즈오며  
 날마다 시측봉양(侍側奉養)을 몰신불양(沒身不襄) 乎 오리라.<sup>101)</sup>

낭원군(朗原君)이 지은 시조에는 연치(年齒)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항당(鄉黨)은 예(禮)바르니 어느 사람 무례(無禮)하리  
 무지(無知)한 소년(少年)들이 연치(年齒)를 제 몰라도  
 그러나 인형(人形)을 가졌으니 배워 알까 하노라.<sup>102)</sup>

## 제5절 의서(醫書)에 의한 귀결(歸結)

### (1)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의 현대적(現代的) 해석(觸釋)

구진(口唇)에 분포(分布) 된 낙경(絡經)은 수양명(手陽明) 대장경(大腸經·屬大腸絡肺) 족양명(足陽明) 명위경(明胃經·屬胃絡脾)이며 설(舌)에 분포된 경락은 족대음비경위경(足大陰脾經胃經·胸腹部)과 족음소비경(足陰小脾經·腎肝 橫隔膜)이다.<sup>103)</sup>

향약집성방의 34권에는 구설문이 있고,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 1. 구설생창(口舌生瘡)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내장에 열이 오르면 심비기(心脾氣)가 구설에서 충돌하여 구설생창(口舌生瘡)과 구설창(口舌瘡)이 생긴다는 병리설(病理說)로 설명되고 구강의 염증(炎症)과 종양(腫瘍)을 함께 증상에 따라 분류하는데 대별하면 구창(口瘡) 구설창(口舌瘡) 구염(口炎) 설상백태(舌上白胎) 그리고 구중병창신비(口中病瘡神

100) 鄭澈: 美人讚歌 한국고전문학전집 2권 535쪽.

101) 朴仁老: 五倫歌 朴晟義 著 蘆溪歌辭通解 103쪽.

102) 朗原君: 李御寧著 韓國과 韓國人③ 青丘永言 447쪽.

103) 李相漸: 漢方眼耳鼻咽喉科學 口舌編

秘) 등이다.

증상으로 동통이 그치지 않거나 차이가 없거나에 따라 목구멍의 통증에 따라 음식 섭취 가능한가에 따라 치유 정도와 청결상태에 따라 환자의 전신 상태와 연령에 따라 약재에 의한 치료법을 달리 하고 있다.

## 2. 실결협차차(失缺頰車蹉-下顎脫臼)

비슷한 두 가지의 치료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천금방(千金方)에는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써 턱을 잡고 차차 뒤로 들어 올리고 손가락이 患者에게 물리지 않도록 곧 손가락을 빼다고 하였다.

침자법(鍼炙法)의 치료법이 이 항목에서 특히 많이 기술되어 있다.

## 3. 중설(重舌)

심비(心脾)에 열이 있어 열기가 맥(脈)을 따라 설본(舌本)에서 충돌하므로 혈맥(血脈)이 팽창하여 설본(舌本) 밑에 혀 모양으로 생긴 것이 또 하나 생긴 것을 중설이라 한다고 한다. 중설은 일반적인 치료, 정출감(廷出感)이 있을 때, 수장(水漿)이 나오지 않을 때에 따른 약재의 치료법이 있고, 침자법(鍼炙法)으로도 치료가능 하다.

## 4. 목설(木舌)

심비(心脾)의 열(熱)이 쌓이면 그 사열(邪熱)은 맥(脈)을 따라 설본(舌本)에서 충돌하므로 설종(舌腫)은 점점 커지고,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입안에 한기(寒氣)가 차는 것을 말하는데 중설(重舌)은 진행된 상태를 말한다. 소아에게 특히 많으며 일반적인 본설(本舌)의 치료법과 인후(咽喉)가 불리한 경우에 대한 치료법이 약재에 의하는 것이 있다.

## 5. 설종강(舌腫強)

심비(心脾)가 허(虛)하면 풍(風)이 되며 열(熱)이 오르면 맥(脈)을 따라 혀에 이른다. 열기(熱氣)가 심(心)에 늘 있으면 혈기(血氣)가 막혀 설종(舌腫)이 되고 급성(急性)인 설종강(舌腫強)이 된다. 증상은 배안에 혀열(虛熱)이 있고 설본(舌本)이 굳고 입의 가장자리에 통증이 있고 설(舌) 위에 궤양(潰瘍)이 있으므로 연하장애가 있다. 잠시 동안에 종양이 굳어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한다.

약재(藥材) 이외에 득효방(得効方)에 있는 외과적 치료법을 보면 침(針)으로 혀 밑 양변의 대맥(大脈)을 찔러 출혈이 되게 하고, 물론 중첨맥(中尖脈)도 찔러 출혈이 되게 한다. 지혈이 안 되면 사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인두를 불에 달구어 지져 지혈 시킨다.

## 6. 구문창(口吻瘡)

이것은 입가에 부스럼이 나는 증상으로 구진(口唇)에 속한 경락(經絡)의 장애로 인한 병으로 일명 비창(肥瘡) 혹은 연구(齧口)라고도 한다.

## 7. 순창(脣瘡)

이것은 입술의 일반적인 부스럼이다. 족양명(足陽明) 경맥(經脈)은 위장의 혈맥으로서 코에서 시작하여 입술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또한 그 지맥(支脈)은 비장(脾臟)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비위장(脾胃臟)은 열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 열기가 입술에 나타나면 부스럼이 생긴다.

## 8. 긴순(緊脣)과 순생종핵(脣生腫核)

이것은 입술의 굳어지는 증상으로 종양(腫瘍)의 일종이다.

## 9. 순구면준(脣口面皴)

이것은 입술과 입이 얼어 터지는 것이다.

이외에 산재된 치과 기록이 열병(熱病), 산후(產後)와 소아(小兒) 질환에 36종이 기록되어 있다.

초생아아구(初生兒鵝口)

소아구창(小我口瘡)

소아연구생창(小我齶口生瘡)

초생아중악증은(初生兒重顎重斷)

소아중설(小兒重舌)

소아목설(小兒木舌)

소아구금(小兒口噤)

중풍구금(中風口噤)

구면괘사(口面喎斜)

소아중풍구면괘사(小兒中風口面喎斜)

임신구건(妊娠口乾)

산후구건(產後口乾)

허로구설건조(虛勞口舌乾燥)

열병구건(熱病口乾)

열병구창(熱病口瘡)

살한구창(傷寒口瘡)

치아문(齒牙門)에서는 그 서두에 우선 성혜방(聖惠方)으로부터 인용한 개론과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 요령이 기재되어 있다. 치아(齒牙)와 입(王池)과 침(津液)의 생리와 해부가 소개되고 감닉(疳癪)과 구닉(口癪), 구감(口疳)과 풍감(風疳)과 치감(齒疳)과 급감(急疳)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감닉(疳癪)은 잇몸이 허약하나 농(膿)이 없으며,

구닉(口癪)은 잇몸이 부딛치기만 하면 피 고름이 나오는 것이며,

구감(口疳)은 건드리지 않아도 제절로 농혈(膿血)이 나오며,

풍감(風疳)은 잇몸 위에 벌집 같은 작은 구멍이 있으며,

치감(齒疳)은 치아가 썩은 것이다.

또 잇몸과 입술이 갑자기 흰색으로나 검푸른 색으로 변하는 것은 급감(急疳)의 증상으로 죽음이 가까운 것이니 급히 치료해야 한다.

병론에 이어 16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 1. 아치동통(牙齒疼痛)

치아에 통하는 경락(經絡)은 족양명(足陽明 胃絡脈)이 치(齒)의 상봉(上縫)에 들어가고 수양명(手陽明) 대장 낙맥(大腸絡脈)이 치(齒)의 하봉(下縫)에 들어간다고 경락(經絡)을 설명한다.<sup>104)</sup>

아치(牙齒)가 서로 끌어당김으로써 생기는 아픔인데 수기(髓氣)가 부족하고 양명맥(陽明脈)이 허(虛)해서 아치(牙齒)에 영양을 공급치 못하게 되면 풍냉(風冷)의 침입을 받아 아프게 된다.

104) 李相漸: 漢方眼耳鼻咽喉科學 口舌編

아치동통(牙齒疼痛)을 분류한다면 아픔의 종류인 동(疼-아프다)과 통(痛-아프다 성하다)에 따라 그리고 이 둘이 겹친 동통(疼痛)으로 나누고 부위에 따라 아(牙-아랫니)와 치(齒-웃니)에 따른다.

증상은 단순한 것, 참을 수 없는 것 (不可忍), 그치지 않는 것(止), 풍열(風熱)이 겹친 것, 치아나 얼굴까지 통통이 퍼진 것, 밤에 특별히 심하여 잠을 못이루고 동요와 부종(浮腫)이 심한 것 등이 있다. 동의보감처럼 분류는 없으나 이와 같은 분류의 시작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치동통(牙齒疼痛)에서 특기할 것은 치치통(治齒痛)이라 하여 황납(黃蠣)으로 충전법이 있고, 식초에 의하여 치아가 상한 것에 대한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처방은 58종으로 약재에 의한 진통 진정이 대부분이었다.

## 2. 아치충공유충(牙齒蟲孔有蟲)

병리와 증상을 보면 아치(牙齒)를 벌레가 파먹어 구멍이 있고, 통통은 참을 수 없을 때도 있고, 구멍에 벌레가 있는 경우도 있다. 건지룡(乾地龍)과 사향(麝香), 박씨 분말과 송지(松脂), 낭탕자(莨菪子), 살구씨(杏仁) 등에 의한 충전 기록이 있고, 23종의 처방이 있다.

## 3. 치우(齒齧)

허풍기(虛風氣)가 치간(齒間)을 약하게 하고 혈기가 올라와서 치은에 닿아 고름이 나오고 치아를 파먹는 냄새가 나는 것을 우치(齧齒)라고 한다.

치우(齒齧)는 현재 일반적으로 우치(齧齒)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난다고 하였다.

치료법은 11종의 약방(藥方)과 침자법(鍼炙法)에 의한다.

## 4. 치닉(齒齶)

감비(甘肥)한 음식을 섭취하고, 치아를 닦지 않아서 치근에 부패가 있고 독기(毒氣)와 훈증(熏蒸)이 발산되지 못하여 벌레에 의하여 파괴 노출되고 통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증상을 보면 밤에 통증이 그치지 않는 심한 것도 있다. 7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5. 아치풍감(牙齒風疳)

치은에 부종이 있고 고름과 혈액이 나오고 치아는 동요 탈락된다. 치근은 손실이 있고 입안에는 악취가 있고 얼굴색은 청황색이 되고 입술과 붙은 종통(腫痛)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외의 증상으로는 뱃속이 땅기는듯한 통증이 있고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출혈이 있고 치아가 허공에 뜯 감이 있다. 8종의 약방과 침구법이 기재되어 있다.

## 6. 아치력두(牙齒歷蠹)

치아는 골이 키운다 했으니 그 맥이 허해지고 혈액의 상해서 치아의 윤택이 없고 치아는 암흑색이 된다. 3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7. 치황흑(齒黃黑)

치아는 골이 끝나는 곳이며 수(髓)가 허해지면 황색치아가 되고 광택이 없어진다. 4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8. 아치동요(牙齒動搖)

영양의 부족으로 윤택이 적고 동요의 정도에 따라 치근노출 통통 치은의 발적과 교합이 불능해진다. 또한 환자는 게을러지고 타진 반응의 양성이다. 14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9. 아치정출(牙齒挺出)

수양명(手陽明)의 맥(脈)이 치아로 들어가는데, 풍냉이 있어 맥을 따라 들어와 치간(齒間)의 진액(津液-침)이 고름이 된다. 피가 허하고 모자르면 치아에 영양이 좋지 않으므로 치근이 나오는데 이를 정출(挺出)이라 한다.

## 10. 치은종통(齒齦腫痛)

치아에는 수양지맥이 분포되어 있는데 치아에 바람이 있어 수양명(手陽明)의 맥(脈)을 따라와 치아 사이의 혈기를 누르므로 종양(腫瘍)이 생긴다. 증상은 종양이 치아 귀 얼굴 뇌까지 있으며 어느 때든지 악골을 움직일 때는 하악의 종통도 있다. 15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침자법(鍼炙法)은 협종(頰腫-볼의 종양)으로 입을 벌리지 못했을 때 특효가 있다.

## 11. 은간출혈(斷間出血)

양명맥(陽明脈)에 허(虛)한 바람이 일어 치은에 들어와 혈(血)을 누르므로 출혈(出血)이 된다. 증상은 까닭 없이 계속 치은 출혈이 되는데 선혈이거나 체액이거나 고름이 섞일 때도 있다.

치아는 떠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치아의 동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출혈되는 부위는 치은 이 외에 치아 사이 와 특별한 것은 발치(拔齒)된 곳에서 나오는 것과 술이 취했을 때 치아에서 출혈되는 경우가 있다.

치료법은 약재 이외에 소작(燒灼)에 의한 방법이 있다. 15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12. 아치탈락(牙齒脫落) 뢰아(牢牙)

아치(牙齒)가 탈락(脫落)되는 것은 신기(腎氣)가 허약(虛弱)하므로 골수(骨髓)가 마르고 영양이 좋지 않아 윤택하지 않고 나쁜 바람이 치간(齒間)의 경락을 작용하므로 동요되고 탈락 된다. 2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13. 아치불생(牙齒不生)

치아는 골수(骨髓)가 영양을 공급하는 데 혈기(血氣)가 부족하여 탈락된 치아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치(齲齒)나 충치(蟲齒)로 탈락된 치아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 대인이나 소아에서 치아가 나오지 않을 때와, 십수년 동안 치아가 나오지 않은 때, 치아가 나오지 않고 안면에 동통이 있을 때, 치아는 나오지 않고 풍치가 있을 때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7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14. 계치(齡齒)

잠잘 때에 이를 가는 사람은 혈기가 허한 까닭으로 나쁜 바람이 아차근맥(牙車筋脈) 사이로 들어오는 까닭으로 인한다.

치료는 약품을 물고자는 법과 환자에게 일깨워 주는 법이 있고, 2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15. 치은선로(齒斷宣露)

치아는 골이 끝나는 곳이며 수(髓)가 양(養)하는 것이라 치아는 단단히 서는 법인데, 기혈(氣血)이 부족하고 치아를 닦지를 않으면 은육(斷肉)이 점차 탈락되어 위축되고 선로(宣露)에 이르러 영구히 치근에 부착되지 않는다.

증상은 치은선로(齒斷宣露) 이외에 종양(腫瘍)이 있어서 출혈과 동통이 있을 수 있고 풍치(風齒)나 우치(齲齒)를 겪하고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날 수 있다. 풍(風) 냉(冷) 충(蟲) 우(齲)에 의한 선로(宣露)을 불문하고 노소용의 치약으로, 4촌(四寸) 길이의 버드나무 가지에 소금을 찍어 사용하며 효과가 있다. 11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16. 개치(揩齒)

치아는 골(骨)의 마지막 부분으로 골수(骨髓)가 영양을 공급한다. 그리고 구강인 옥지(玉池)의 타액인 진액(津

液)의 작용은 부기(腐氣)를 제거하고 치아가 고정되고 치은의 고름에 없어지고 여러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이때 사용되는 약(藥)으로 마른 오디, 승마(升麻), 소금물에 채워 두었다가 물에 쪘어 말린 황공(皇恭). 날로 말린 지황(地黃), 괴백피(槐白皮) 각 한 량(兩)씩을 잘게 썰은 뒤, 찹쌀밥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숯불에 새빨갛게 태워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놓고 먼저 간장물로 양치질을 하고서 이를 아침이나 잘 때 그 가루를 손가락에 쪫어 이를 닦으면 빛이 나고 윗수염이 검게 된다.<sup>105)</sup>

비교적 사용 가능한 치약을 사용했고, 5종의 약방이 기재되어 있다.

## (2)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현대적(現代的) 해석(解釋)

아치(牙齒)의 장(章)에서는 29항목(項目)이 있다. 그 각각은 다음과 같다.

### 1. 이와 뼈의 관계

이는 뼈의 나머지니 신(腎)이 그 영양을 맡고 호흡(呼吸)하는 문호(門戶)가 된다. 라고 조직, 해부학적인 상태를 설명한다.

### 2. 상하은(上下齦)이 수족(手足)의 양명(陽明)에 속(屬)하는 경우

이곳에서는 경락(經絡)의 분포 상태를 해부학적으로 설명한다.

### 3. 치통(齒痛)으로 오한(惡寒) 오열(惡熱)이 있을 경우

족양명(足陽明) 위낙맥(胃絡脈)이 치(齒)의 상봉(上縫)에 들어가니 그 병이 한음(寒飲)을 즐기고 열음(熱飲)을 싫어하는 급성장액성치수염이다.

수양명(手陽明) 대양낙맥(大陽絡脈)은 치(齒)의 하봉(下縫)에 들어가니 그 병이 열음(熱飲)을 즐겨 하고 한음(寒飲)을 싫어하는 것은 급성화농성치수염이다.

### 4. 아치(牙齒)의 변화(變化)

내경(內經)의 치아생리(齒牙生理)가 기록되어 있다. 유치의 중절치가 처음 나는 시기를 생후 8개월이라 했으며 眞牙(智齒)란 것은 牙床의 끝(이가 나는 잇몸의 제일 뒷쪽)에 최후로 나는 것이라 했다.

### 5. 아치(牙齒)의 명칭

치아의 이름으로 구전(口前)의 양대치(兩大齒)를 판치(板齒) 앞니(前齒)라 하고 그 양방(兩傍)의 긴 것을 아치(牙齒) (송곳니와 어금니)라 하고 아치(牙齒)의 은(齦)을 아상(牙床)이라고 하였다.

### 6· 맥법(脈法)

치아의 진단으로 아통(牙痛)과 이의 동요(動搖)로 이가 빠지는 것과 타액의 분비 과대 할 때의 진단법이 기록되어 있다.

### 7. 치통(齒痛)을 7종(七種)

병리학적(病理學的) 원인(原因)에 의하여 치통(齒痛)을 풍열(風熱) 풍냉(風冷) 열통(熱痛) 한통(寒痛) 독담(毒痰) 어혈(瘀血) 충식(蟲蝕)으로 분류하였다.

### 8. 아치(牙齒) 동요(動搖)

### 9. 아치(牙齒) 탈락(脫落)

105) 崔鎮煥: 韓國齒學史의 研究抄 一山金斗鍾博士稀壽紀念論文集 405쪽.

10. 이비(耳鼻)를 막고 치통(齒痛)을 고치는 약

약품을 이비(耳鼻)에 투여해서 치통(齒痛)을 치료하던 방법

11. 충치통(蟲齒痛)을 치료법

12. 감니창(疳蠶瘡)의 치료

13. 아감(牙疳)을 치료

14. 치아의 빛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

아치(牙齒)가 황흑(黃黑)하여 정결하지 못한 곳에 백아약(白牙藥)으로 매일 별이 있는 아침에 이를 닦는다.

15. 치옹(齒壅)의 치료

이것은 잇몸사이에 노육(努肉)이 탕점(湯漸) 길어나는 증상의 치료법이 있다.

16. 아치(牙齒)가 점장(漸長)하는 경우

아치(牙齒)가 날이 갈수록 점장(漸長)하여 입을 열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이다.

17. 투치(鬪齒)의 치료

이것은 치아의 고정법으로 아치(牙齒)가 상타(傷打)를 입어서 떨어지려 할 때 약품을 동요(動搖)된 치아(齒牙)에 바르면 안전하고 혹은 이미 떨어져도 혈사(血絲)가 끓어지지 않은 증상은 치은간(齒齦間)에 약을 발라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아의 고정법이나 결찰법보다 물리적 힘 이외에 진통효과가 첨가된 것이다.

18. 치눅(齒衄)의 치료

이것은 치은 출혈의 치료법 이 쓰여 있다.

19. 개치(齦齒)의 치료

이것은 밤에 이를 가는 것으로써 향약구급방이나 향약집성방의 치료법과 같은 뛰어난 치료법이 사용되었다.

20. 통치(痛齒)의 비외과적 발치법

이를 빼는 경우로 외과적 기계의 발전은 없어 손을 사용했으며 약품의 사용으로 치은을 문질러 발치를 쉽게 하였다.

21. 낙치(落齒)의 재생법

쥐를 사용한 것은 쥐가 물건을 잘 썰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닭똥의 사용은 이해할 수 없었다.

22. 산(酸)을 먹어 치아를 다치는 경우

산에 치질의 용해되는 것을 말했다.

23. 치통(齒痛)에 문지르는 약물

10여종이 적혀 있다.

24. 치통(齒痛)에 함(含)하는 약물

6여종이 적혀 있다.

25. 수양(修養) 고치법(固齒法)

위생이나 치주병학에 관한 기록으로 모든 양생(養生)이 구치(口齒)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양치와 씻는데 게 으르면 손상(損傷)과 충낭(蟲囊)의 매개(媒介)가 되는 법이다.

서독(暑毒), 주독(酒毒)이 항상 구치(口齒)의 사이에 잠복(潛伏)하여 있으니 상시(常時)로 양치하고 씻어야 한다. 새벽에 세면(洗面)하고 양치한 것을 장중(掌中)에 토출(吐出)하여 눈을 씻으면 광명(光明)함을 느끼게 되

는 법이니 종신토록 행하면 그보다 나은 묘법(妙法)이 없다.<sup>106)</sup>

이상과 같이 양치가 전신적으로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과 아침과 저녁으로 마주쳐서 정신(精神)을 모으는 법을 집신신(集身神)이라고 하는데 만약, 불의(不意)에 흉악한 경우를 당하여 좌치(左齒)를 36번 마주치는 것을 타천종(打天鍾)이라 하고, 만약 사예(邪穢)한 것을 물리치려고 우치(右齒)를 그렇게 마주치는 것을 타천종(打天鍾)이라 하며, 또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중앙의 치(齒)를 그렇게 마주치는 것을 명천고(鳴天鼓)라고 하였다. 이렇게 고치(叩齒)와 정신(精神)과의 연결성을 말하였다.<sup>107)</sup>

이외에 소금의 중요성과 치석(齒石)을 침도(鍼刀)로 긁어 치아를 다스리는 법이 있었다.

#### 26. 치병(齒病) 금기(禁忌) 식품

지마유(脂麻油), 건조(乾棗), 계심(桂心) 등이 금기(禁忌)였으며 일월식(日月蝕) 때에 음식을 금한 것을 이해 할 수 없었다.

#### 27. 치아 색채로 병세를 구별법

사망 직전에 치아로 환자의 상태를 판별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 28. 치과용 단방(單方)법

약재의 설명한 부분에서는 응황(雄黃)은 작말(作末)하 조육(棗肉)에 화환(和丸)해서 구멍에 넣으면 치충(齒蟲)을 죽인다는 보존치료의 일종이었다.

#### 29. 침자법(鍼炙法)

침자법(鍼炙法)이 상하악(上下顎)에 따라 달리 치료법이 있다.

구설(口舌)의 장(章)에는 38항목(項目)이 있는데 그 각각은 다음과 같다.

##### 1. 입을 옥지(王池)라고 하는 경우

구설(口舌)의 명칭(命稱)을 옥지(玉池-입)와 청수(清水-진액(津液), 침)과 영근(靈根-혀)이라 하였다.

##### 2. 혀가 심(心)에 속하는 경우

##### 3. 구순(口唇)이 비(脾)에 속하는 경우

이상 세 항목(項目)에서는 경락(經絡)의 분포상태를 해부학적으로 설명하였다.

##### 4. 맥법(脈法)

진단법이 있다.

##### 5. 구설이(口舌)이 5미(五味)를 주관(主管)하는 경우

오미를 중상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6. 입에 신맛이 도는 경우, 구산(口酸)

##### 7. 입에 쓴맛이 도는 경우, 구고(口苦)

##### 8. 입에 단맛이 도는 경우, 구감(口甘)

##### 9. 입에 매운 맛이 도는 경우, 구신(口辛)

##### 10. 입에 짠맛이 도는 경우, 구함(口鹹)

106) 許浚의 東醫寶鑑에 直指 이외에 牛金 近壽의 項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107) 許浚의 東醫寶鑑에 養性 이외에 拘朴子의 項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각 경우에 처방이 기록 되었다.

11. 입에서 악취(惡臭)가 나는 경우

육식(肉食)을 많이 할 때와 위열(胃熱)에 의하여 구취(口臭)가 날 때와 농혈(膿血)을 토(吐)하고 폐통(肺壅)의 증세와 같으면서 구취(口臭)가 나는 증(症)의 각 경우이다.

12. 구균(口糜)

구균(口糜)란 증(症)은 구창(口瘡)이 미란(糜爛)한 증(症)이므로 단순성구내염이다.<sup>108)</sup>

13. 허화(虛火)와 구창(口瘡)의 경우

구창(口瘡)에 양약(涼藥)을 써도 낫지 않으므로 악성(惡性)인 경우이다.

14. 진종(唇腫)과 진창(唇瘡)의 경우

진설(唇舌)이 초조(焦燥)하여 입이 헤어지고 창(瘡)이 나는 증(症)이므로 염증에서 진행되어 궤양이 수반된 증상이다.

15. 견진(繭唇)의 경우

일명 긴진(繁唇) 혹은 심진(瀋唇) 등의 병명을 가지며 증상으로 구진(口唇)이 협소해서 개합(開合)하지 못하고 급히 치료 않으면 사망한다고 하였다. 종양의 일종이다.

16. 설종(舌腫)의 경우

목설(木舌)로써 치료 않으면 커지고 굳어지므로 예후는 불량하다. 치료로 침으로 찔러서 출혈시킨 것은 타당하다.

17. 중설(重舌)의 경우

혀 밑에 작은 혀 같은 것이 나는 증을 말한다. 볼과 입천장에 있으면 중악(重腭)이며 치간(齒齦)위에 나는 증을 중간(重齦)이라 한다. 출혈요법이 있다.

18. 중설(重舌)을 마찰(摩擦)하는 경우

19. 목설(木舌)의 경우

이상은 중설의 치료법과 같다.

20. 설눅(舌衄)의 경우

혀 출혈을 말한다.

21. 설장·설단(舌長·舌短)의 경우

설장(舌長)을 양강(陽強)이라 하며 설단(舌短)을 음강(陰強)이라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 고유의 항목이다.

22. 혀에 태(苔)가 나는 경우

진액(津液)이 결전(結縛)하여 태(苔)가 생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치료법은 가능하다.

23. 혀를 마찰(摩擦)하는 경우

설태(舌苔)의 치료법과 같다.

24. 혀바늘이 돋는 경우

혀에 가시가 나는 증으로 설태(舌苔)와는 반대적인 증이다.

108) 李相漸: 漢方眼耳鼻咽喉科學 口舌編

## 25. 口舌의 크기

해부학적 지식이다.

## 26. 실흡탈함 (失欠脫額) 기지개와 하품으로 턱이 빠지는 경우

흡신(欠伸)은 기지개를 켜고 하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턱이 빠져 입을 다물지 못하는 증상으로 치료법은 술을 크게 취하게 하여 잠을 재운 후 황각말(皇角末)을 코 안에 넣어 재채기를 하도록 하여 생리적으로 치료하는 법과 턱을 끌어 맞추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

## 27. 자교설협 (自嚙舌頰) 혀 볼을 깨무는 경우

볼 입술 혀의 교상을 말한다.

## 28. 구류연(口流涎) 침을 흘리는 경우

타액분비과다증으로 음식과의 관련성은 타당하다.

## 29. 구미불개(口寐不開)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

근육과의 관련성을 말하고 있다.

## 30. 진설(唇舌)을 보고 병을 구별하는 경우

사망 직전의 입술과 혀의 색깔을 보고 예후를 말하고 있다.

## 31. 소아(小兒)의 구설병(口舌病)의 경우

소아 치료의 주의점이 썩어 있다.

## 32. 구설창(口舌瘡)에 쓰이는 약물

10여종이 내과적 요법에 쓰인다.

## 33. 구설창(口舌瘡)을 외치(外治)하는 경우

구창(口瘡)과 인통(咽痛)에 사용되는 다유산(茶萸散)과 소아가 구창(口瘡)으로 젖을 못 먹을 때 쓰는 여성산(如聖散)이 있고 구설생창(口舌生瘡)에 탁족법(濯足法)과 구창(口瘡)에 화독법(化毒法)이 있다.

## 34. 주객(酒客)의 후설(喉舌)에 생창(生瘡)하는 경우

과음하였을 때의 증상으로 구강영역에 대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다.

## 35. 제충입구(諸蟲入口)

입에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로 입에 뱀이 들어간 경우 잡아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 36. 보설단방(補舌斷方) 혀가 끊어지는 경우

칼에 의해서 설(舌)의 상처가 있고 끊어지지 않았을 때 달걀의 흰자위와 벌꿀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 37. 구설 질환용 단방약

## 38. 구설질환의 침구법

## 미래를 위한 결론(結論)

한국인(韓國人)은 문화(文化)의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치의학(齒醫學)에서도 그 주변(周邊)의 지식(知識)을 종합하여 한국화(韓國化)로 이끌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역사(歷史)가 시작되면서부터 1236년경 고려(高麗 고종 23년경) 우리의 최고의서(最古醫書)인 향약구급방(鄉藥求急方)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래치의학(外來齒醫學) 영향 시대이며 그 후부터 세종대왕(世宗大王)의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과 의방유취(醫方類聚) 등의 간행을 거쳐 1611

년(조선왕조 光海君 3年) 동의보감(東醫寶鑑)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주적치의학(自主的齒醫學) 발전(發展)시대이며 동의보감(東醫寶鑑)이 나온 후부터 조선왕조 말까지는 자주적치의학(自主的齒醫學) 개화(開花)시대라 할 수 있다.

즉 형태적이고 일의적(一意的)인 자연이나 인간에 관심을 갖던 시대에는 치의학(齒醫學)도 답습의 언저리를 맴돌아 중국의 의서(醫書)에만 의존했으나 차차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여 우리를 찾게 되면서부터 고유의 의서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의서가 동양(東洋)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각 시대별로 역사적 배경, 문헌에 의한 검증, 치의학(齒醫學)을 위한 의서(醫書)를 살펴보았고, 비의서(非醫書)에 의한 접근(接近)을 시도하였고, 향약구급방(鄉藥求急方),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동의보감(東醫寶鑑)의 구설문과 아치문의 항목에 현대적 해석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근대 치의학은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초와 임상치의학에서 본다면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의한 경락(經絡)과 침령법(鍼靈法)의 효율성을 볼 수 있었다.

질환의 분류는 증상에 의한 분류가 오랫동안 쓰여 졌고, 한 낱말에 복합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부와 병리학적인 개념으로써 현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치(齒)와 아(牙), 진(疹)과 통(痛), 충치(虫齒)와 풍치(風齒) 등이다. 질환의 증상에 의한 분류는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이르러서 기초와 임상에 의한 분류를 하였다.

치료는 통통(疼痛) 출혈(出皿) 종(腫) 양(瘍) 불능(不能) 장애(障礙) 같은 직접적인 요구로 이러한 것의 해소법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내과적으로 약물의 복용에 의존하였다.

외과적으로는 하악탈구 시의 치료법과 투치(闢齒)일 때의 치아의 고정법은 현재 사용되는 결찰법보다 물리적인 힘은 약할지 모르나 진정 효과까지 부가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외에도 예지에 빛나는 구강외과적 치료법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위생이나 치주병학의 치료로는 도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그 개념에 있어서 현대 치의학과 유사하고 치아뿐만 아니라 지지조직에도 관심을 보였다.

보존 술식은 향약구급방, 향약집선방, 동의보감에서 송진 등으로 충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아와 노인과 임신부의 치료는 각별히 달리 하였다.

비의서에 의한 접근에서 보면 치아의 중요성은 평범한 상식이었으며, 입과 혀는 그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 사람들은 보다 광범위한 치의학적 지식을 갖추어서 이빠진데 박씨 박는 보철의 욕구를 드러낸 것이 있었다.

### 〈교신저자〉

- 신재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71-16
- Tel : 02-3679-1084, E-mail : allens@kornet.net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오스트리아 여행 (The history of dentistry : Austria Tour)

권 훈  
Kweon, Hoon

## 치과 박물관

1. Museum of Dentistry of Vienna : 빈(Wien)
2. Zahnmuseum(Linz) : 린츠(Linz)

## 미술관

1. 빈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Wien) : The Village Barber(1637)
2. 빈국립예술대학교(Akademie der bildenden Kunste Wien) : The Dentist on Horseback(1664)
3. 클림트 빈 대학교 천장화(Klimt University of Vienna Ceiling Paintings)
4. 레오폴드 박물관 : 클림트 천장화 복원(의학, 법학, 철학)
5. 렌토스 미술관(Lentos Kunstmuseum Linz) : Bildnis Trude Engel(1913)

## 합스부르크가(House of Habsburg)

1. 벨베데레 궁전(Schloss Belvedere Palace) : 클림트 천장화 복원
2. 쉰브룬 궁전(Schönbrunn Palace) : Habsburg Jaw
3. 호프부르크 왕궁(Hofburg Palace) : Empress Sissi(1837-1898)

## 그 외(Others)

1. 빈 중앙묘지 : 브라암스, 요한 스트라우스
2. 슈테판 대성당(St. Stephen's Cathedral) : Wien Toothache legend
3. 몬트제 성당(Mondsee Basilica St. Michel) : 아폴로니아 테라코타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오스트리아 여행 (The history of dentistry : Austria Tour)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 머리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대로 다양한 준비를 한다. 필자는 방문할 국가를 배경으로 하거나 또는 그 나라 출신의 유명한 사람의 전기를 다루는 영화를 찾아보곤 한다. 그 이유는 영화에 나온 도시를 실제로 가본다던가, 과거에 가봤던 나라가 우연히 보게 된 영화에 나오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고, 때로는 그 시절의 추억에 젖어들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환상적인 자연 경관과 화려한 도시가 있어서 그런지 영화 배경으로 많이 등장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예술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전기 영화도 여러 편 있다. 오스트리아 곳곳을 구경시켜주는 영화로는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65), 007 리빙 데이라이트(The Living Daylights, 1987), 비포 선라이즈(Before Sunrise, 1995)가 있다. 영화 아마데우스(Amadeus, 1984), 클림트(Klimt, 2006), 우먼 인 골드(Woman in Gold, 2015), 에곤 쉴레 : 욕망이 그린 그림(Egon Schiele: Death and the Maiden, 2016)을 통해서는 위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을 배울 수 있다.

음악, 미술과 건축 등에 최고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치의학 분야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소유하고 있다. Philip Pfaff(1716-1780)은 1756년 구강 내 인상 채득을 위하여 플라스터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책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져 치의학적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비엔나 출신의 치과의사 Adam Anton Brunner(1737-1810)는 교정학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inclined plane을 사용한 치과의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 곳곳에서 흥미로운 치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오스트리아 몇몇 도시에 혼재되어 있는 치과의사학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생각하였던 것들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치과 박물관

### 1. Museum of Dentistry of Vienna : 빈(Wien)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은 Josephium 부근의 바팅거(Währinger) 슈트라세(Straße) 25a 안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1821년에 개관된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6년 비엔나 의과대학이 독립하면서 치의학 박물관이 있던 공간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재정적인 문제까지 복합되면서 아쉽게도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필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 각국의 치의학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박물관 문에 자물쇠가 잠가진 채 일부 관심있는 사람에게만 개방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래도 한때는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이 입장료도 받고 홍보 브로셔까지 있었을 정도로 활력이 넘친 시기도 있었다(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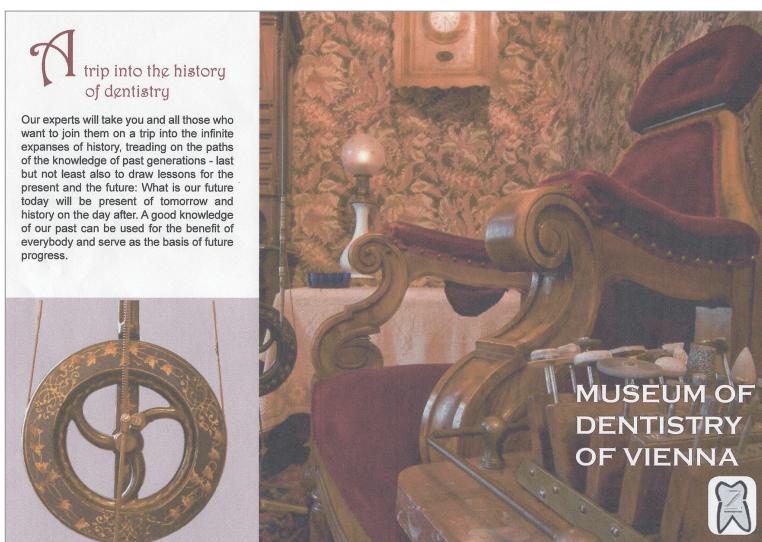


그림 1.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 브로셔 전면.

이미지에는 박물관 운영 시간, 티켓 가격, 안내문, 사진, 그리고 위치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Opening hours:**  
 Wednesday 10 a.m. - 1 p.m.  
 Thursday 10 a.m. - 1 p.m.  
 Guided tours by personal arrangement  
**Ticket prices:**  
 Adults: 4 €  
 Students: 2 €  
 Children below the age of 15: free  
**Guided tour:** 4 € /per Person  
**Guided tour for children:** 20 € /per group  
**Contact:**  
 DR. Johannes Kirchner  
 Dental Museum Vienna  
 Sensengasse 2a  
 Entrance: Währinger Straße 25a  
 A-1090 Vienna  
 Tel: +43 664 1 048 098  
 zahnmuseum@meduniwien.ac.at  
 www.zahnmuseum.at

그림 2.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 브로셔 후면.

George Carabelli(1787-1842)가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3). 그는 Josephinum이라는 군대 의학 강습소에서 군인 외과의로서 수련을 받았다. 1815년 그는 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치의학으로 전공을 변경하였다. 카라벨리는 파리에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비엔나 대학의 치의학 교수로 임용되어 가장 처음으로 치의학을 강의하였다. 물론 치의학 수업은 실습 없이 이론적 강의만 진행되었다. 따라서 카라벨리(Carabelli)는 학생들에게 강의가 보다 쉽게 이해되도록 사용한 교재 수집품들이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의 시초이다.



그림 3.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 설립자  
George Carabelli(1787-1842).

카라벨리는 지칠줄 모르는 연구와 진료를 통해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는 1833년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Franz)의 왕실 치과 주치의로 임명되었다.<sup>1</sup> 전치와 견치의 위치에 따른 8가지 유형의 교합을 명명하는 분류법을 1842년 자신의 저서에 발표하였다. 또한 그는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에 관찰되는 부가적인 교두를 발견하여 Cusp of Carabelli라고 명명하였다(그림 4). 1844년에는 치의학 핸드북을 출판하였다.

1841년까지 의학을 공부하였던 Moriz Heider(1816-1866)는 1842년 카라벨리의 계승자가 되었다(그림 5). 하이더(Heider)는 6개월동안 카라벨리의 조수로서 근무하다가 카라벨리가 사망하자 그의 치과와 수집품을 모두 인수받게 되었다. 하이더는 1843년 비엔나 대학의 강사로 임용되어 1859년에는 교수가 되었다.<sup>1</sup> 그는 1859년 오스트리아 치과의사협회(Central-Verein Osterreichischer Zahnärzte)를 창립하였는데 현재는 명칭이 오스트리아 치과, 구강 및 악안면 의학 학회(*Österreichische Gesellschaft für Zahn-, Mund und Kieferheilkunde*)로 변경되었다.

하이더는 현대 치의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 골드 포일 충전법을 소개하였으며 1845년 전기소작술 기계를 개발하여 치의학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조직병리학자인 Carl Wedl과 함께 1869년 *Atlas to the Pathology of the Teeth*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하이더는 비엔나에 University Dental Institute를 설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이루어지 않았다. 그의 꿈은 1890년에 실현되었다.

1859년부터는 오스트리아 치과의사협회가 카라벨리와 하이더가 수집해왔던 치과 유물들을 관리하며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였다. 1890년 비엔나 대학 임페리얼 로얄(Kaiserlich und königlich) 치과외래 진료소가 설립된 후 치과 유물 수집을 위한 특별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진료소내에 유물이 보관되었다가 1977년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박물관에 큐레이터도 근무할 만큼 활성화 되었다가 2016년 비엔나 치의학박물관은 폐쇄되었고 현재는 비엔나 치과대학(*Universitätszahnklinik Wien*) 입구에 박물관의 일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그림 6).

George Carabelli(1787-1842)가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을 설립하였듯이 요하네스 키르히너(Johannes Kirchner, 1956-)는 거의 30년 동안 치의학 박물관을 담당해 왔으며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큐레이터이다(그림 7). 그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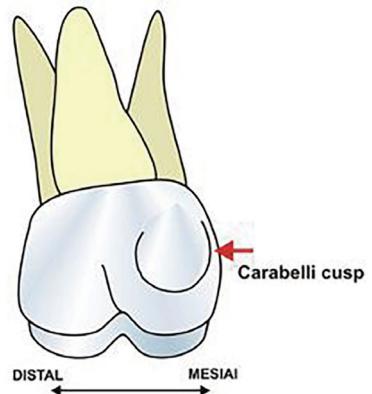


그림 4. 카라벨리가 명명한 상악 제1대구치 Cusp of Carabelli.



그림 5. 카라벨리를 계승하여 치의학 박물관을 더욱 발전시킨 Moriz Heider(1816-1866).



그림 6. 2019년 방문한 비엔나 치과대학 (*Universitätszahnklinik Wien*) 입구에서.



그림 7.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 큐레이터 겸 치과의사 Johannes Kirchner(1956-).



그림 8.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 내부 모습.



그림 9.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 내부 모습.

가지고 진료하면서 치과 박물관에서도 혼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였다. 그의 손길이 닿아있었던 치의학 박물관의 모습을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다(그림 8, 9).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의 로고는 대구치 도식안에 독일어로 치아를 뜻하는 Zahn의 첫 알파벳인 Z를 치경, 핀셋과 발치 겸자로 표현하였다(그림 10).



그림 10. 비엔나 치의학 박물관 로고.

## 2. Zahnuseum(Linz) : 린츠(Linz)

빈에서 서쪽으로 차로 2시간 떨어진 곳에 린츠(Linz)라는 도시가 있다. 린츠는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바로 이곳에 치과 박물관이 있다. 린츠 치과 박물관은 1998년 오스트리아 치과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그룹에는 치과계에 종사하는 모든 직군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9년에는 'Dentistry in the change of time'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부터는 린츠의 메인 광장에 있는 올드 타운 홀에 린츠 치과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림 11). 이 박물관에서 필자의 눈에 가장 띤 것은 장식장이었다. 유명한 전시 건축가인 Gningler와 Wilhelm이 어금니 모양을 형상화해서 장식장을 디자인하였고 전시물도 테마별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12).

린츠 치과 박물관은 1700년부터 현재까지의 치의학의 발달사를 보여주는 치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은 1720년경에 제작된 'bader chair'다(그림 13). 박물관의 전시물은 시기별로 유니트 체어와 방사선 기계 등이 마네킹과 진열되어 있어 더욱 현실감있게 보였다(그림 14, 15). 이 박물관도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껏 구경하고 갈 수 있어서 좋았지만 어쩌면 이 박물관도 언제가는 폐관될 수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그림 11. 2019년 방문한 린츠 치의학 박물관 앞에서.



그림 12. 린츠 치의학 박물관 내부 모습.



그림 13. 1720년경에 제작된 'bader chair' 앞에서.



그림 14. 린츠 치의학 박물관 내부 모습.



그림 15. 린츠 치의학 박물관 내부 모습.

## 미술관

### 1. 빈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Wien) : The Village Barber(1637)

오스트리아의 국모인 마리아 테레지아(1717-1780)는 빈 미술사 박물관과 연관성이 깊다. 먼저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의 왼쪽에 빈미술사 박물관이 있다(그림 16). 두 장소의 위치가 매우 가깝다.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모든 미술 수집품을 벨베데레 궁전으로 이전시킨 후 미술사적 구분에 따라 수집품을 전시하도록 하였다.<sup>2</sup> 그래서인지 다른 미술관의 이름에서 볼 수 없는 ‘미술사’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명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6. 빈미술사 박물관 앞에서.

빈 미술사 박물관 회화관 소장품들에 큰 공을 세운 두 사람이 있다. 펠리페 4세(1605-1665)는 미술 애호가로서 800점이 넘는 작품을 구입하였고 화가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주인공은 페르디난트 2세의 막내 아들 레오폴드 빌헬름(1614-1662) 대공은 이탈리아와 네델란드 작품을 수집한 명화광이었다. 그의 수집품들은 그의 조카 레오폴드 1세(1658-1705)에 의해 오스트리아 황실 소유가 되었다. 프란츠 요제프 1세(1830-1916)는 린슈트라세에 빈 미술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합스부르크가의 수집품을 한 곳에 모아 놓아 현재수많은 사람들이 예술품 감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빈 미술사 박물관에 치과 명화가 한 점 있다(그림 17). 아드리안 반 오스타데(Adrian van Ostade, 1610-1685)가 1637경년에 그린 ‘The Village Barber’이다.<sup>3</sup> Adriaen Brouwer(1606-1638)의 영향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단순한 농민 생활에 대한 묘사중 하나이다.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의 고통을 구경하는 대기 환자들의 모습에서 소위 말하는 샤덴프로이트(Schadenfreude)가 연상된다.

그림의 인물들은 섬세하고 시원한 색상으로 회색 갈색 배경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방안을 묘사하는 키아로스庫로(chiaroscuro, 명암법)는 17세기 서양 미술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렘브란트 풍이 느껴진다. 이 그림은 레오폴드 빌헬름의 수집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17과 비슷한 구도를 가진 아드리안 반 오스타데의 스케치 그림을 네델란드 국립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그림 18).<sup>4</sup> 그림 18의 완성본이라 할 수 있는 아드리안 반 오스타데의 1657년 작품 ‘Barber-Surgeon’은 라이프치히 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그림 19).<sup>3</sup>



그림 17. Adrian van Ostade(1610-1685) : The Village Barber (1637).



그림 18. Adrian van Ostade(1610-1685) : The Tooth Puller.



그림 19. Adrian van Ostade(1610-1685) : Barber-Surgeon (1657).

## 2. 빈 국립 예술대학교(Akademie der bildenden Kunste Wien) : The Dentist on Horseback(1664)

빈 국립 예술대학교는 1692년에 설립되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아카데미 중 하나이다(그림 20). 아돌프 히틀러가 이 학교에 두 번이나 지원했는데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미술대학으로 유명하다. 만약 히틀러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였다면 2차 세계 대전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미술대학은 게멜데 갤러리(Gemäldegalerie)가 있고 수많은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

독일 화가 얀 링겔바흐(Jan Lingelbach, 1622-1674)의 작품 Folk Life in Piazza del Popolo in Rome(1664)이 이 학교의 소장품이다(그림 21). 그림의 배경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포풀로(Popolo)광장이다(그림 22). 350여 년 전의 그림에 묘사된 플라미니오 오벨리스크는 지금대 그 모습 그대로다. 아우구스투스(B.C. 63-A.D. 14)가 기원 전 1세기에 이집트를 정복한 기념으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포풀로 광장의 한 중심에 그대로 서 있다. 그림은 17세기 포풀로 광장의 장터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오벨리스크 바로 앞에서 말을 탄 발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고 있다(그림 23).<sup>5</sup>



그림 20. 빈 국립 예술대학교 전경.



그림 21. Jan Lingelbach(1622-1674) : Folk Life in Piazza del Popolo in Rome(1664).



그림 22.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포풀로(Popolo)광장.



그림 19. 그림 21의 치과치료 장면을 확대한 모습.

필자가 2018년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네델란드/벨기에 여행’에서 얀 링겔바흐의 비슷한 그림을 소개하였다(그림 24).<sup>4</sup> Italian Marketplace with a Quack Dentist(1651)에서는 말위에 앉아 발치하는 발치사의 모습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두 그림 모두 백마라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두 그림 모두 환자가 한 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아마도 환자의 고통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17세기 유행한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림 형식인 Bamboccianti로 그린 링겔바흐의 또 다른 작품인 Tooth Puller in Piazza Navona(1651)는 이탈리아 바베르니 궁전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25).<sup>6</sup>



그림 24. Jan Lingelbach(1622-1674) : Italian Marketplace with a Quack Dentist(1651).



그림 25. Jan Lingelbach(1622-1674) : Tooth Puller in Piazza Navona(1651).

### 3. 클림트 빈 대학교 천장화(Klimt University of Vienna Ceiling Paintings)

1894년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는 빈 대학으로부터 대형 축제 홀 천장 그림을 그려 달라는 의뢰를 받아 철학, 의학 및 법학 학부를 표현하는 그림을 맡게 되었다. 치과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의학을 상징하는 그림에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건강, 청결 및 위생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하이게이아(Hygieia)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그림 26).<sup>7</sup>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 위생을 담당하는 직업인을 Dental Hygienist(치위생사)라 한다. 1913년 치위생사 직업을 탄생시킨 치과의사 알프레도 폰즈(1869-1938)는 명칭을 바로 하이게이아에서 착안을 해 만든 것이다. 보건의료인 간호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nurse가 라틴어 여성형 명사 유모(乳母)를 뜻하는 nutrix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단어다. 이와 비교할 때 치위생사 어원에는 의미있는 스토리가 내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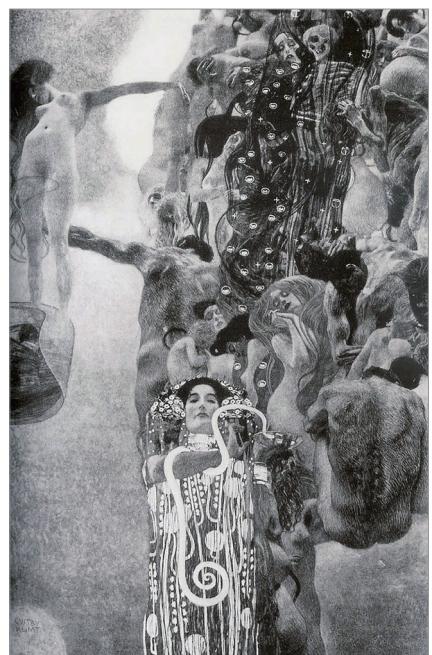


그림 26. Gustav Klimt(1862-1918) : 천장화 중 의학(1903년).

1901년 클림트의 ‘의학’ 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당국자들은 클림트가 과학에 대한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빈 대학교는 계획한대로 축제 홀 천장에 클림트의 그림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클림트는 그림 의뢰를 취소하고 작품 의뢰비를 돌려주었다. 클림트의 ‘철학’ 그림은 1905년 오스트리아 산업자인 아우구스트 레더러에게, 그림 ‘의학’과 ‘법학’은 1910년 클림트의 동료인 콜로만 모저에게 판매되었다. 1944년 클림트의 세 개의 그림은 오스트리아 임멘도르프 성으로 옮겨졌는데 안타깝게도 1945년 2차 세계 대전 당시 화재에 의해 모두 파괴되었다. 2005년 빈 대학 천장화는 흑백 그림으로 복원되어 있다(그림 27, 28).<sup>8</sup>



그림 27. 2005년 빈대 축제 홀 천장에 복원한 클림트 그림.



그림 28. 2019년 방문한 빈대학교 축제 홀.

#### 4. 레오플드 박물관 : 클림트 천장화 복원(의학, 법학)

레오플드 박물관은 오스트리아 의사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루돌프 레오플드 박사가 모은 작품 5천여점을 바탕으로 건립되었다. 이곳에는 주로 빈 분리파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 오스카 코코슈카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에곤 실레의 그림은 세계 어떤 미술관보다 많이 소장되어 있다(그림 29).<sup>8</sup>

클림트가 빈 대학의 의뢰를 받아 그린 천장화가 흑백으로 복원되어 미술관 어떤 전시실의 벽면 가득히 채워 걸려있다(그림 30). 특별한 점은 이 전시실에는 말러의 6번 교향곡을 들으면서 클림트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말러의 교향곡과 클림트의 그림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대표하는 상징과 같은 것이다.

클림트의 천장화 3점인 철학, 의학과 법학 모두 흑백 사진을 기초로 해서 복원되었는데, 의학 천장화에서 유독 그림 정중앙에 그려진 여인 하이게이아(Hygieia)만 노랗고 빨간 색상이 그려져 있다(그림 31).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



그림 29. 2019년 방문한 레오플드 미술관에서.



그림 30. 레오플드 미술관에 복원된 클림트의 법학 그림.



그림 31. 복원된 클림트의 의학 그림 앞에서.

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의 사이에 존재하고, 인생 자체는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이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겪게 된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딸인 하이게이아는 건강과 위생을 주관하는 신이다. 또한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시키는 치료약을 발견한 신으로도 유명하다. 아마도 그래서 관람객이 하이게이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진정과 치유를 받았으면 하는 복원자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5. 렌토스 미술관(Lentos Kunstmuseum Linz) : Bildnis Trude Engel(1913)

빈과 잘츠부르크의 중간쯤에 오스트리아의 공업 도시 린츠(Linz)가 있다. 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도나우(Donau, 영어로는 다뉴브 Danube)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루마니아의 군악대장인 이바노비치(Ivanovici)에 의해 1880년 작곡된 왈츠 ‘도나우강의 잔물결(Waves of the Danube)’은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을 만큼 유명한 곡이다. 한국인 최초의 여성 성악가인 윤심덕이 1926년 이 곡에 ‘사의 찬미’라는 번안 가요를 발표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기에 현재 우리에게도 친숙한 곡이다.

렌토스 미술관은 린츠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나우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린츠 치과박물관과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일정에 없던 미술관을 방문하였다. 렌토스 미술관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미술관 중 하나이며, 약 1500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클림트와 에곤 쉴레의 명작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렌토스 미술관의 대표할만한 소장품 중 하나인 에곤 쉴레(Egon Schiele, 1890-1918)의 1913년 작품 ‘Portrait Trude Engel’에 치과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다(그림 32). 초상화의 주인공인 트루드 엥겔(Trude Engel)은 에곤 쉴레의 치과 주치의인 Hermann Engel의 딸이었다(그림 33). 에곤 쉴레는 치과 치료에 대한 댓가로 그림 6점을



그림 32. 2019년 방문한 린츠의 렌토스 미술관에 전시된 에곤 쉴레 그림 앞에서.



그림 33. 에곤 쉴레의 작품 Portrait Trude Engel(1913)의 실제 모델인 트루드 엥겔(Trude Engel).

Hermann Engel에게 선물하였는데 그중에 한 점이 바로 ‘Portrait Trude Engel’이다(그림 34). 에곤 쉴레가 현재는 위대한 작가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23세의 에곤 쉴레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장래가 유망한 화가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에곤 쉴레의 초상화는 어둡고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진 14세경의 소녀의 모습이다. 1991년 트루드 엥겔의 오빠인 프리츠 엥겔(Frits Engel)로부터 미술관에 편지가 도착하였다. 내용은 자신의 여동생인 트루드 엥겔이 이 그림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캔버스를 가로질러 길게 잘랐고, 그의 아버지인 치과의사 헤르만 엥겔(Hermann Engel)은 은밀한 부분을 덧칠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술관에서 X-레이로 검사한 결과 캔버스가 길게 잘려진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칼 구멍은 발견되었고 덧칠의 흔적도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캔버스는 1911년 에곤 쉴레의 ‘Mother with child in a red coat’ 그림이 그려진 흔적이 보였다(그림 35). 따라서 쉴레는 가난한 다른 화가들처럼 이 캔버스를 재사용하여 그림을 그려 자신의 주치의인 치과의사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트루드 엥겔은 왜 이 초상화에 화가 났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다. 에곤 쉴레와 트루드 엥겔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 연인 관계이었는데 화가 난 트루드 엥겔이 그림에 훼손을 가했을 가능성성이 있다. 또 다른 추론은 에곤 쉴레가 누드로 그린 그림에 트루드 엥겔과 그녀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림에 손상을 입혔을 수도 있다. 그림의 탄생 과정에 굴곡이 많았지만 현재는 렌토스 미술관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명작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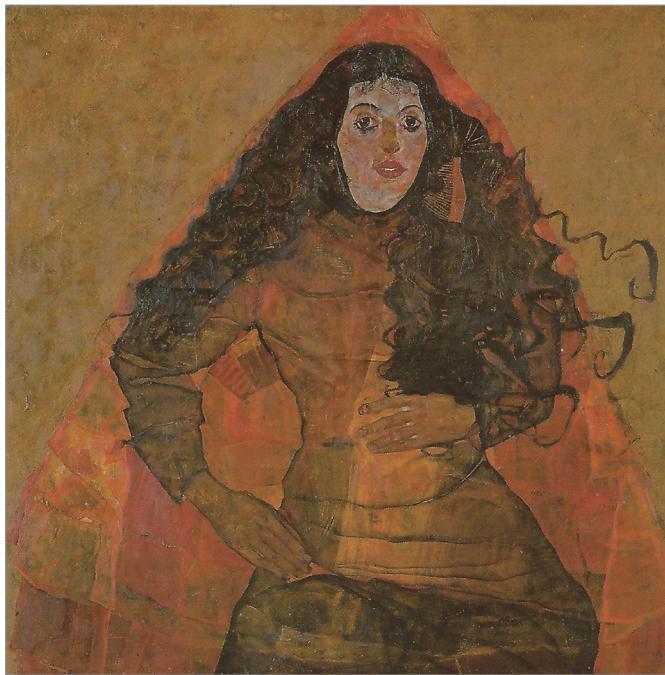


그림 34. Egon Schiele(1890-1918) : Portrait Trude Engel(1913).



그림 35. Egon Schiele(1890-1918) : Mother with child in a red coat(1911).

# 합스부르크가(House of Habsburg)

## 1. 벨베데레 궁전(Schloss Belvedere) : 클림트

벨베데레(Belvedere)는 프랑스 사보이 왕가 출신의 프린츠 오이겐(Prinz Eugen, 1663-1736)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군인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여름 저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1713년경에 건축한 건물이었다.<sup>9</sup> 50년 동안 합스부르크 가문을 위해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오이겐이 죽자 궁전과 그 안에 있는 미술품들을 합스부르크 왕가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구입하여 벨베데레라 이름을 지었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미술 소장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1914년 사라예보 총성으로 합스부르크 왕가도 무너지면서 이 궁전은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소유가 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국립 미술관이 되었다.

벨베데레 미술관은 상궁과 하궁으로 나누어지는데, 상궁은 하궁보다 10년 후에 세워졌고 두 개의 궁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상궁에서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반대 편 하궁을 보는 전망이 환상적이다(그림 36). 상부 벨베데레에는 19세기와 20세기 회화가 있는 근대 회화관이고, 하부 벨베데레는 중세에서 바로크에 이르는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상부 벨베데레 미술관을 관람하는 중 반가운 그림을 발견하였다(그림 37). Adalbert Seligmann(1862-1945)이 그린 Billroth's lecture at Vienna's General Hospital(1888/90)에서 수십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모습이다. Theodor Billroth는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이자 연구자였다. 그는 특히 복부 외과 수술의 권위자였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개교한 비엔나 의과대학은 19세기 후반까지 유럽 의학계의 선두 주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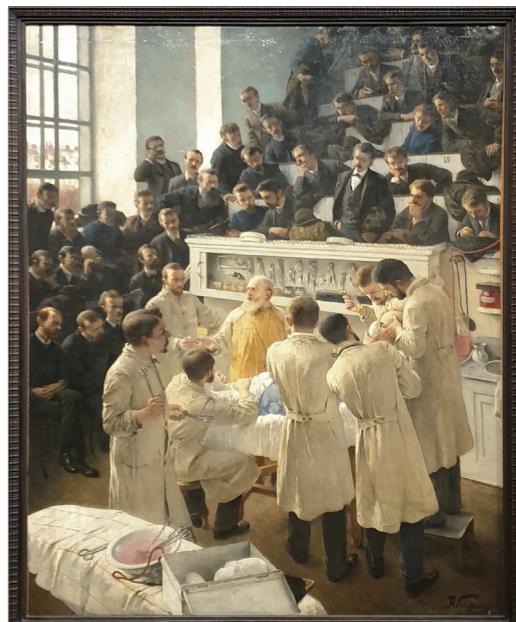


그림 37. Adalbert Seligmann(1862-1945) : Billroth's lecture at Vienna's General Hospital(1888/90).



그림 36. 2019년 방문한 벨베데레 상궁에서 바라본 정원.

벨베데레 미술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클림트의 ‘키스(1908년)’다(그림 38). 이 그림의 크기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작지 않은 크기의キャン버스에 클림트 특유의 황금빛 찬란한 색채와 도금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서로 포옹하고 있는 연인을 우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그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논문이 발표되었다.<sup>10</sup> 클림트 그림에 발생학에 등장하는 수정란, 배반포 등 세포 표본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발견한 한국인 해부학자의 논문이다(그림 39). 클림트가 그 시대의 의사나 생물학자들과 깊은 교분을 쌓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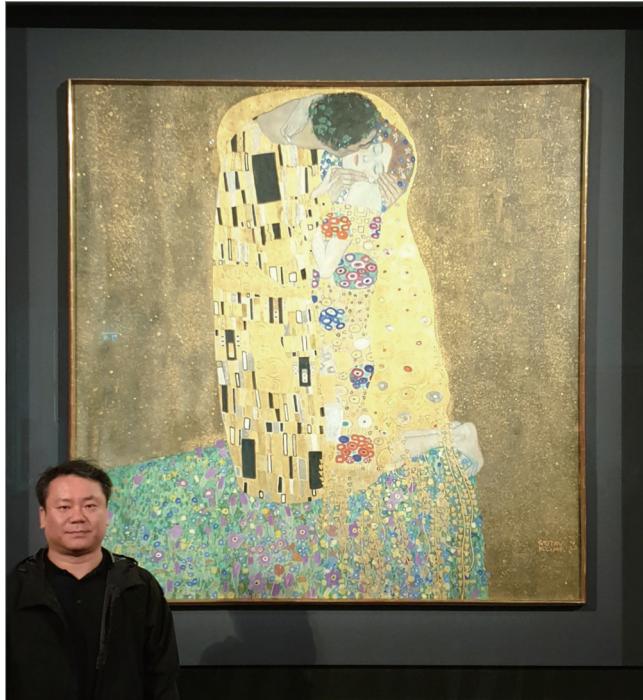


그림 38. Gustav Klimt(1862-1918) : Kiss(1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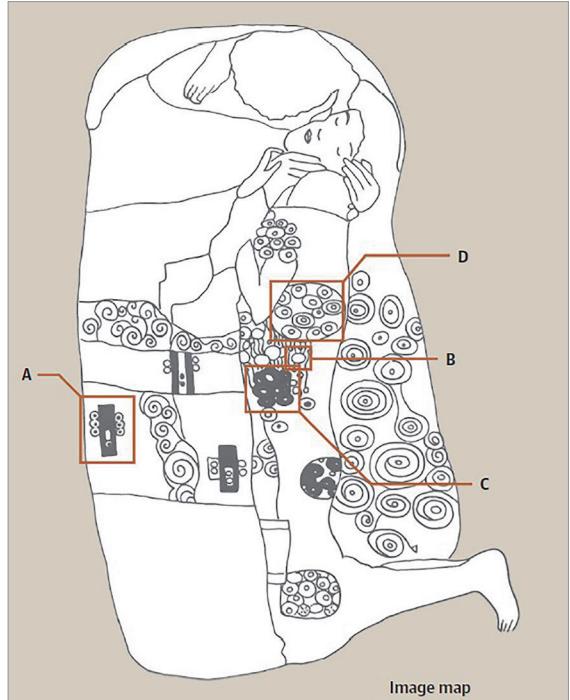


그림 39. 클림트의 그림 키스에서 인간 배아 발생학 세포 표본들이 그려진 부분.

## 2. 쉰브룬 궁전(Schönbrunn Palace) : Habsburg Jaw

합스부르크 왕가는 13세부터 20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국가 중 하나였다(그림 40). 왕가는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고집하다가 유전자가 망가트려져 유전병으로 ‘주걱 턱’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유형의 주걱 턱을 ‘Habsburg Jaw’라 한다. 이 왕가의 특징적인 안모는 하악 전돌, 도드라진 입술과 돌출된 혹 모양의 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초상화 또는 조각상에 잘 표현되어 있고, 많은 유전학자와 치과교정학 연구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41).

마르가리타 테레사(Margaret Theresa, 1651-1673)는 펠리페 4세(Philip IV, 1605-1665)의 아홉 번째 딸이다. 그녀 또한 삼촌뻘이 레오폴드 1세(Leopold I, 1658-1705)와 결혼하기로 정해진 상태였다. 스페인 궁정화가 벨라스케스는 공주가 성장하는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 레오폴드 1세에게 정기적으로 보냈다. 다섯 살인 공주의 모습은 천진난만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교합이 심해서 저작과 하악의 돌출이 심했음에도 벨라스케스는



그림 40. 16세기 찰스 5세가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 지도.



그림 41. Diego Velázquez(1599-1660) : Portrait of Philip IV in Armour(1623).

공주를 아름답게 그렸다(그림 42).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11-13세이었을 무렵의 초상화도 빈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그림 43). 이 그림은 작가 미상이지만 공주의 모습이 좀 더 현실감있게 그려져 있다.

쇤브룬 궁전은 로코코 양식으로 50만평의 대지에 지어진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방의 개수만 1400개가 넘는 쇤브룬 궁전에 오랜 시간 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가의 영광과 그림자가 동시에 스며들어 있다. 이 궁전은 프랑스 부르봉 왕가로 시집 간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결혼 선물로 받은 건물이었다. 그녀는 1750년대에 부르봉 왕가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여 증축을 하였고 현재 궁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그림 44).



그림 42. Diego Velázquez(1599-1660) : Infanta Margarita Teresa in silver dress (1656).



그림 43. Unknown : Portrait of Margaret Theresa(1662-4).



그림 44. 2019년 방문한 친부룬 궁전 앞에서.

### 3. 호프부르크 왕궁(Hofburg Palace) : Empress Sissi(1837-1898)

호프부르크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겨울 궁전이었다. 이 거대한 궁전은 13세기에 처음으로 건축되어 600년 동안 증, 개축이 있었다. 현재는 궁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제회의장으로 사용되고, 궁전 안에 보물 전시실과 시씨 박물관(Sissi Museum)이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후이자 프란츠 요제프 1세(Franz Joseph I, 1830-1916)의 부인 엘리자벳 아말리에 오이게니(Elisabeth Amalie Eugenie, 1837-1898)가 바로 시씨(Sissi)고, 시씨는 그녀의 애칭이다(그림 45). 호프부르크안에 있는 시씨 박물관은 시씨 연대기, 초상화, 애장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시씨는 벽화, 동상 우표 심지 어 선물 가게 포장지에도 그녀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궁정 생활만큼 그녀의 인생은 우아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인생을 그리는 소설, 드라마뿐만 아니라 뮤지컬 ‘엘리자벳’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림 46).



그림 45. Amanda Bergstedt : Portrait of Elisabeth Amalie Eugenie(1855).



그림 46. 뮤지컬 엘리자벳 포스터.

시씨 황후는 출생할 때 두 개의 치아를 가지고 태어났다. 소위 말하는 선천치(natal teeth)다.<sup>11</sup> 선천치를 가지고 태어난 유명한 인물로는 나폴레옹, 루이 14세, 리차드 3세, 한니발(Hannibal) 등이 있다. 시씨 황후의 선천치는 좋은 징조(omen)로 해석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선천치를 나쁜 징조로 받아들였다. 시씨 황후의 선천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 박물관에 전시가 되곤 한다.

시씨 황후는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엄마인 조피 프레데리케 폰 바이에른 왕녀(Sophie Friederike von Bayern, 1805-1872)가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것에 힘들어 하였다. 예를 들면 시씨에게 칫솔질을 하라는 명령에 굴욕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을 본 요제프 1세는 조피 대공비에게 감사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유추해보면 시씨 황후의 구강 상태는 썩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씨 황후는 이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셀럽(celebrity)에 해당되어 그녀에 관한 소문이 많았다. 그중에 하나가 그녀는 치아 상태가 매우 안좋고 결손치도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러자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제 상황을 숨기면서 소문이 더욱 퍼지게 하는데 방조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1898년 그녀가 사망한 후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시씨 황후는 아들인 루돌프 황태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의에 빠진 채 경호원

도 없이 제네바를 여행을 하던 중 1898년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하였다. 시씨 황후의 시신을 부검한 스위스 외과의사 Jacques Louis Reverdin(1842-1929)은 부검 보고서에 그녀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19세기 말 61세 황후는 심한 흡연자였고 코카인을 자주 흡입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의 구강상태는 재앙의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녀의 평소 습관을 고려한 치아 상태와 그녀를 부검한 의사의 소견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역사적 사실은 불명확하다.

시씨 황후의 치과 주치의는 미국인 치과의사 Levi Spear Burridge(1829-1887)였다. 그는 미국 블티모어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프랑스에서 개원을 했고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과의사였다. 그는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와 시씨 황후, 교황 비오 9세, 로스차일드 가문의 치과 주치의였다. 시씨 황후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녀가 광범위한 치과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있는데 그것을 증빙할 기록은 없다. 충전과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가 카페에서 틀니를 세척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러한 소문은 터무니 없어 보인다. 19세기에도 유명인은 뜬소문에 자유로울 수 없었나 보다.

## 그 외(Others)

1. 빈 중앙묘지 : 브라암스(Johannes Brahms, 1833-1897),  
요한 스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 1825-1899)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매년 세계 각국을 지정하여 여행 아니 취재를 다니고 있다. 2019년 오스트리아로 빈 공항에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은 빈 중앙묘지였다. 중앙묘지가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2012년 신문에 실린 기사 '누가 브람스 치아를 빼갔나?'를 읽고 브람스와 요한 스트라우스 묘에 찾아가서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건네고 싶어서였다(그림 47).

나폴레옹의 상악 우측 견치와 존 레논의 어금니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나폴레옹의 치아는 무려 200여년 가까이 마체로니 가문이 소장하다가 2005년 영국 경매시장에서 11,000파운드에 낙찰되었다.<sup>12</sup> 존 레논의 치아는 치과의사이자 치아 수집가인 Michael Zuk에게 2011년 영국 오메가 경매시장에서 3500만원에 팔렸다. 치아를 구입한 치과의사는 존 레논의 치아

### 누가 브람스 치아 빼갔나?

입력 : 2012-07-03 17:24:05 수정 : 2012-07-03 19:25:34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요하네스 브람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봄의 소리'. 이름만 들어도 밝고 흥겨운 선율이 느껴지는 수많은 월츠를 작곡한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그리고 독일 '3대 B(바흐 · 베토벤 · 브람스)' 중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요하네스 브람스. 인류에게 큰 감동을 준 이들이 편히 잠을 못 자게 됐다. 오스트리아 한 도굴꾼이 그들 무덤을 파헤친 후 이를 흉쳐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도굴꾼은 이를 빼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려 오스트리아 전역을 경악케 했다.

범인은 두 작곡가 중 한 사람 관 뚜껑을 연 뒤 해골을 꺼내고, 펜치로 이를 빼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고 데일리메일이 2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도굴꾼 이름을 비롯한 어떤 신원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언론들이 'OJ'라고 명명한 이 범인은 흉친 이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이미 두 작곡가가 묻혀 있는 빈 중앙묘지에서 해골과 의치 수백 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작곡가 무덤이 도굴된 데다 도굴 영상까지 인터넷에 유포되자 베토벤, 슈베르트, 친베르크 등 묘지에 묻혀 있는 다른 유명 작곡가를 무덤도 훼손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 두 작곡가 무덤은 올해 초 도굴돼 자연 이와 의치들이 없어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무덤이 별달리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문이 커지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해당하는 연방범죄수사국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

연기적인 범죄 행각의 피해자가 된 두 작곡가 브람스와 슈트라우스 2세는 공교롭게도 생전에 재미있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어느 날 브람스가 슈트라우스 2세 부인을 만나 부인이 사인을 해 달라고 하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중 몇 마디를 적고 옆에 '불행히도 브람스 작품이 아님'이라고 적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림 47. 매일경제 2012년 7월 3일.

를 유전자 분석하여 치아에서 유전자 코드를 추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빈 중앙묘지에서 브람스와 슈트라우스 2세 치아를 도굴한 범인들은 이 치아들을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치아마다 다른 사연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치아 이야기를 계속 찾아볼 계획이다.

빈 중앙묘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묘지 중 하나이다. 유명한 음악가들의 묘는 32A구역에 모여있는데 중앙묘지 제2문과 가깝다.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등등 18세부터 20세기의 대작곡가들이 음악의 중심지였던 빈에 잡들어 있다. 브람스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묘는 나란히 있다(그림 48). 음악을 전공 또는 취미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빈의 중앙묘지는 반드시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브람스(1825-1897),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과 클라라(Clara Schumann, 1819-1896)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음악사에서도 회자 될 정도로 애듯한 스토리가 있다(그림 49). 필자는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3명 모두 19세기를 살다 갔기에 차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자료를 찾아보았다. 우선 일상에서도 쉽게 브람스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역 사거리 작은 타일 건물 2층에 브람스 다방이 있다.<sup>13</sup> 1985년 문을 연 다방의 주인이 브람스와 커피를 좋아해서 실내 인테리어에 브람스의 이름과 그림이 고풍스럽게 그려져 있다(그림 50).



그림 48. 2019년 브람스와 요한 슈트라우스 묘지 앞에서.



그림 49. 2008년 개봉된 영화 클라라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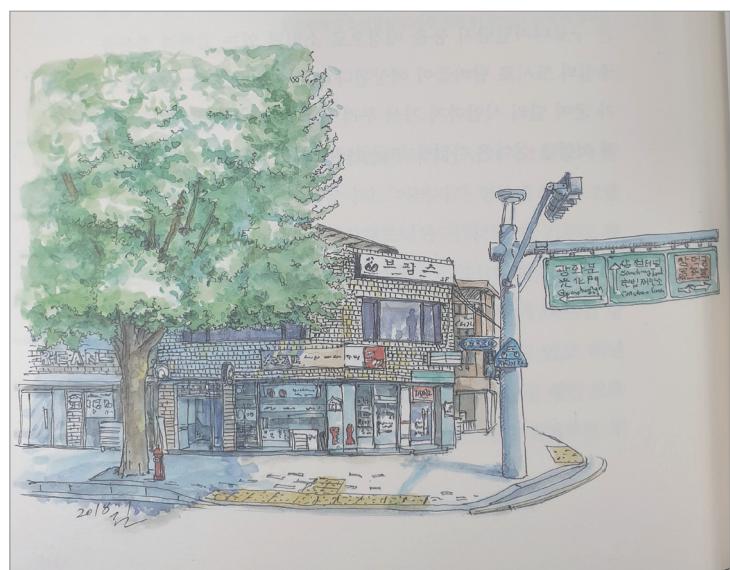


그림 50. 한국역 사거리에 있는 카페 브람스.

브람스는 베토벤에 견줄만큼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지킨 작곡가였다. 4개의 교향곡과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협주곡, 독일 레퀴엠 등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오페라를 작곡하지는 않았다. 브람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페라를 작곡하느니 차라리 치통이 낫겠다.” 클라라 슈만은 1884년 3월 런던에서의 삶에 대해 편지를 써서 자신의 딸 엘리스에게 보냈다. 그녀는 런던의 혹독한 추위와 심한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딸들에게 알리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하였다.

브람스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슈만은 극심한 두통속에서도 작곡을 계속하여 수많은 가곡을 탄생시켰다. 1844년 슈만은 신경 쇠약이 더욱 심해진 상태에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에 1845년 로베트 번즈(Roberts Burns, 1759-1796)의 시에 곡을 붙여 5곡의 가곡을 만들었다. 이중에 두 번째 곡이 Zahnweh이다(그림 51). 번즈는 자신의 조국인 스코틀랜드를 비난하는 자들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을 끔찍한 치통에 비유하여 시를 지었다.<sup>14</sup> 슈만은 이 시구절에 유머스럽게 노래하는 곡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음악적으로 매우 긴 간격의 길을 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소하지만 동시에 소리는 점점 크게(크레센도) 연주된다. 비록 고귀하고 아리아풍의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독일 가곡은 이러한 유형의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의 마음에 바로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매우 독창적인 가사는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심한 치통에 대한 시적인 묘사이다. 슈만 또한 얼마나 치통으로 고생이 심했으면 자신의 경험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가곡을 만들었을까 싶다.

**Zahnweh**  
aus "Fünf Lieder" für gemischten Chor a cappella

Robert Schumann, 1810 - 1856  
op. 55, Nr. 2 (Text Robert Burns)

**Mit Humor**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vocal part: Soprano, Alto, Tenor, and Bass. The vocal parts are labeled "Mit Humor". The lyrics are in German and describe a toothache. The score shows musical notation with various dynamics and vocal parts contributing to the crescendo mentioned in the text.

Wie du mit gift'-gem Sta-chel fast die Kie- fern, die Kie-fern mir zer -  
 Wie du mit gift'-gem Sta-chel fast die Kie- fern, die Kie-fern mir zer -  
 Wie du mit gift'-gem Sta-chel fast die Kie - fern, die Kie-fern mir zer -  
 Wie du mit gift'-gem Sta-chel fast die Kie - fern, die Kie-fern mir zer -

ris-sen hast, mein Ohr durch-dröh - net oh - ne Rast, oh - ne Rast dein Mar - terstich, dein  
 ris-sen hast, mein Ohr durch-dröh - net oh - ne Rast, oh - ne Rast dein Mar - terstich, dein

그림 51. 슈만이 1845년 만든 가곡 Zahnweh 악보.

## 2. 슈테판 대성당(St. Stephen's Cathedral) : Wien Toothache legend

슈테판 대성당은 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1147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1359년 루돌프 4세가 주도하여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으로 완성되었다. 성당의 크기는 축구장만 하며 136미터 높이의 첨탑이 건물의 웅장함을 더하고 있다. 슈테판 성당은 찾아오는 사람의 직업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종교인은 중앙 제단과 종교적 관념을 보여주는 성화에, 건축가에게는 건축물의 양식과 구조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이곳에서 열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음악 애호가라면 모차르트의 삶을 회상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슈테판 성당은 관광하는 사람이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치과의사인 필자가 슈테판 성당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치통의 그리스도(Zahnwehherr gott)’를 보기 위해서였다(그림 52).

슈테판 성당 밖 동쪽 문 벽면에 ‘가시면류관을 쓴 그리스도 조각상’이 있다(그림 53). 원래 이 조각상은 성당 주변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었던 것이다. 원본은 슈테판 성당 내부에 있고 실외에 있는 것은 복제품이다(그림 54). 이 조각상은 명칭도 여러 개이고 설화도 많다. 1933년 카톨릭 잡지인 ‘City of God’에서 조각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다.<sup>15</sup>



그림 52. 슈페판 성당 앞에서.



그림 53. 슈테판 성당 밖 동쪽 문 벽면에 있는 ‘가시면류관을 쓴 그리스도 조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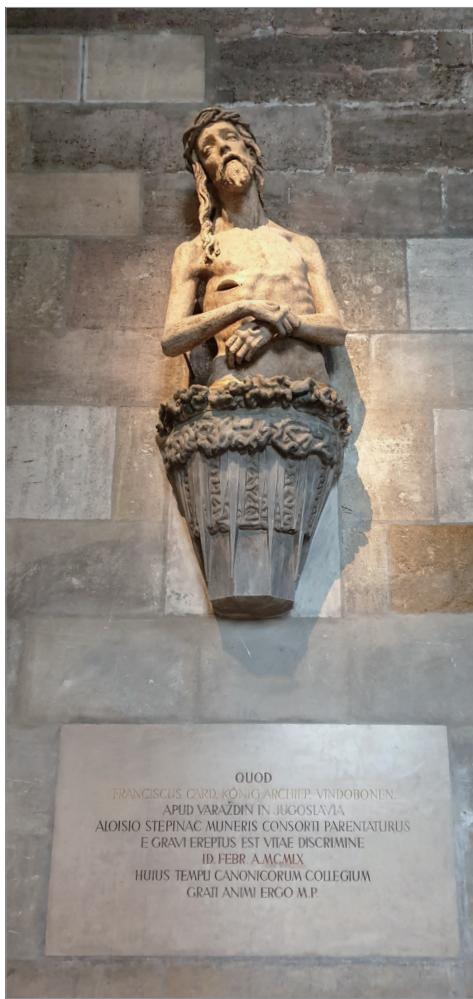


그림 54. 슈테판 성당 내부에 있는 원본 그리스도 조각상.

공동묘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조각상에 꽃을 걸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독실한 신자가 그리스도 조각상 머리에 장미 화관을 씌워 드렸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화관이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 신자는 비단 천을 이용하여 화관을 턱 아래까지 연장하여 단단히 고정해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명의 술취한 젊은이들이 지나가다 그리스도 조각상과 화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치통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웃으면서 소리쳤다. 아마도 조각상 머리에 화관을 고정하기 위해 동여멘 천조각을 두른 그리스도 조각상의 모습이 마치 치통 스카프(toothache sacrif)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을 것 같다(그림 55). 집에 돌아간 세 사람은 모두 그날 심한 치통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어제 저녁 그리스도 조각상을 보고 한 행동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슈테판 성당으로 바로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크게 뉘우치고 있던 세 명의 청년들에게 치통은 즉시 사라졌다. 이때부터 그리스도 조각상은 ‘치통의 신(Toothache God)’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실제로 치통의 그리스도 조각상은 얼굴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제작되어 있다.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도 보인다. 필자의 눈에는 치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치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 상의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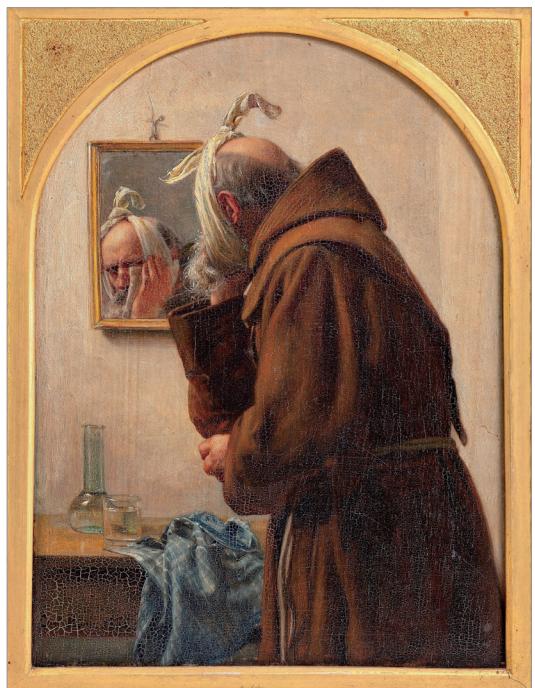


그림 55. Carl Bloch(1834-1890) : A monk looking in the Mirror (1875).

### 3. 몬트제 성당(Mondsee Basilica St. Michel) : 아폴로니아 테라코타

모차르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Salzburg)는 영화 ‘Sound of music’이 제작된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도시다.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다. 주요 코스는 미라벨 정원(Mirabell gardens), 레오폴트스크론 성(Leopoldskron palace), 헬부른 궁전(Hellbrunn palace), 논베르크수녀원(Nonnberg abbey), 몬지 마을(Mondsee)이다. 이 중에서 잘츠부르크에서 동쪽으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몬지 마을에 있는 몬지 성당은 치과의사가 꼭 가봐야 할 여행지다.<sup>12</sup>

외관 전체가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몬지 성당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멋진 곳이다(그림 56). 몬트제 성당은 바바리아 공작인 Odilo에 의해 748년 처음으로 건립되어 1300년의 역사가 있는 성당이다. 영화 Sound of music에서 마리아와 트랩 대령의 결혼식 장면이 촬영되었던 몬지 성당(Mondsee Cathedral)은 사랑하는 연인을 맺어주는 성당으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그림 57). 성당 내부에서 중앙 제대를 향하는 통로 양쪽에 여러 개의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St. Apollonia의 성상을 만날 수 있다(그림 58, 59). 치아가 잡힌 발치겸자를 오른손에 든 아폴로니아 상은 치과의사에겐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림 56. 몬지 성당 전경.



그림 58. 몬지 성당안에 있는 St. Apollonia의 성상.



그림 57. 영화 Sound of music에서 마리아와 트랩 대령의 결혼식 장면.



그림 59. 치과의사 수호성인 아폴로니아가 우측 손에 발치 겸자를 들고 있는 모습.

제70회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학술대회 및 총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다. 이처럼 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였다(그림 60). 우표에는 치과 의사 수호성인 아폴로니아가 그려져 있다. 오른 손에는 치아가 집혀 있는 발치겸자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다. 보통 다른 한 손에는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치과의사 학술대회를 기념하는 우표이기에 우표 도안에서는 치의학 서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표는 Sepp Buchner가 디자인을 제작하였고, 그림은 Kurt Leitgeb의 판화 작품이다.<sup>7</sup>



그림 60. 제70회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오스트리아 우표.

## 맺음말

오스트리아는 1892년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고종은 수교 선물로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조선의 갑옷과 투구를 보냈고, 이것은 프란츠 요제프의 수집품으로 등록되어 현재 빈미술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1897년에는 빈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4막 9장으로 구성된 발레 ‘한국의 신부(Die Braut von Korea)’가 초연되었다. 이 발레는 빈에서 총 38회나 공연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오랜 기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빈 소년 합창단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루돌프 1세부터 시작된 합스부르크 왕조는 약 650년 동안 유럽 중심부에서 음악, 미술 건축 등 종합 예술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알프스와 같은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궁정, 박물관과 미술관 등 다양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

이번 오스트리아 여행은 차분하면서도 알차게 보낸 일정이었다. 현대 치의학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린츠 치과 박물관은 작은 규모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수집품 기증으로 치과계 전반적인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또한 18세기와 19세기 일부 음악가들이 치통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알 수 있었고, 치통의 경험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음악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 슈테판 성당과 몬트제 성당에서도 치의학과 관련된 스토리를 볼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한 여행이었다.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여행 시리즈’를 위한 여행을 통해 치의학과 관련된 공간을 필자가 직접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많다. 책에서 보았던 것을 실제로 보는 감동도 있고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 경험을 학회지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또 다음 여행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분주하게 보낼 날들을 생각하니 벌써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

## 참고문헌

1. Hoffmann-Axthelm W : History of dentistry, Quintessence books, 1981
2.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100배 즐기기, 한국경제신문, 2022
3. Pierre Baron : L'art dentaire a traverse la peinture, ACR Edition, 1986
4. 권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네델란드/벨기에 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7권 제2호, 2018
5. Dr. F.E.R. de Maar : Vijf eeuwen tandheelkunde in de Nederlandse en Vlaamse kunst, Nederlandse Maatschappij tot bevordering der Tandheelkunde, 1993
6. 권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이탈리아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7
7. Loevy HT, Kowitz AA : Dentistry on stamps, K&L Publishing, 1990
8. 박종호 :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김영사, 2011
9. 나카노 교코 : 명화로 읽은 합스부르크 역사, 안경 arte, 2022
10. Dai Hyun Kim, Hyunmi Park, Im Joo Rhyu: Gustav Klimt's The Kiss-Art and the Biology of Early Human Development, JAMA. 2021;326(18):1778-1780
11. Xavier Riaud : Empress Sissi(1837-1898), Dent Pract Vol 2:1-2, 2019
12. 권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2
13. 이인우 : 서울 백년 가게, 꼼지락, 2019
14. Stefano Eramo : Classical Music and the Teeth, J Hist Dent. 60(3):36-44, 2012
15. Hedvig Lidforss Stromgren : Die Zahnheilkunde im Achtzehnten Jahrhundert, Verlag Levin & Munksgaard, 1935

###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50-2, 미래아동치과
- Tel : 062-672-2543, E-mail : 2540go@naver.com

##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1960. 10. 7 창립)

1984. 6. 30 제정

1986. 10. 14 인준

1987. 3. 11 개정, 1990. 5. 28 개정, 1995. 5. 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 13 개정, 2016. 6. 21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2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사 업

- 제4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 제 3 장 회 원

-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 4 장 기구 및 선거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총무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 제 5 장 총 회

-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 6 장 임 원 회

-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재 정

-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8 장 부 칙

-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 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 제 8 장 세 칙

1. 입회비 : 5만원
2. 연회비 : 3만원
3. 평생회비 : 10년간의 연회비

#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기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을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

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 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 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sup>3,9-13)</sup>.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 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sup>2</sup>는, 김 등<sup>2</sup>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 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째주 및 6월 첫째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소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강경리 교수  
Tel : 02-440-7515, Fax : 02-440-7549  
e-mail : periokkl@khu.ac.kr

#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고문	김정균	정책이사	권훈	이사	이준규
고문	박승오	편집이사	권훈	이사	조영식
고문	변영남	기획이사	김상환	이사	박영준
고문	김평일	연구이사	한승희	이사	박덕영
		국제이사	백장현	이사	유동기
명예회장	고이병태	법제이사	김현종	이사	박영범
명예회장	류인철	총무간사	유승훈	이사	박용덕
회장	김희진			이사	박정철
부회장	권긍록	자문위원	최상묵	이사	임용준
부회장	이해준	자문위원	김종열		
부회장	이주연	자문위원	한수부	대학이사	최성호
총무이사	김준혁	자문위원	차혜영	대학이사	강신의
재무이사	김정석	자문위원	허정규	대학이사	김병옥
대외이사	김성훈	자문위원	홍예표	대학이사	박병건
교육이사	유미현	자문위원	백대일	대학이사	최홍란
학술이사	허경석	자문위원	김명기	대학이사	이홍수
편집이사	신유석			대학이사	박호원
섭외이사	구기태	감사	배광식	대학이사	이재목
정보통신이사	김지환	감사	조영수	대학이사	박찬진
		감사	박준봉	대학이사	김성태
				대학이사	유승훈
				대학이사	김홍중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9년 제38권 제1호 통권 43호

Vol. 38, No. 1, 2019

발행인 : 김희진

Publisher : Kim, Hee Jin

편집이사 : 권훈

Editor-in-Chief : Kweon, Hoon

인쇄일 : 2019년 6월 25일

Printig date : June 25, 2019

발행일 : 2019년 6월 30일

Publication date : June 30, 2019

발행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Published by :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0831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7길 2

2, Gurodong-ro 17-gil, Guro-gu, Seoul 08316

세브란스치과의원

Severance Dental Clinic

전화) 02-854-0028, 팩스) 02-854-0027

Tel : +82-2-854-0028, Fax : +82-2-854-0027

<http://cafe.daum.net/denhistory>

<http://cafe.daum.net/denhistory>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의치학사

Edition & Printing : Dental and Medical Publishing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38권 제1호 통권 43호 2019년

■ 한국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 최매지의 생애와 활동

- 윤은순

■ 고쳐 쓴 전근대(前近代) 한국치의학사 연구(韓國齒醫學史 研究)

- 신재의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오스트리아 여행(The history of dentistry : Austria Tour)

- 권 훈